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총론

# 목 차

I. 교육과정의 이해 .....	4
1. 교육과정의 개념 .....	4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	10
3.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	12
4.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	15
I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19
1. 추구하는 인간상 .....	19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	24
III.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26
1. 고등학교 교육목표 .....	26
2.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	29
3.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	38
4. 학교급별 공통 사항 .....	48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	71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71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85
<부록 1>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	88
<부록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신규 비교 .....	109
<부록 3>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	134
<부록 4>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천 .....	146

# 총 편

김승익 (교육과학기술부)  
정용호 (교육과학기술부)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순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광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제윤 (영등포고등학교)  
백인화 (광주시교육청)  
나태순 (대전노은고등학교)  
진동섭 (영동일고등학교)  
안중선 (충남과학고등학교)  
규병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 I. 교육과정의 이해

## 1. 교육과정의 개념

### 가. 교육과정의 의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학생이 경험하는 총체 또는 학교가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라는 광의로 정의해 볼 수 있다. 또한, 보다 협의의 의미에서 교육과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는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적 및 목표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실천하고 평가하는 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도로서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법규에 근거하여 마련되고 실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제시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감은 이에 근거하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동법 제23조 제2항),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1항). 이와 같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고시(공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서화된 계획이 제정, 고시 또는 공포된 순서에 따라 제1차 교육과정 혹은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왔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 23일에 개정 고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법규 문서에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문교부령 제35호(1945. 4. 20)로 공포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시간 배당 기준령’으로, 여기서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1장 총칙의 제2조). 그 이후, ‘문교부령 제119호’(1963. 2. 15.)로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제2장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 또한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 시안을 연구·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sup>1)</sup>에서는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1) 한국교육개발원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연구 보고 제110집, 1979.12. p.1.

이 답신 보고서에서는 교육과정을 ‘문서화된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의미를 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교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87-9호, 1987. 6. 30.)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국가에서 정하는 계획은 어디까지나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과정으로 고시되는 문서는 ‘교육과정 기준’, ‘교육과정 요강’ 혹은 ‘교육과정 지침’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타당하다는 것이 논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즉 교육과정은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마련된 계획’으로서 국가 수준의 계획에서부터 교사와 학생의 계획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국가 수준, 지역 수준, 단위 학교의 교사와 학생 수준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기성세대의 핵심적 문화 내용으로서의 지식과 사고 양식, 경험을 재구성한 계획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sup>2)</sup> 이러한 논의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6차 교육과정<sup>3)</sup>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문서로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법적 개념을 분명하게 밝혔다. 즉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따라 결정,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말하며, 여기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을 핵심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이 관련된다.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은 제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 법규에 따라 고시한 국가 수준의 기준임을 명시하고, ①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②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③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 ④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구체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의 이론 모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과 미래 교육에 적합한

---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밝혔다.

○ 교육과정에는 학생에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하고,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 계획, 학습 지도, 학습 평가 등의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육 철학, 국가·사회의 요구,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교과목의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가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일정한 원리와 절차에 따라 선정·조직하여야 한다.

2)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 개발 답신 보고서’, 1986. 6. 30. pp.84-85.

3)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1992. 9. 30.), 중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1992. 6. 30.), 고등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1992. 10. 30.)이다.

현실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교육과정 탐구의 현실적, 상황적 패러다임(paradigm)을 택하여 여러 가지 이론의 절충적, 종합적인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개념을 규정하였다.<sup>4)</sup>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념적 입장은 이후 개정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견지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학문적 접근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타난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서도 단순히 교육 내용 및 교과서 내용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기본적 물음에서 출발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하여 실행하고 평가 개선해 가는 실천적 행위이다. 국가 교육과정은 이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각 학교는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을 기반으로 학교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게 된다.

## 나. 교육과정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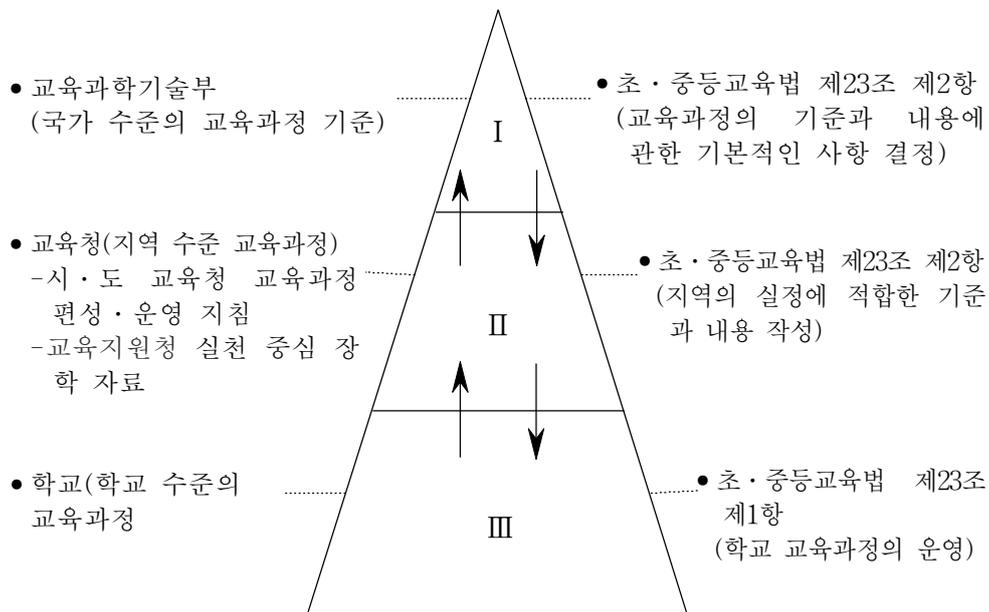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 집중형의 교육 체제를 갖추어 왔지만 교육의 분권화가 진전됨에 따라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및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왔다. 그 결과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등의 교육과정 차원이 나타났다. 즉 종래에는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것이 중앙에서 결정되어 학교는 이를 시행하는 역할로 규정되었으나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및 교육과정 자율화가 확대되면서 지역 수준 교육과정이나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 형성하게 되었다. 교육과정 결정의 주체에 따른 각 수준 교육과정이 형성하게 된 시발점은 제6차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①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②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③ 교육과정 내용의 적합화,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를 도모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역할을 분담하여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관리하고,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다. 즉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률에 따라 결정,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 중점을 반영한 지역 수준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직접 학생을 교육하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실태에 알맞게 조정한 학교 수준의 ‘학

4)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정의된 교육과정의 의미가 그대로 강조되었다. 즉 교육과정의 의미 속에는 교육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급 학교에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이들 기준과 지침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실정에 알맞게 조정, 편성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부가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실제 교실 수업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획해 놓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계획(연간, 월간, 주간)도 교육과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교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교육과정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명료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국가 → 지역 → 단위학교'의 획일적, 지시적, 일방적 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 ⇄ 지역 ⇄ 국가'의 상호 보완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 주체인 국가, 지역, 학교, 교원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맞게 국가가 의도하고 있는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책무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교육과정 결정의 주체에 따른 각 수준은 [그림 I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I -1] 교육과정의 수준과 위상

[그림 I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I)'과 이 기준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및 주민·학부모의 요구,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든 교육청의 '지역 수준 교육과정'(II)과 각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실태, 학교 환경, 교원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창출한 '학교 교육과정'(III)이 있다. 특히 (I)과 (II)는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교사 수준의 교수·학습 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기준과 지침인 동시에 그 지원 관리 체제라고 할 수 있다.

### 1) 국가 수준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sup>5)</sup>에 입각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는 고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문서로 결정, 고시되는 기준 자체를 ‘교육과정’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간주되는 이유의 하나로 교육과정 문서의 명칭이 ‘○○○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생긴 오해를 들 수 있다. 고시 문서의 명칭으로 제시된 ‘교육과정’은 다른 나라의 사례<sup>6)</sup>에서 볼 수 있듯이 어디까지나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의 명칭이지 그 자체가 ‘교육과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고시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의도적인 제도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 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기능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도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교육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육적 기준이므로 단위 학교는 이 기준을 준수하면서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2) 지역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교육 내용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각 학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거나 세밀하게 규제함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을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 그리고 해당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교육 중점 등을 설정하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준거로 삼을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국가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5)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917호, 1997. 12. 13. 제정·공포, 일부 개정 2008. 3. 21) 제23조 제2항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6) 이 같은 교육과정 기준 문서의 명칭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Curriculum Guideline’, 혹은 ‘Curriculum Framework’, ‘Program Guide’, ‘Minimum Standards’ 등의 용어를 주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으로, 타이완에서는 ‘과정 표준(課程標準)’, 프랑스에서는 ‘programmes et instructions’, 영국은 ‘National Curriculum’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게 이어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며, 장학 자료, 교수·학습 자료 및 지역 교재 개발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등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으로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즉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지원 및 컨설팅을 할 수 있음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것을 결정했던 종래의 경우 교사의 역할은 국가가 결정한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역할은 교육과정을 받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수(teaching)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교육과정의 학교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사의 역할이 종래와 같이 교육과정 실행자 및 사용자, 교수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육과정의 결정자로 확대되었다. 교육과정의 최종 실천자인 교사가 바로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이자 개발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교육의 실천자이자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각 학교에서 일련의 교육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지침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 기준 및 지침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학교의 교원·학생 실태, 교육 실태, 교육 시설·설비, 자료 등의 교육 여건 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학교의 여건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실천 가능한 교육 설계도를 마련하고, 그러한 설계도에 담긴 특색을 구현할 수 있는 운영 계획 및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원조직, 학생의 실태, 시설 환경, 학생 및 학부모 요구, 지역 사회의 특성 및 요구 등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최적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스스로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창출하게 된다. 교사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각 학교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학교 자율성이 확대되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주체가 바로 교사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의 최종적 실행자인 동시에 학생들의 능력과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학교의 지역적

특수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따라서 향후 교사들은 단순히 교육과정 사용자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실천가임과 동시에 개발자 및 결정자로서의 전문적 역량 신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법령은 크게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그 외의 기타 법령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요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 각 조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에 제시 하였다.

### 가. 헌법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 나.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이 명시되어 있다.

### 다. 초·중등교육법

(1)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 :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 목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2) 교육과정 및 교과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학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는 고등학교의 기본 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3) 학기, 학급 편성, 수업 운영 등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는 학교의 학년도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그 밖의 학교의 학기·수업 일수·학급 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제45조(수업 일수), 제46조(학년 편성), 제47조(휴업일 등),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 제49조(수업 시각) 등으로 정하고 있다.

(4) 학년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수업 연한 :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하도록 하되,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46조에는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동법 제27조에 예외적으로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5) 교과용 도서의 사용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교과용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6)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초·중등교육법 32조에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7) 장학 지도, 학교 규칙, 학생 자치 활동 :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학 지도 실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에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7조에는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활동이 권장,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8) 평가 및 학교 생활 기록 :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25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학교생활기록의 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라. 기타 법령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과정심의회규정, 학교

보건법, 과학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 촉진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등을 들 수 있다.

### 3.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시기는 일반적으로 8·15 광복을 기점으로 하여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수 요목기, 그리고 제1차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과정기의 구분은 통상 1차, 2차 등의 차수에 따른 구분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전면 개정을 할 경우에만 새로운 차수를 붙여 왔다. 2003년 수시 개정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는 개정 연도를 밝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의 변천시기 별로 개요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 상세한 설명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 가.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1945~1946)

8·15 광복에 따라 각급 학교에 적용할 교과목과 수업 시간을 정하였으나 충분한 시간이 없어 일관된 철학적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채 일제 강점 말기의 교과목 및 시간 배당을 근간으로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교육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일본 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수신과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공민과를 신설하였으며, 일본어·일본 역사 대신에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의 국어 교육과 국사 교육을 강조하였다. 수업시수는 1주일에 32~36시간으로 1일 평균 5~6시간 정도이며 교과별로는 국어가 주당 5~7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 나. 교수요목기(1946~1954)

광복 직후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수요목이 없어 이를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고, 중등학교의 경우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수요목을 포함한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을 제정하였다. 교과 편제에서 특이한 점은 공민·역사·지리를 통합한 ‘사회생활과’가 등장한 점, 체육과 보건이 합해져서 체육·보건의 된 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된 점 등이다. 각 교과의 교수요목은 교수 요지, 교수 방침, 교수 사항, 교수의 주의로 구성되었다.

#### 다.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1948년 정부수립과 1949년 교육법 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새롭게 제정하자는 요구가 높아

저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교육과정이 제정되었다. 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1차 교육과정으로 불린다. 이 시기에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과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과 교육과정 강조의 시기라고 한다. 미국의 경험 중심 교육과정 사조의 영향으로 교과 외에 특별 활동이 처음으로 편성되어 전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광복 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 전쟁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반공·도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 라.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

제1차 교육과정 제정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그 동안의 문화의 발달,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사회 생활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교수요목기부터 형식적이고 초보적인 형태로 반영되던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충실히 반영되었다. 교과 활동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된 계획이라는 의미에서 교과과정이라고 하지 않고 교육과정이라고 하였다. 단위제를 도입하고<sup>7)</sup>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따라 인문, 자연 등의 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단위 배당 기준에는 각 과목별로 3년간 이수할 총 단위 수로 제시하고 학년별 이수 단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임을 밝히고 학교에 교육과정 재구성권이 있음을 명시하여 학교는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마.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고, 1969년 이래 국적 있는 교육이 제창되면서 민족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교과내의 과목이던 국민윤리와 국사가 교과로 독립되었으며, 국민윤리는 교과로 신설되면서 국어과 앞에 편제되었다. 또한, 1957년 소련의 유인 우주선 스푸트니크(Sputnik)호 발사로 인한 충격 이후 미국 교육계를 주도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팽창하는 지식의 양에 대응하여 기본적인 개념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학생 스스로가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이를 수용하여 각 교과에서는 각 교과가 기초하는 학문의 기본 개념을 중시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점차 심화·확대해 나가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를 취하며, 수업 방법에 있어서는 발견 학습과 탐구 학습을 강조하였다.

#### 바.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

7) 교육과정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단위제에 의거하되, 학교의 실정이 단위제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학년제, 또는 단위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제5공화국의 출범과 1980년의 7·30 교육 개혁 조치 등 정치·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을 위탁하여 교육과정의 전문화를 추구하였다. 자유 선택 과목이 신설되어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및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편제가 인문계,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 별로 각각 편제되었던 것을 통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단일화시켰다. 교육 내용의 분량을 조정하여 전체 이수 단위를 204~216 단위로 축소하고 1단위는 1시간씩 18주 이수하던 것을 17주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 사.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

교육과정 시행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서 정보 통신 기술 이용의 보편화,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 등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종전의 자유 선택을 교양 선택으로 바꾸고 최소 2단위를 배정하여 교양 선택 교과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

이수 단위의 표시를 급간제에서 기준 단위제로 변경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 계열, 예술 계열의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특별 활동에서 학급 활동을 신설하여 강조하였다.

#### 아.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

21세기를 대비한 세계적인 교육 개혁의 추세에 따라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운영 체제에서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교육과정에 관한 국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위임하여 역할 분담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각 학교마다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어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보통 교과는 공통 필수 과목만 교육부가 지정하고, 과정별 필수 과목은 시·도 교육청이, 과정별 선택 과목은 학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국제화에 대비하여 외국어에 관한 전문 교과를 신설하였다.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총 이수 단위를 204단위로 조정하고,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12과목 내외로 감축하였다.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특별 활동에 단체 활동을 신설하였다.

#### 자. 제7차 교육과정기(1997~2009)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의 하나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골격을 제시함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 7차 교육과정은

초·중·고의 교육과정을 단일 교육과정으로 통합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으로 설정하고 10개의 공통 필수 교과를 배우도록 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교과의 특징 또는 교과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단계의 특징에 따라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교과, 특별 활동 외에 제3의 영역으로 재량 활동을 신설하였다.

고교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이 기간 중에 배워야 할 모든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 136단위 중에서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각각 28단위 이상을 지정하고, 학생의 선택권도 최대 50%까지 보장하도록 하였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나누고, 일반 선택 과목은 5개의 과목군으로 나누어 각 과목군별로 반드시 1과목(교양 과목군은 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 균형적인 이수를 도모하였다. 또한 인문·사회, 자연 등의 과정은 국가수준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학교가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학기당 이수 과목은 10과목 내외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7년 교육법 폐지에 따라 삭제된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교육과정에 제시하였다.

#### 차.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등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 및 내용 체계를 개편하게 되었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였다. 교육과정이 개정된 연도를 밝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하였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별 단위 배당을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여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통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통합하여 선택 과목으로 일원화하고, 이수 단위를 6단위(교양 등 일부 과목은 4단위)로 통일하여 학교에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5개의 선택 과목군을 6개로 조정하여 예·체능 과목군을 체육 과목군과 예술 과목군으로 분리함으로써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4.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 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초·중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과정이 보다 포괄적이며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서 학교 교육 전반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를 전후로 하여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에 걸쳐 두 차례의 ‘국가 교육과정 포럼’을 추진하였다. 2007년 포럼에서는 교육과정 체제 구조 검토 및 개선, 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연계, 미래 사회와 학교 교육의 과제, 창의력 함양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주요 문제로 다루었다. 2008년 포럼에서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의 방향 및 편성·운영이 다루어졌으며,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시 연계 방안을 다루었고, 향후 교육과정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두 차례의 포럼은 교육과정 체제 개편으로서 국민공통교육기간 하향 조정, 교과목 축소, 공교육과 대학입시의 연계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 미래 학교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흥미롭고 깊이 있는 학습 기회’ 제공과 자율권 확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국정 과제로 수행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에서는 첫째, 교육과정 선진화와 교육과정 설계의 합리화 방안, 둘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적정화 방안,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방안, 넷째,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 방안, 다섯째,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두 차례의 국가 교육과정 포럼과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를 발판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미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상하면서 ‘글로벌 창의인<sup>8)</sup>’을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설정하였다.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의 주안점은 교육과정 적합성 제고, 교육과정의 적정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자율화, 교육과정의 책무성 강화이다. 이를 바탕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에서는 첫째, 과잉 규제 완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둘째,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의 합리적 범위 설정, 셋째, 학습자, 지식, 사회 측면에서 교육 내용의 적합성 확보, 넷째, 학년군간·학교급간·교과간 계열성과 통합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1)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걸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에 까지 하향 조정하고, 고등학교 3년간의 교육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확대하였다.

8)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글로벌 사회를 주도하는 창의 인재의 육성을 제안하고, 다음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 실용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을 미래형 교육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국가교육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전략, 2008.10.29 자료).

능력있는 사람	실용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역량을 충분히 발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무한히 성장	고정 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

2)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와 교과외 활동으로 이원화하여 체계적인 교과 학습을 비롯하여 보다 풍부하고 활성화된 교과외 활동(범교과적 학습, 봉사활동, 프로젝트 활동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3) 교과 영역의 편제에서는 교과(군) 접근을 통해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축소하고, 교과 간에 소통과 통합 지도의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학년군별 교과 교육과정 기준 제공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단위 학교에 교과 및 시간 운영의 융통성과 자율성 제공하고자 하였다.

4) 수업 시수 편성의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최소 수업 시수'를 적정하게 설정하되,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학년별·교과별 세분에 의한 구체성,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생 집단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수업 시수를 융통성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 계발을 증진하고자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3년으로 확대하고, 교과영역별·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6) 교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고, 학습 에너지의 효율성(efficiency)을 추구하며, 교수-학습 활동 여건 대비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여 교과 교육과정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교과별 최소 필수(minimum essential) 학습 내용을 정선한다. 이 과정에서 교과간·활동 영역간 과다 중복 또는 과도한 반복을 해소하고, 교과 내용과 '범교과학습' 주제의 중복을 해소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교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수준을 고려하여, 9학년말까지 갖추어야 할 공통 기본 소양과 10~12학년에서의 심화 소양을 위한 내용 수준과 범위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과(목) 개설에서의 이수 방식을 고려하고,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및 질 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구조(편제)에 대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기간을 하향 조정한다. 둘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구조 개편으로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교과외 활동으로 재편하여, 글로벌 창의인이 구비해야 할 핵심 역량을 획득할 수 있는 학습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조 개편으로 무학년제와 교과 교실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교과(군)별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재정비하며, 학교간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넷째, 교과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총론에서 교과별 기준 개발을 위한 공통 기준을 제시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은 해당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개발하되 협의 가능한 교과부터 먼저 수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자율성에 따른 책무성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결손 학생의 보정교육을 위해 3, 6, 9학년 초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평가를 실시한다.

##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된 방향은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감축하고,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단편

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의미한 학습과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제 구조 개선을 위해 ‘학년(군)’, ‘교과군’ 접근을 시도하였다. 학년군 접근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부여하며, 학년별·학기별·분기별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일 수 있다.<sup>9)</sup> 또한 교과(군) 접근은 교육과정의 수평적 연계성을 통하여 교과 간 소통과 교육 내용의 통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교과 편제와 수업 시수 배정에서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탈피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sup>10)</sup>

2) 학습자들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의 적정화를 추구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주당 10개 과목을, 중등학생들은 11~13개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학습 부담이 과중하며, 학습 효과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 학년 매 학기에 모든 교과목을 편성해 온데서 벗어나서, 학년 혹은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하로 편성하여 학습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특히 주당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목은 특정 학기, 학년에 집중 이수하도록 하는 ‘교과 집중 이수제’를 통하여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는 동시에 학습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였다.<sup>11)</sup>

3)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편제 구조와 교과목을 조정하였다. 현행 10개 학년에 걸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계열의 고등학교에서 10학년에 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점에서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거나 교육과정 자율화를 시도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첫째,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9년(중학교 3학년까지)으로 조정하여 국민기초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초·중학교 과정으로 명확히 하고, 전 학생의 기초 학력을 강화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핵심 역량을 강화하며, 교과 영역간 균형 있는 학습을 위하여 기초 영역(국어, 수학, 영어)과 탐구 영역(사회, 과학)을 강화하는 동시에 체육·예술 영역, 생활 및 교양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교육과정 이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나치게 세분화된 선택 과목을 통합하여 재설정하고, 학생의 적성

9) 외국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학년과 교과 시수 제시 방식 등에서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필요, 요구를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할 여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년군 운영 사례로서 프랑스는 1~2학년/3~5학년, 영국은 1~2학년/3~6학년/7~9학년/10~11학년, 싱가포르는 1~2학년/3~6학년, 미국 루지애나주는 1~3학년/4~6학년/7~8학년, 대만과 중국은 학년별 접근과 함께 교과(군)별 학습 단계를 다양한 학년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10) 교과군 접근은 제7차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도 적용되었다. 특히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학생들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①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③ 예·체능 과목군(체육, 음악, 미술), ④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⑤ 교양 과목군(한문, 교련, 교양)으로 나누고, 모든 학생은 ①~④ 과목군에서는 각각 1과목 이상을, 교양 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11) 집중이수제는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교과(목)를 집중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과 소질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4) 학습자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였다. 현재 재량활동은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자기주도학습, 범교과학습)으로 구성되면서 국가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였고,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세분됨으로써 일부 서로 중복되는 경우 원래 취지에 벗어난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개편하여 전인적 성장이 가능한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주당 최소 3시간, 고등학교에서는 주당 최소 4시간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5)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하였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지역, 학교, 학생 집단의 특성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단위 학교의 실정과 요구에 기반하여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학습 부진이 심한 교과목에 대해 단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탄력적 대응이 어려우며, 학생의 적성과 진로, 능력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 제시하고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 I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1. 추구하는 인간상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 비전으로 인간상을 제시해 왔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틀을 유지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등,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는 교육기본법(제2조)에 제시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 1. 추구하는 인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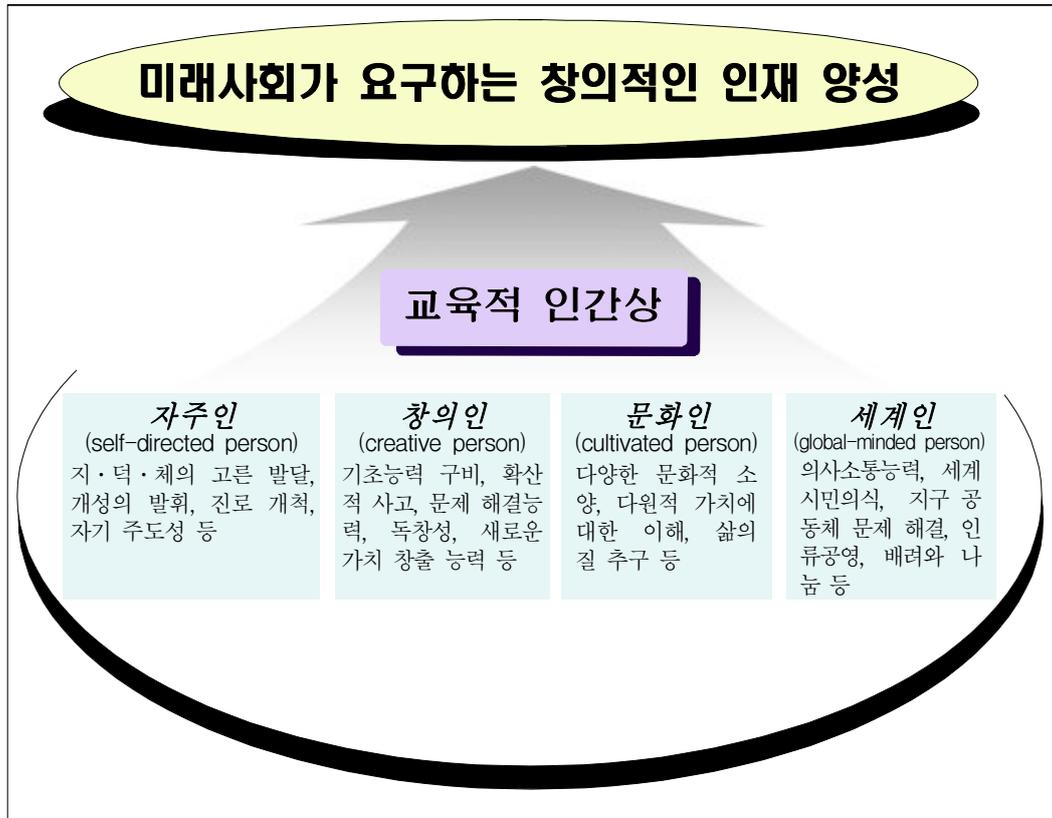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의 의미를 좀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각 진술문을 요약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2)</sup>.

12) 이 [그림]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가운데 핵심 사항으로 제시된 것을 요약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진로를 개척하고 국가와 지구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초·중등학교 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전인(全人)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전인적 성장이란 학생들의 몸과 마음 곧 智·德·體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와 행동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발달·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인적 성장이 평균적인 인간의 육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가 가진 개성을 찾고, 발달시키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 과정과 선택 과정을 두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변화 등이 바로 이러한 개성의 신장 등과 연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곧 학교 교육을 통한 전인적 성장과 개성의 발달을 토대로 학생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할 수 있

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위에서 언급했듯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글로벌 창의 인재’로 요약되는 미래사회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런데 다음의 창의성 구성요소에서 보듯이, 창의성은 단지 우연적인 독창적 사고만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되는 맥락에 알맞게 구현할 수 있는 정교성과 비판적 사고력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선 기초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발상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하였다.

창의적 인재의 특성이 무엇인가는 수많은 학자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의미를 토대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영국의 창의·문화교육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s on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 NACCCE)는 창의성을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산출물들을 생산해 내기 위한 상상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정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조건이 제공되고 관련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몇몇 활동 분야에서 창의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과정에서 창의성을 추구하는 것과 일관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철(2006)은 창의성이란 ‘인간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문화 특성이나 문명 이기를 창출해 내고자 자연 현상이나 삶의 세계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통찰하거나 융통성 있는 발상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가치 있는 지적, 과학적, 문화적 아이디어와 산출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Guilford(1967)에 의하면, 특히 ‘확산적 사고’는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확산적 사고의 네 가지 하위 요소-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가 갖는 주요 특성 때문이다.

최근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표Ⅱ-1>과 같이 확산적 사고와 함께 창의적 성향까지를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고 보고 있다.

<표 II-1>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성향

구분		
창의적 사고 능력	확산적 사고	유창성
		융통성
		상상력
		독창성
	논리적, 비판적 사고	정교성
		비판 및 평가
		논리, 추론
		분석
		종합
창의적 성향	개방성	
	과제 집착력/집중력	
	호기심	
	자발성	
	자기신뢰감	
	민감성	

출처: '이종연 외(2005). 창의적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Creative Thinker 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제시된 것을 재구성한 것임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미래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각자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향유하는 것이다. 우리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유하며, 다양한 문화의 세계를 경험하며, 우리문화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 밑바탕에 다양한 가치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포함한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되어 가면서 미래의 교육에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 교육은 물론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타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와 편견의 극복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개개인이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적 감수성을 길러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때에 국가 전체의 품격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는 무엇보다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 정보통신 활용능력과 같은 역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 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미 세계화되어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나라 안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동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각종 수출입품의 활용, 심지어 신종 플루와 같은 유행성 질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의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은 이러한 세계의 추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당당하게 누림과 동시에 지구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우리나라가 점차 발전하여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되면, 이러한 지구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려와 나눔의 자세는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위와 같이 설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제시한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단위를 제시한다.
-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기존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과 비교할 때, 큰 흐름은 유지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화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내용 구성은 앞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인간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교육과정 총론은 물론이고 이에 따라 개선하게 될 교과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편제를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기존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기간을 축소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 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관련 용어를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료하게 함과 아울러 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편제 구조의 개선]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1~10학년</li> <li>• 선택중심 교육과정: 11~12학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교육과정: 1~9학년</li> <li>• 선택 교육과정: 10~12학년</li> </ul>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과 교과군을 설정하여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초·중·고교 12년의 교육기간을 5개 학년군-1~2, 3~4, 5~6, 7~9, 10~12학년군-으로 설정하여 학년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화,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초등학교의 경우 7개 교과(군)인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설정하고, 중학교의 경우는 8개 교과(군)인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교과로 설정하여 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과 다양성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넷째,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교육과정의 특색을 살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 교과목을 제시하지 않고, 교과 영역 및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신설하였다.

여섯째, 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곧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동시에 강조되어야 할 학교 교육과정 평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과평가의 개선, 그리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실시 등을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에 제시함으로써 본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평가 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Ⅲ.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1. 고등학교 교육목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는 교과(또는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지침이 되며, 단위 학교에서 편성·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의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목표로서 기능을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은 교육기본법<sup>13)</sup>, 초·중등교육법<sup>14)</sup>,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

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고등학교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 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고등학교 교육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의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목표와의 관계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와의 관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자주인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	창의인

13)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대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45조에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 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적 사고력을 기른다.	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문화인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세계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교육적 인간상은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 등으로 요약 할 수 있을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적 인간상에 일관되게 고등학교 교육목표를 기존의 5개항으로 구성된 하위목표를 4개의 하위 목표로 조정(<표Ⅲ-2> 참조)하였다.

<표 Ⅲ-2>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목표의 비교

구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비교
총괄목표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하위목표	가.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의식을 가진다.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 하위 목표의 조정 · 평생 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 추가
	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 중복적인 의미의 표현 수정 ·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고력과 태도의 강조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 표현 수정 · 다양한 문화와 가치 수용 자질과 태도 추가
마.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표현 수정

<표Ⅲ-2>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목표의 주요 변화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4개의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의 총괄목표는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목표를 계승하였다. 하위 목표의 경우 기존의 5개 항의 목표를 4개항으로 조정하고, 교육 목표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표현을 수정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목표에서 ‘조화로운 인격 및 성숙한 자아의식’,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을 담고 있는 하위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 개척,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중시하는 목표로 통합 조정되었다. 이는 진로개발능력, 평생학습능력 등과 같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등이 인간상 설정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음을 고려한 것이다. ‘학문 및 생활에 필요한 사고력과 태도 능력’을 담고 있는 목표는 사고력 및 태도가 필요하다는 당위적인 목표에서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고력과 태도’라는 보다 능동적인 목표로 수정하였다. 또한 ‘전통과 문화 발전’을 담고 있는 하위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 수용 자질과 태도’를 추가하여 목표를 수정하였다. 세계화·국제화, 다문화 사회 등의 특징을 나타내는 미래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목표를 수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 가. 편제

-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 ①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 ②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

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교 2, 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된다. 보통 교과는 기초와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의 8개 교과(군)로 구성된다. 8개 교과(군)는 종래의 10개 교과 중 사회와 역사, 도덕 교과를 ‘사회’ 교과군으로, 음악과 미술 교과를 ‘예술’ 교과군으로, 기술·가정과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를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으로 하는 3개 교과군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체육의 5개 교과로 구성한 것을 가리킨다.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들 교과(군)의 균형적 이수를 도모하기 위해 ‘교과 영역’ 개념을 도입하였다. 교과 영역은 국어와 수학, 영어 교과를 포함하는 ‘기초’ 영역과 사회(역사/도덕 포함)와 과학 교과(군)를 포함하는 ‘탐구’ 영역, 체육과 예술 교과(군)로 구성된 ‘체육·예술’ 영역,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으로 구성된 ‘생활·교양’ 영역으로 구분된다.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10개의 계열에 따른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종래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주로 학생들의 교과 외 체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은 자율 활동과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성된다.

## 나. 단위 배당 기준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적용되는 단위 배당 기준은 <표Ⅲ-3>과 같다.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단위 배당 기준의 특징은 교과(군)와 교과 영역별 필수 이수 단위 및 학교자율과정을 제시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교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 하였다는 점이다.

<표Ⅲ-3> 보통 교과(군)의 단위 배당 기준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율과정
			교과(군)	교과 영역	
교 과 ( 군)	기초	국어	15 (10)	45 (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 (10)		
		영어	15 (10)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15 (10)	35 (20)	
		과학	15 (10)		
	체육·예술	체육	10 (5)	20 (10)	
		예술 (음악/미술)	10 (5)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16 (12)	16 (12)	
소 계			116(72)		64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필수이수단위의 교과(군) 및 교과 영역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 및 교과 영역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 ④ 필수이수단위의 ( ) 안의 숫자는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 예체능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인정받은 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⑤ 총 이수 단위 수는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수 단위를 합한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첫째, 1단위라고 함은 50분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한다. 종래의 경우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종래의 17주를 17회로 하여 단위 개념을 조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인 교과집중이수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특정 교과를 집

중이수하고자 할 경우, 학기별, 분기별 등을 고려하여 17주가 아니라 17회 수업을 전개하였을 경우 1단위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단위 수업 시간의 융통적인 운영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표Ⅲ-3>에서 교과(군)와 교과 영역에 제시된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 및 교과 영역의 최소 이수 단위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교과(군) 및 교과 영역의 단위수를 충족시키도록 편성·운영해야 한다. 단위 학교는 이 최소 이수 단위수를 충족시키고 학교의 필요에 따라 그 이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넷째, <표Ⅲ-3>에 제시된 ( ) 안의 숫자는 전문교육 및 예체능 과정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인정받은 학교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는 최소 필수 단위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전문교육 및 예체능 과정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교육 및 과정의 학습을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다섯째, 총 이수 단위는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단위수를 의미한다. 총 이수 단위는 교과(군)와 교과 영역의 필수 이수 단위와 학교자율과정 단위수, 창의적 체험활동 단위수를 합하여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 단위인 204단위를 충족시키고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기준 이상으로 단위수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표Ⅲ-4>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 제시 방식의 특징은 종래의 과목별 단위수를 제시하였던 것과는 달리 과목별 단위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종래의 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하여 제시한 점이다.

<표Ⅲ-4> 고등학교 보통 교과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Ⅰ, 화법과 작문Ⅱ, 독서와 문법Ⅰ, 독서와 문법Ⅱ, 문학Ⅰ, 문학Ⅱ
	수학	수학*, 수학의 활용,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영어*, 영어Ⅰ, 영어Ⅱ,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사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한국사*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과학	과학*, 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예술 (음악/미술)	음악*,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미술*,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기술·가정*,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독일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 스페인어 II, 중국어 I, 중국어 II, 일본어 I, 일본어 II, 러시아어 I, 러시아어 II, 아랍어 I, 아랍어 II 한문 I, 한문 II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안전과 건강,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 ①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 ② \*표 한 과목은 교과(군)별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목은 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이외에 전문교과의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 단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첫째, <표Ⅲ-4>에 제시된 보통 교과의 각 과목에 배당된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수업 시간 수를 고정하거나 획일화하지 않고 계절과 교과 및 활동의 특성,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교육과정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각 과목은 가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학교의 경우 각 과목별로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하고, 자율형 공·사립고는 자율편성 가능하다.

둘째, \*로 표시된 과목은 종래의 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의미한다. 이들 과목도 기본 단위 수는 5단위로 간주하되, 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생이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다만 ‘한국사’의 경우 국가관 및 민족의식 함양을 위해 학생들이 선택 이수하도록 지도한다.

셋째, 학교 및 학생의 요구에 따라 <표Ⅲ-4>에 제시된 보통 교과 외에 <표Ⅲ-5>와 같이 전문 교과에 제시된 과목을 개설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학교 재량권을 부여

하였다. 이것은 학교 교육과정이 학교와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표Ⅲ-5>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과	과 목				기준 학과
농생명 산업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농업 경영	식물 자원과
	생물 공학 기초	재배	작물 생산 기술	숲과 인간	동물 자원과
	산림 자원 기술	원예	생활 원예	생산 자재	농업 토목과
	원예 기술 I	원예 기술 II	동물 자원	사육 기술 I	식품 가공과
	사육 기술 II	누에와 비단	조경	조경 기술 I	농업 기계과
	조경 기술 II	농업과 물	농촌과 농지 개발	농업 토목 기술 I	조경과
	농업 토목 기술 II	농업 기계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기술 I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 기계 기술 II	식품 과학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I	환경·관광 농업과
	식품 가공 기술 II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관리 I	농산물 유통 관리 II	생물 공학과
	환경 보전	환경 관리 I	환경 관리 II	농업과 관광	
공업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전문 제도	기계과
	기계 일반	전기 일반	공업 영어	기계 설계	전자 기계과
	기계 공작법	원동기	유체 기기	공기 조화 설비	금속 재료과
	기계 기초 공작	공작 기계 I	공작 기계 II	산업 설비	전기과
	금형 제작	전자 기계 이론	전자 기계 회로	전자 기계 공작	전자과
	전자 기계 제어	로봇 기초	로봇 제작	재료 일반	통신과
	금속 제조	재료 가공	주조	금속 처리	컴퓨터 응용과
	전기 응용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전력 설비 I	토목과
	전력 설비 II	전기·전자 측정	자동화 설비	전자 기기	건축과
	전자·전산 응용	전자 회로	계측 제어	통신 일반	디자인과
	정보 통신	통신 시스템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화학 공업과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	측량	역학	환경 공업과
	토목 설계	토목 일반	토목 재료·시공	수리·토질	세라믹과
	지적 전산	지적 실무	건축 구조	건축 계획 일반	식품 공업과
	건축 목공	건축 시공 I	건축 시공 II	디자인 일반	섬유과
	색채 관리	조형	제품 디자인	공예	인쇄과
	시각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공업 화학	단위 조작·공정 제어	자동차과
	제조 화학	분석 화학	기능성 세라믹	세라믹 원리·공정	조선과
	구조 세라믹	세라믹 디자인	발효 공업	식품 제조 기계	항공과
	식품 분석	식품 공업 기술	섬유 재료	방직·방사	컴퓨터 게임과
	제포·봉제	염색·가공	인쇄 일반	인쇄·사진 재료	만화·애니메이션과
	평판 인쇄	특수 인쇄	사진·전자 제판	사진	영상 제작과
	자동차·건설 기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새시	자동차 전기 전자 제어	
	건설 기계 구조·정비	자동차 차체 수리	선박 이론	선박구조	
	선박 건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기체	항공기 기관	
	항공기 장비	항공기 전자 장치	환경 공업 일반	수질 관리	
	대기·소음 방지	폐기물 처리	컴퓨터 게임 기획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그래픽	만화·애니메이션 기초	애니메이션 제작	만화 창작	
	영화·방송 제작	촬영·조명	방송 시스템		
	상업 정보	상업 경제	컴퓨터 일반	회계 원리	기업과 경영
경영과 법		마케팅과 광고	경영 정보 시스템	기업 자원 관리	회계 정보과
커뮤니케이션 실무		원가 회계	기업 회계	전산 회계	무역 정보과
세무 회계		금융과 생활	국제화와 기업 경영	무역 영어	유통 경영과
전자무역과 국제 상무		유통 정보 관리	물류 관리	자료 처리	정보 처리과
프로그래밍 실무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 관리 실무	멀티미디어 일반	멀티미디어과
멀티미디어 기획		멀티미디어 실무	웹 프로그래밍	전자 상거래 일반	전자 상거래과
인터넷 쇼핑몰 관리		전자 상거래 실무	인터넷 마케팅	창업 일반	응용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교과	과목				기준학과
수산·해양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양식 생물 질병 해양 오염 열기관 잠수 기술 해사 영어 전자 통신 운용 해양 정보 관리	해사 일반 수산 경영 일반 수산 가공 냉동 일반 선박 보조 기계 항해 선화 운송 생선회 실무	해양 일반 해양 생산 기술 수산물 유통 냉동 기계 선박 전기·전자 선박 운용 전자 통신 공학 해양 레저·관광	수산·해양 정보처리 수산 양식 해양 환경 냉동 공조 실무 기계 설계·공작 해사 법규 전자 통신 기기 항만 물류 일반	해양 생산과 수산 양식과 자양 수산과 수산 식품과 해양 환경과 냉동 공조과 동력 기계과 항해과 전자 통신과 해양 레저과 항만 물류과 해양 정보과
가사·실업	인간 발달 동양 조리 패션 디자인 주거 영·유아 교육 원리 관광 일반 관광 영어 보건 간호 헤어 미용	식품과 영양 서양 조리 한국 의복 구성 실내 디자인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관광 경영 실무 관광 일본어 기초 간호 임상 실무 피부 관리	급식 관리 제과 제빵 서양 의복 구성 가구 디자인 영·유아 놀이 교육 관광 서비스 실무 관광 중국어 기초 복지 서비스 메이크업	한국 조리 의복 재료·관리 자수와 편물 디스플레이 영·유아 생활 지도 관광 외식·조리 간호의 기초 노인 생활 지원 공중 보건	조리과 의상과 실내 디자인과 유아교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 서비스과 미용과
과학	물리 실험 과학사 고급 수학 고급 지구 과학 현대 과학과 기술	화학 실험 전자 과학 고급 물리 과제 연구 I 원서 강독	생명 과학 실험 정보 과학 I 고급 화학 과제 연구 II 워크숍	지구 과학 실험 정보 과학 II 고급 생명 과학 환경 과학 과학 철학	
체육	스포츠 개론 체조 운동 투기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 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경영·행정	스포츠 경기 과학 수상 운동 빙상·설상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 스포츠 교육 전공 실기	체육과 진로 탐구 개인·대인 운동 표현·창작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 코칭론 전공 실습	육상 운동 단체 운동 체력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 건강 관리	스포츠경기과 체육지도과
예술	음악 이론 합창 교양 실기 미술 이론 기초 조소 미술 감상과 비평 무용의 이해 무용 전공 실기 문학의 이해 시 창작 연극의 이해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 제작 실습 사진의 이해 사진 편집	음악사·감상 합주 미술사 기초 디자인·공예 기초 한국 무용 무용 음악 문장론 소설 창작 무대 기술 영화의 이해 영화 감상과 비평 기초 촬영 디지털 사진 촬영	시창·청음 연주 소묘 미술 전공 실기 기초 발레 안무 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 희곡 창작 연기 영화 기술 중급 촬영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음악 전공 실기 컴퓨터와 음악 기초 회화 영상 매체와 미술 기초 현대 무용 무용 감상과 비평 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 매체와 문학 연극 제작 실습 영화 창작과 표현 암실 실기 사진 감상과 비평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문예창작과 연극영화과 사진과

교 과	과 목				기준 학과
외국어	심화 영어	영어 청해	영어 회화 I	영어 회화 II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영어 독해	영어 작문	영어권 문화 I	영어권 문화 II	
	영어 문법				
	기초 독일어	독일어 청해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 독해	독일어 작문	독일어권 문화 I	독일어권 문화 II	
	독일어 문법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청해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 회화 II	
	프랑스어 독해	프랑스어 작문	프랑스어권 문화 I	프랑스어권 문화 II	
	프랑스어 문법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청해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 회화 II	
	스페인어 독해	스페인어 작문	스페인어권 문화 I	스페인어권 문화 II	
	스페인어 문법				
	기초 중국어	중국어 청해	중국어 회화 I	중국어 회화 II	
	중국어 독해	중국어 작문	중국 문화 I	중국 문화 II	
	중국어 문법				
	기초 일본어	일본어 청해	일본어 회화 I	일본어 회화 II	
	일본어 독해	일본어 작문	일본 문화 I	일본 문화 II	
	일본어 문법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청해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회화 II		
러시아어 독해	러시아어 작문	러시아 문화 I	러시아 문화 II		
러시아어 문법					
기초 아랍어	아랍어 청해	아랍어 회화 I	아랍어 회화 II		
아랍어 독해	아랍어 작문	아랍 문화 I	아랍 문화 II		
아랍어 문법					
국제	영어 강독	독일어 강독	프랑스어 강독	스페인어 강독	
	중국어 강독	일본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 정치 I	국제 정치 II	국제 경제 I	국제 경제 II	
	세계 문제	비교 문화 I	비교 문화 II	정보 과학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현대 사회	한국어	과제 연구 I	과제 연구 II	
	예능 실습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표 III-5>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80단위 이상 이수한다.

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 농생명 산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 ㉡ 공업 계열 :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 ㉢ 상업 정보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 ㉠ 수산·해운 계열 :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 (수산 계열), 해사 일반 (해운 계열)
- ㉡ 가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 ㉢ 체육, 외국어, 국제계열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따르되, 과학, 예술 계열은 필수 이수과목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는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를 가리킨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하며, 기타계 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 이외에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sup>15)</sup>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표Ⅲ-5>에 제시된 전문 과목을 8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들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는 <표Ⅲ-5>의 하단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계열에 따른 필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다만, 체육, 외국어,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필수과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과학, 예술 계열은 필수 이수과목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 3.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 가. 공통 지침

##### (1) 공통 지침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필수 이수 단위로서,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년 동안 204단위를 이수하여야 한다. 204단위는 교과(군)의 180단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를 합한 것이며, 교과(군)의 180단위는 필수 이수 단위인 116단위와 학교 자율 과정 64단위를 합한 것이다.

15)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예·체능계 고등학교와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구분하고 있다.

1. 전문계 고등학교 : 농업, 공업, 상업, 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2. 예·체능계 고등학교 : 예술, 체육 등의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3. 특수 목적 고등학교 : 공업, 농업,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계열의 고등학교 중에서 특수 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 (나) 교과외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 (라)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각 교과(군)에 따른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를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각 선택 과목의 기준단위는 5단위이며, 1단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감 편성·운영할 수 있다. 또한 <표Ⅲ-4>의 보통 교과 편제표에 제시된 ‘\*’ 표의 과목은 기본단위수가 5단위이지만 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학기당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이수하는 과목 수가 8과목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학기를 분기별로 나누어 편성하더라도 한 학기의 이수과목 수는 8과목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부담을 주지 않고 기초적 교양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양과목(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안전과 건강,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 성장)은 한 학기에 이수하는 과목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중 전문계고, 예술계열, 체육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 조항은 유지하되, 실기·실습 중심 전문교과목의 경우 한 학기에 이수하는 과목 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대입 수능 과목과 관련된 교과목이 전문교과인 외국어계열, 과학계열, 국제계열 고등학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마이스터고(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별도의 훈령에 따른다.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 교육과정 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위 학교의 실정 및 학생 요구, 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성을 고려하여 편성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I 과 II로 구분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I 을 먼저 이수하고 II 를 이수하도록 편성한다.

- (마)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야 한다.
-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 (아)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선택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하였다. 학교에서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여건과 교사 수급 등을 고려하되 학생들에게 선택과목 개설 요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개설을 희망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둘째, 단위 학교는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 교과에 걸쳐 학교 필요에 따라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 단위 학교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담당 교사 확보 계획, 교재 개발 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과목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 및 특성화된 학교 교육 추구, 학생의 다양한 요구 등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서 개설 가능한 과목을 파악할 때에는 현재의 교사, 시설 여건으로 개설 가능한 과목뿐만 아니라 외부의 지원을 받아 개설 가능한 과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 편제에 제시된 선택 과목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제한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인근 학교에서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도 있다. 학교는 특정 과목 이수에 대한 학생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급, 학교 시설 여건 등의 학교 사정상 개설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

러한 경우 학교는 그 과목을 개설한 인근 학교에서의 이수가 가능하도록 학교 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타 학교의 과목 이수도 인정해 줄 수 있다.

다섯째, 학교는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대학교 위탁 교육이나 원격교육, 주말 및 방학 중 통합 교육(주말 학교, 계절 학교 등)에 참여하여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학교장은 일정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다섯째, 학교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 및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 과목 인정은 시·도 교육청이 마련한 지침에 따른다.

(재)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외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 편제에 제시하는 교과외의 총 이수 단위는 최소 필수 단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외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수 단위 증배 운영에 따른 예산과 시설, 교원 수급 등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가)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과목을 편성하여 안내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과목 이수가 편중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3년 간의 교육과정 편성 계획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선택 과목 이수가 학생의 진로에 따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영역 및 교과(군)에 따른 필수 이수 과목 및 학교자율과정에 따른 이수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등이 학년별 및 학기별로 3년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안내하여야 한다.

## 나. 일반계 고등학교

**(2) 일반계 고등학교**

-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116단위 이상으로 한다.
- (나) 학생의 진로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 수로 편성할 수 있으나, 교과 영역별로 제시된 단위 수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116단위이며, 이와 함께 학교자율과정 64단위를 편성하여 교과(군)의 단위가 180단위가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학교는 교과(군)와 교과 영역의 필수 이수 단위인 116단위와 학교자율과정 단위수인 64단위를 충족시키고 그 이상의 단위 증배는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필수 이수 단위인 116단위의 경우 교과(군)와 교과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는 단위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예컨대 기초 영역의 경우 국어 15단위, 수학 15단위, 영어 15단위를 편성하여 교과 영역 45단위가 되어야 한다. 탐구 영역의 경우 사회(역사/도덕 포함) 15단위, 과학 15단위를 편성하되 교과 영역 단위의 합은 35단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나 과학 중 한 영역에서 5단위를 더 편성하여 35단위가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체육·예술 영역 중 체육 10단위, 예술(음악/미술) 10단위를 편성하여 20단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생활·교양 영역은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중 과목을 선택하여 16단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거나 자율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중 예술·체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거나 자율학교로 지정된 경우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중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진로에 따른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율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특성 및 이념을 충분히 살려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소수 과정이나 자율학교의 경우 교과(군)와 교과 영역에 제시된 ( ) 안의 최소 필수 이수 단위수로 편성·운영하여 72단위를 이수할 수도 있다. 예컨대 기초 영역에서 국어 10단위, 수학 10단위, 영어 10단위로 하여 교과 영역 필수 이수 단위를 30단위로 편성하고, 탐구 영역에서 사회 10단위, 과학 10단위로 편성하여 20단위를, 체육·예술 영역은 체육 5단위, 예술 5단위로 하여 10단위를, 생활·교양 영역은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의 과목 중 12단위를 편성하여 합계 72단위가 되도록 편성·운영하는 것이다.

(태)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구체적인 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단위 학교로 하여금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과(군)의 필수 이수 단위를 학생의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과목의 심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진로 집중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종래와 같이 단순히 인문사회과정과 자연·이공과정만 편중 설치 운영하는 방식을 초월하여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과목을 집중 이수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의 설치 운영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즉 학생의 요구 및 교사의 조직, 지역의 특색 등을 반영하여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과목을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과정, 자연·이공 과정 외에 예술 과정, 체육 과정, 직업 과정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좀 더 세분화하여 다양한 진로 집중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예컨대, 문학 집중 과정, 경제 집중 과정, 수학 집중 과정, 물리·지구과학 집중 과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집중 이수 교과로 과정의 이름을 정하여 사회 강화 과정, 수학·과학 과정, 영어·제2외국어 강화 과정 등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학기(학년)별 선택 과목을 제시하여 설계할 수 있다. 경제 집중 과정이라면 보통 교과의 경제와 전문교과의 국제 경제 I, 국제 경제 II 및 시사 경제, 경제 토론 등 다양한 경제 관련 신설 과목을 개설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부터 학생의 진로탐색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2학년과 3학년에서 학교 나름의 특색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진로 집중 과정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의 필요 및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교사 수급 및 시설 등 학교의 제한적 상황만을 고려하여 과정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진로 집중 과정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충실한 진로 계발을 도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진로를 돕기 위해 어떤 과목들을 계열성 있게 이수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연구와 학생에 대한 충분한 상담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가 과정을 개

설한 경우에도 선택 과목 이수 과정에서 학생의 진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㉞)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자율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교과 중점 학교는 해당 교과 교육을 특성화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중점 학교의 경우 해당 교과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과목을 집중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자율과정'의 단위수 64단위 중 50%를 관련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는 학교자율과정에서 해당 과목들을 집중 편성·운영하여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㉟)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소수 과정, 예컨대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목 및 학교 현장의 교사 수급, 시설 여건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체육이나 음악, 미술 등 교과 중점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여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대학교 위탁 교육이나 원격교육, 주말 및 방학 중 통합 교육(주말 학교, 계절 학교 등)에 참여하는 등 공공성 있는 지역 사회 학습장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학교는 이러한 방안을 활용하여 소수 과정의 진로 안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㊱)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학습자의 적성·진로를 고려하여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직업 과정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아)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래 제2외국어의 경우 1개 외국어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 선택보다 학교 선택이 우선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단위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제2외국어 과목을 복수로 개설하여 학생의 진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 (3)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편성 하며, 전문 교과(군)의 과목은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이수 단위를 72단위 이상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군)의 과목은 80단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 이수 72단위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과(군)와 교과 영역의 필수 이수 단위 중 ( ) 안의 단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기초 영역에서 교과(군)인 국어 10단위, 수학 10단위, 영어 10단위로 하여 교과 영역 필수 이수 단위인 30단위로 편성한다. 탐구 영역에서 교과(군) 사회 10단위, 과학 10단위로 편성하여 교과 영역 20단위가 되도록 한다. 체육·예술 영역은 체육 5단위, 예술 5단위로 하여 교과 영역이 10단위가 되도록 편성한다. 생활·교양 영역은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의 과목 중 12단위로 편성한다. 이렇게 하여 합계 72단위가 되도록 편성·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는 학교 설립 취지 및 이념에 맞게 전문교육을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 교과(군) 과목을 80단위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나) 전문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이수 단위는 5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다.

전문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이수 단위에 관하여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이수 단위는 5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3단위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증감 편성할 수 있다.

(다) 전문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보통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이수 단위로 간주할 수 있다.

(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과목과 전문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과목은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선택 과목 가운데 전문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기초가 되는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해당 보통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선택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컨대 과학 계열 고등학교에서 보통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과목으로 제시된 과학 교과목 대신 과학에 관한 전문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기초가 되는 선택 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보통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과학 선택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보통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선택과목과 전문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될 경우 상호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미술의 창작’ 대신에 공업에 관한 과목인 ‘조형’을, 체육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와 일반 교과에 대한 선택 과목인 ‘스포츠 과학’ 대신 체육에 관한 전문 교과와 일반 교과인 ‘스포츠 개론’으로 교체 편성할 수 있다.

(마)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의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 할 수 있다.

- ① 전문 교과와 일반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 ③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상기의 지침은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중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

운, 가사·실업 계열의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것이다. 첫째, 이들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계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학과별 필수 과정 지정은 학교장이 할 수 있다. 학과별 필수 과목을 지정할 경우 학과 설립 목적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지정하되 과도하게 많은 과목을 지정하면 학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과목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의 발달과 직업의 세분화에 따라 다양한 직업 준비 교육이 요구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과별 필수 과목은 가장 기초가 되는 여러 직종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며, 학생, 교원, 교육 행정가, 기업인, 졸업생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이들 계열의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 실습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 계열의 고등학교에서 현장 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내 활동(창업동아리, 교내실습, 학교기업 등), 현장 체험 학습,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관련 법령 및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실험·실습 및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바)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전공 관련 교과군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의 과목에서 80단위 이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교과군에서 50% 이상 편성한다.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과목 편성은 전공 관련 교과군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의 과목으로 할 수 있으며 단위수는 80단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국제 계열 교과의 과목과 외국어 계열 교과의 과목에서 선택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으로 외국어 계열 교과의 과목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제 계열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어에 관한 과목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전공 관련 교과군에서 과목을 50% 이상 편성하여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전문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사)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시 외국어를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으로 편성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하여 2개 외국어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아)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의 경우 개방형 통합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의 발달, 학문적 추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을 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 준용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학교가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 가. 편성·운영

(1)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근거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바탕으로 편성·운영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와 중점, 학년·교과·영역별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및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핵심 요소로 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요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융통성 있는 운영 방식도 중시되어야 할 것

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및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방향을 승계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알맞게 학교별로 마련한 ‘당해 학교에서 구체적 실행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②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학생에게 책임지고 실현하여야 할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교육 프로그램이고, 특색 있는 교육 설계도이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 계획이다.

③ 학교 교육과정은 해당 학교의 교육 목표와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 학교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 내용, 방법과 특색 있는 운영 방안이 나타나 있어, 각 학교가 다양한 교육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편성되어 있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함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첫째,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위주 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 실천가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편성·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의 실태, 학교의 실정,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조정, 보완, 가공하여 실천하기에 적합한 실행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학습자를 철저하게 맞추어 가는 교과서 중심 체제와는 달리 학습자를 더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즉, 학습자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의 경영 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는 교육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학교와 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이 교과서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와 자료로 활용하는 수업의 주체가 되려면 학교 교육과정이 교육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교원의 연구와 노력으로 편성한 산출물이 바로 학교 교육과정인 것이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서가 학교 교육을 지배하게 되면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은 획일화되고 만다. 학습자의 개성, 능력, 소질, 흥미,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학부모의 요구와 교사의 창의성 및 자율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된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을 어떤 체제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학교에 자율권과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국가 기준이나 시·도 교육청 지침 외에 또 다른 규제를 가하게 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획일화를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특색이 없이 경직화,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인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하여 특색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형태는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에는 학교장의 교육 철학과 학교 교육 목표, 당해연도 교육의 중점이 드러나야 하며,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교과·영역별 교육 중점과 연간 지도, 평가, 운영 방식이나 실천 방안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편성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에서 결정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구성 체제를 예시하면 다음 <표 III-6>, <표 III-7>과 같다.

<표 III-6 > 학교 교육과정 구성 체제 (예시1)

<p>I. 학교 교육과정의 기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도) 교육의 방향</li> <li>2. 학교 경영의 기본 계획</li> <li>3. 기초 조사 및 실태 분석</li> <li>4.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결과 분석</li> </ol> <p>II. 학교 교육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교육 목표</li> <li>2. 교육 목표 구현 중점</li> <li>3. 구현 중점별 세부 추진 계획</li> <li>4. 특색 사업</li> </ol> <p>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 방침</li> <li>2.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입학연도별)</li> <li>3. 연간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 확보 계획</li> <li>4. 주5일 수업제 운영 계획</li> </ol> <p>IV.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과</li> <li>2. 창의적 체험 활동</li> </ol>	<p>V.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직원 연수 계획</li> <li>2. 자율 장학 추진 계획</li> <li>3. 독서 지도 계획</li> <li>4. 생활 지도 계획</li> <li>5.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li> <li>6.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 계획</li> <li>7. 학과별 운영 계획(전문계고)</li> <li>8. 각종 위원회 운영 계획</li> <li>9. 예산 운영 계획</li> <li>10. 기타</li> </ol> <p>VI.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 평가</li> <li>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li> </ol> <p>부록</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1. 학교 연혁</td> <td style="width: 50%;">2. 학사 일정</td> </tr> <tr> <td>3. 교직원 일람</td> <td>4. 교사별 교과 담당</td> </tr> </table> <p>시간</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5. 업무 분장표</td> <td style="width: 50%;">6. 교사 배치도</td> </tr> <tr> <td>7. 각종 규정</td> <td>8. 기타</td> </tr> </table>	1. 학교 연혁	2. 학사 일정	3. 교직원 일람	4. 교사별 교과 담당	5. 업무 분장표	6. 교사 배치도	7. 각종 규정	8. 기타
1. 학교 연혁	2. 학사 일정								
3. 교직원 일람	4. 교사별 교과 담당								
5. 업무 분장표	6. 교사 배치도								
7. 각종 규정	8. 기타								

<표 III-7> 학교 교육과정 구성 체제(예시2)

<p>I. 학교 교육과정의 기저</p> <p>1. 학교 교육과정의 방향</p> <p>가. 성격</p> <p>나. 추구하는 인간상</p> <p>다.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p> <p>라. (시·도) 교육의 방향</p> <p>마. 학교 경영의 기본 계획</p> <p>바. 본교 교육의 방향</p> <p>2. 학교 실태 분석</p> <p>가. 학교 현황</p> <p>나.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결과 분석 및 시사점</p> <p>다. 금학년도 기초자료 분석</p> <p>라. 본교의 특성 및 시사점</p> <p>마. 학교 발전 계획</p> <p>II. 학교 교육 목표 설정</p> <p>1. 본교 교육 목표</p> <p>2. 교육 목표 구현 계획</p> <p>3. 특색 교육</p> <p>4. 과제별 추진 계획</p> <p>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방침</p> <p>1.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조직</p> <p>2. 편제 및 시간 배당</p> <p>3.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방침</p> <p>4.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침</p>	<p>IV.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p> <p>1. 교과 교육과정</p> <p>2.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p> <p>V.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p> <p>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평가</p> <p>2. 학교 경영 평가</p> <p>VI.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활동</p> <p>1. 학교 경영 조직</p> <p>2. 각종 위원회(협의) 조직 운영</p> <p>3. 수행 평가 실시 계획</p> <p>4. 학습 및 기초 학력 부진 학생 지도 대책</p> <p>5.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p> <p>6. 축제 계획</p> <p>7. 특별실 운영 계획</p> <p>8. 재정 지원 계획</p> <p>&lt;부 록&gt;</p> <p>1. ○○○○학년도 학사 일정</p> <p>2. 교무 활동 부서별 운영 계획</p> <p>3. 중장기 발전 계획</p> <p>4. 각종 설문지</p>
--	--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①준비 단계, ②편성 단계, ③운영 단계, ④평가 단계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절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준비 단계	1.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운영 - 관련 규정 검토, 역할 구체화, 조직하기, 운영하기
	↓
② 편성 단계	2. 기초 조사 - 관련 규정 검토 분석 - 계획 수립, 조사 실시, 결과 분석, 시사점 반영
	↓
③ 편성 단계	3. 편성 계획 ○ 구성 체제 결정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도</li> <li>-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li> <li>○ 편성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원칙 설정</li> <li>- 편성시 결정 사항</li> <li>- 편성 절차</li> </ul> </li> </ul>
	↓
	4. 기본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 경영 의지</li> <li>- 학교 교육 목표</li> <li>- 교육 중점 과제</li> <li>- 노력 중점(학교 특성화 사업)</li> <li>- 중장기 발전 계획</li> </ul>
	↓
	5. 학교 교육과정 시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제와 시간 배당</li> <li>- 교과(군) 활동 편성 계획</li> <li>-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계획</li> <li>- 교육과정 지원 계획</li> </ul>
	↓
	6. 시안 검토, 심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안 검토</li> <li>- 시안 심의 및 확정</li> </ul>
	↓
③ 운영 단계	7. 교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 시수 증배 운영</li> <li>- 교과 시수 감축 운영</li> <li>- 교과(군) 집중 이수제</li> <li>- 블록타임제(Block Time) 운영</li> <li>- 수준별 수업</li> <li>- 창의·인성 교육 강화 운영</li> </ul>
	↓
	8.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 및 목표, 유의점 파악</li> <li>- 내용 및 운영 방법</li> <li>-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사례 파악 활용</li> </ul>
	↓
	9. 범교과 학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교과 학습 운영 방법</li> <li>- 범교과 학습 운영의 실제</li> </ul>
	↓

	10. 운영 관련 기타 사항 - 특별 보충 수업 - 귀국자,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 녹색성장 교육 - 인적·물적 자원 활용 - 돌봄 교실 운영 - 교육과정 변경 운영
↓	
④ 평가 단계	11.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개선 ○ 학업성취도 평가 - 교과평가,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 학교 교육과정 평가 - 학교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 - 학교 교육과정 기본 계획 - 교과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및 운영 - 학교 교육과정 지원 체제 ○ 학년(군) 학급 교육과정 평가 ○ 교육과정 지원 평가 ○ 개선점 추출, 다음해의 편성·운영에 반영

[그림 III-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일반적인 절차

(2)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초 조사와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시사점을 추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편성과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이나 방향을 결정한다. 학교 교육과정에는 학교장의 교육철학에 따라 경영 방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 교육 목표와 당해 학년도에 강조해야 할 노력 중점이나 교육 중점을 교과별, 학년별로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작업 시에 판단하거나 선택, 결정할 사항 중 비교적 공통적,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교육 목표의 결정

- 교육 가치성, 실천 가능성, 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 교과 목표, 학년 목표, 영역별 활동 목표 등의 하위 목표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상위 목표를 설정한다.

② 교과별 학년 목표의 결정

- 국가 수준 기준에는 교과별 학년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학교에서는 당해 학교의 학습자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학년 목표를 결정한다.
- 학년 목표의 수준, 목표 수, 설정 영역 등은 그 학교의 학생에 적합하게 결정해야 한다.
-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해설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단위별 목표를 근거로 구체화, 상세화 한다.

③ 교과별, 학년별 교육 내용의 결정

- 국가 수준에 제시된 교과별, 영역별, 학년별 교육 내용을 상세화하고 구체화한다.
- 교육 내용을 상세화, 구체화, 중점화, 특성화, 보완화, 통합화하는 작업을 한다.

(3)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주어짐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모든 교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원은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극 참여하여 최선의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의 준비단계부터, 편성 작업, 심의·검토, 수정·보완, 확정 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학교는 교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조직 속에서 일정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각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 전반을 포함하는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와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동 학년 협의회, 교과별 협의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학년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살려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고 자체 연수의 강사가 되기도 하며, 수업 공개 등 교육 활동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힘써야 한다.

(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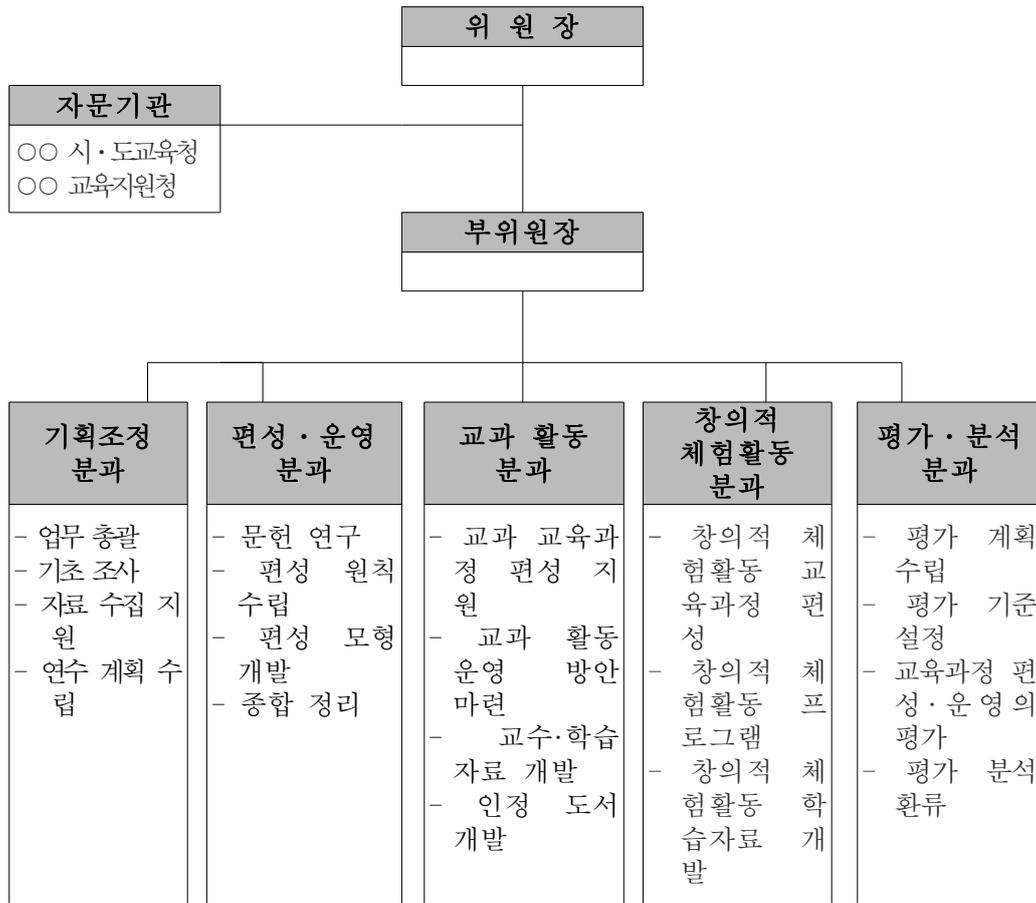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조직으로서 학교 나름의 특색 있고 실천 가능한 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교직원 회의, 동학년 회의, 교과 협의회 등 기존의 각종 학교 조직이나 협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능동적,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꾀해 볼 수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과 연구를 위해서 ‘교육과정 위원회’에 기획 조정 분과, 편성·운영 분과, 교재 개발 분과 등을 두고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 양성 대학, 지역 유관 단체, 교육 전문 기관의 교수나 자문 위원과의 연계 추진도 필요하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진·심의진·협의진을 구성하고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지구별 교육과정위원회 및 장학위원회, 교과 연구회를 통하여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기구를 조직, 운영할 수도 있으며,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겸임(순회) 교사 임용·운영과 개별화 교육 등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고 실천 가능한 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병설 중·고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 간의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통합 조직·운영으로 상치 과목의 해소는 물론, 시설 공유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분과별 역할 분담을 근간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는 방식을 예시한 것이다.



[그림 III- 2]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조직(예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일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이고도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당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 작성 및 확정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활동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연수
-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운영 계획안의 문제점 검토 및 확정
- 효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모색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

(5)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당해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포함된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할 경우에 학생 실태에 비추어 재구성·조정·통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지도 순서·시간을 조정하거나 계절·행사와 연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장 좋은 지도 방법이나 적절한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등 교육과정의 적절성과 적합성을 분석·검토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시설·설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다음은 학교의 여건을 반영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① 교육 내용별 소재의 결정

- 교육 내용별로 지역과 학교에 적절한 수업 소재를 선택·결정한다.
- 소재 선정 시에는 학습자와 친근한 것, 간단한 것, 최근의 것, 보편적인 것, 구체적인 것부터 우선한다.

② 교육 방법의 결정

-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 해설, 설명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팀티칭, 협력 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법 등을 도입한다.
- 학생의 직접 체험 활동, 소그룹별 공동 과제 해결 활동, 개별 학습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선택한다.
-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의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③ 학습 시간의 결정

- 교육 내용의 수준과 분량, 특성, 학습 형태와 학습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습 시간을 배당한다.
- 고정적인 학습 시간 배당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배당한다.
-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차에 따른 소집단별 학습 시간을 고려한다.

④ 학습 시기의 결정

-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순서를 고려하되 학습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를 결정한다.

- 특히, 계절, 기후, 세시 풍속, 국가 및 지역의 행사, 환경, 자연계의 생태, 각종 역사적, 사회적 사건 등과 관련 있는 교육 내용은 최적의 시기에 학습 과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⑤ 학습 형태·학습 조직의 결정

- 학습 과제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 형태와 학습 조직을 선택한다.
- 학생 중심의 다양한 학습이 조화 있게 이루어지도록 배합, 조직한다.
-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형태와 학습 조직을 결정한다.

⑥ 학습 매체의 결정

- 교수·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고려하고, 견학, 방문, 실습과 자원 인사 초빙도 학습 매체 선정 시 계획해야 한다.
- 교과용 도서 외에 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하도록 한다.

⑦ 평가 계획의 결정

- 평가 도구와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을 결정한다.
- 선택형, 서술형 등 학생의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선정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6)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공유,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수 자료의 공동 제작 등을 위하여 동학년 협의회, 교과별 협의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활발한 연구와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양 선택 과목 중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특히, 평준화 지역의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관계없이 학교를 배정하는 점에서 견학 이념 또는 설립 취지가 분명한 사립 학교의 경우에도 특정 종교 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비평준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학생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종교 이외의 과목

을 복수로 제시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각 교과목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교과목의 교육 내용은 각 교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정선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교과목의 특성에 알맞게 선정, 배열되어 있는 핵심적인 개념과 아이디어, 지식, 원리, 기능, 가치 규범, 주제, 제재, 소재를 보다 더 상세화한 수준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능력이나 특징의 폭과 깊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교과 목표와 내용을 밀접하게 관련시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계획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9)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각 교과목의 학습 목표는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성취 수준의 차이가 나는 과목에서는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학습 부진 학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양한 학습 기회와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교사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각 교과목의 교수·학습에서 학습 결손의 누적과 학습 의욕 저하를 예방함과 동시에,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결과만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탐구하는 과정, 탐구하는 방법, 문제 해결 과정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자율적인 학습’,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

- (10)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 (11)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수준차가 큰 수학, 영어 교과뿐 아니라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서도 수준별 수업을 하도록 한 2006년에 개정된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2006.8.29.))을 적용하고 있다. 단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이 중학교 3학년까지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은 기초, 보통, 심화 과목의 선택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위계가 있는 과목에서 I 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하는 것도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공통 교육과정의 수준별 수업을 하는 교과에 대하여, 고등학교에서도 학급 내 수준차가 큰 현실에서,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학급 내 혹은 학급간 수준별 수업 운영을 권장한다.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구안하여야 한다.

- ① 수준별 학급은 학교 실정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
- ② 학습자의 능력, 흥미, 인지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동기 유발 방법과 학습 활동을 구안한다.
- ③ 개인차에 따라 수준에 맞는 학습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기본 교과서나 보조 교재를 다양한 수준으로 개발한다.
- ④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는 성취 수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언어 기능, 어휘, 언어 형식 등을 학생 수준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이에 맞추어 교수 방법을 다양화한다.
- ⑤ 개인별, 소집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⑥ 심화 학습에서는 확장된 교재를 이용하여 개별 학습, 자기 주도 학습, 협동 학습을 권장하고, 보충 학습에서는 학습 결손 요인을 파악하여 기본 과정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 방법을 구안한다.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른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 편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준별 분단 편성 : 학급 내에서 능력, 흥미, 학습 속도를 고려한 수준별 분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② 수준별 학급 편성

◦ 기본 과정은 현재 학급에서, 심화·보충 시간에는 수준별 학급으로 이동하여 수업하는 방법

◦ 교과별 수준별 학급에서 기본 내용부터 심화·보충 학습까지 계속 수업하는 방법

③ 다양한 집단 혼용

◦ 학급 내에서 협력 학습 집단과 수준별 집단을 동시에 운영

◦ 중·상위 학생은 협력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자기 주도적인 심화 학습을 하도록 하며, 수준별 동질 집단인 하위 집단은 교사의 지도를 통하여 보충 학습을 운영하는 방안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의 수준과 학습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소집단을 조직할 수 있지만, 수준별 이동 수업에서는 수준별 집단 편성 방식에 따라서 수준별 수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12)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각 교과에서의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개념 및 원리는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탐구 활동 속에서 성취되도록 교수·학습이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13)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학생이 참여하는 모든 교과 영역에서 교사는 개별학습과 더불어 공동 학습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조별 활동 등의 소집단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공동 과제를 통한 소집단 활동은 학생 주도적 수업이다. 학생 주도적인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집단 사고가 이루어지며, 집단 사고 속에서 과제를 해결하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이 계발된다.

한편 학생 주도 수업은 교사 주도의 수업보다 철저한 사전 연구와 치밀한 계획이 뒷받침되고 교사 상호 간의 긴밀한 정보 교환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14)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학습자의 선행 학습의 정도, 현재 지식 수준, 배경 환경, 학습 선호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의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 학습의 개별화이다. 개별화 학습은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맞춰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교육과정에 설정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과 학생 실태에 따라 다양한 학습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강의식 수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발표·토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실험·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 직접적 체험 활동 중심의 학습과 함께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5)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의 분권화, 자율화, 지역화 및 내용의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영역이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단위 학교나 지역 사회의 실정, 교원·학생·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시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3년 간 24단위를 이수하도록 하였다.

학교의 교사와 시설만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실생활 중심, 체험 중심의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 사회의 시설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활용하고,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역 사회의 유관 기관으로는 대학, 관공서, 사회복지 단체, 문화원, 지역 자치 정부 기관, 박물관, 인근 학교, 지역 사회 학교, 기업체 등이 있다. 이들 기관들은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시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멘토가 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 이들 기관들도 지역의 학생 교육을 위한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기관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연계 될 것이다.

(16)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학교는 학교가 지니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진로 교육에서 지역사회의 기업체와 연계한다든가, 봉사활동을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교과에서 지역사회에 위치한 대학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는 등의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 기관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인사, 시설, 기관, 자료 등의 자원 실태를 파악하여 이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17)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선택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과 활동 내용은 권고적인 성격의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육목적 및 목표에 적합하게 더 창의적이고 풍성한 교육과정을 선택과 집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성에 바탕을 둔 집단 활동으로, 배당된 시간(단위) 수는 영역별로 학생의 요구와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배정하되,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 급별, 학년별로 활동 영역 및 내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 간에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배당된 시간은 기준 시간(단위)으로 학교의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간 운영은 통합, 집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그 시간 운영의 방법은 활동의 조직 단위, 장소, 시설 등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과 같이 할 수 있다. 자율활동의 국토 순례 활동, 봉사활동, 진로 체험 활동 등은 활동의 특성에 따라 특정 기간을 이용하여 집중 운영할 수도 있다.

(18)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전문가로서 교사는 학교 특성과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학생이 성취하여야 할 교육 목표에 따라 교과 내용의 순서, 비중 및 방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충실히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은 시간, 장소, 조직, 주제 등에서 각 학교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19)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 및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부자유, 학습 지체 및 발달 지체 등 심신 장애 학생들은 해당 특수 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신 장애 학생의 교육은 개별화되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등 개인에게 알맞은 학습 자료를 사용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매 학기마다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특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20)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학교는 지구별로 학습부진아, 심신 장애 특수 교육 대상자,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배려하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즉, 단위 학교가 수준별 수업의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거나, 학습 부진아,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특수한 과정을 설치, 운영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이를 지구별 단위에서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특수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 보조기기의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며,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귀국 학생 교육은 장기간의 해외 체류로 인하여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내 학교에 적응이 곤란한 귀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기간 집중적인 한국어 지도와 학습 결손 또는 부진 과목의 보충 지도 및 생활 지도를 실시하여 귀국 후 나타날 수 있는 학습 장애와 심리적 갈등의 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생활 및 학습 적응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국내 학교로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귀국 학생 교육을 통하여 귀국 학생들이 해외에서 터득한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신장시키며, 외국에서 얻은 국제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신장시키도록 도와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1)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활동 및 교과 외 활동 전반에서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한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없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특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2)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

범교과 학습 활동은 국가·사회적인 요구나 필요에 의하여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을 비롯하여 위 지침 (22)항에 제시된 범교과적인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범교과 학습 주제는 학교 실정에 따라 학년별로 설정할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 집중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요 교육 시책, 자기 발전 계획상의 사업, 국가 시책·중점 사업 등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환경, 교통, 절약, 안전, 질서·준법, 경로 효친, 예절 등과 같이 국가적, 지역적, 시대적, 사회적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반영되기를 요구하는 범교과적인 학습 내용은 회의 자료나 장학 계획, 협의회, 공문 지시 등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학년별로 학교 교육과정에 그 내용이 편성되어야 하고, 심도 있는 수업을 통하여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23)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계기 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사회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의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계기 교육의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만들거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상위 기관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4)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교과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학습 자료, 학습 부진아 학습 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등의 공동 개발과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별 장학 협의회, 교과 교육 연구회 등을 통한 지역의 자원 인사나 교원,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 실천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 사례 또는 각종 교육 자료전이나 경진대회에 출품된 우수 교수·학습 자료를 공개하고 일반화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21세기에는 각 교과의 교수·학습 자료가 ‘서책’에 머무르지 않고,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의 형식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교과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는 학생용 자료인 교과서만이 아니라, 워크북, 워크 시트 등의 자료가 다양하게 개발, 보급될 것이므로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

하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과정 중심’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식기반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의 결과만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탐구하는 과정, 탐구하는 방법, 문제 해결 과정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자율적인 학습’,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신장하도록 힘써야 한다.

(25) 각 교과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 한다.

선진형 개별화 교육과 수준별 맞춤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각 교과와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시설 및 기자재를 구비한 특성화된 교실이 요구된다. 즉, 외국어 전용 교실, 과학 실험실이나 음악실, 미술실 등에 국한되어 있는 전용 교실의 운영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교과 학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라 수준별 맞춤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시설 및 기자재 등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탐구·협동 학습 및 문제해결 학습을 활성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과 교실제 운영을 통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과 목표와 성격 및 교육 내용과 활동에 부합하는 시설 구축과 함께 각종 참고 자료, 교육 기자재 등의 구비와 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 교실제 운영을 위한 시설 확보에 앞서 교육과정과의 적합성, 교육 목표, 학습 목표와의 일치도, 교수·학습 활동의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6)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기구,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과학 및 전문 교과 등 실험이나 실습을 주로 하는 교과와 실기 지도 및 예·체능 교과와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학교에서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실습 전, 실습 중 및 실습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실험·실습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용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 용구 및 시설의 사용 방법과 대피 요령 등 각종 안전 사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7)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에서는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방과 후 교육 활동이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국가·사회 및 개인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 하겠다. 즉,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의 소질을 개발하고, 학생의 기초 학습, 보충 학습, 심화 학습 등을 통한 수준별 보충 수업을 실시하여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소외 계층의 집중 지원과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학교 내 교육 활동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내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통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외부의 지도 교사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나. 평가 활동

(1)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적 편성·운영과 이에 따른 책무성 강화로 학교 교육과정의 계획,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자율권이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 지역과 학교의 특징,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잘 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평가 참여자를 교사, 학부모, 학생 등으로 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안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인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6)</sup>

16) 학교 교육과정 평가 준거는 '학교 교육과정 평가 도구의 타당화 및 평가 실행 체제 연구'(민용성 외, 2009)에서 제시한 내용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일부 변형한 것임

<표Ⅲ-8> 학교 교육과정 평가 준거 예시 자료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지표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	◦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계획·운영실태·성과를 충실하게 분석하였는가?
		◦ 지역 사회·학교의 특성 및 학생·학부모·교사의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조사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에 만족하는가?
	계획 내용	◦ 국가 교육과정 기준 및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학교의 교육 중점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학교 특성과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계획하였는가?
		◦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영역별 평가 활동을 계획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내용에 만족하는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과 교육 활동	◦ 교과 교육 계획과 실제 운영은 일치하였는가?
		◦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 수업을 실시하였는가?
		◦ 교과별 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교과 교육 활동 운영에 만족하는가?
	창의적 체험 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과 실제 운영은 일치하였는가?
		◦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는가?
		◦ 창의적 체험활동 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만족하는가?
	지원 체제	◦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 연수 및 장학을 실시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모, 지역 인사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교육시설, 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의 지원 내용과 방식에 만족하는가?
학교 교육과정 성	교육 성과	◦ 학생은 영역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성취 기준에 도달하였는가?
		◦ 학생의 영역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업 성취도는 향상되었는가?
		◦ 학생은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성과에 만족하는가?
		◦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제에 따른 학교 변화에 만족하는가?

과	교육 성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사·학생은 교육과정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였는가?</li> <li>◦ 학교·교사는 교육과정 성과를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계획·운영에 활용하였는가?</li> </ul>
---	----------	---

- (2)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나)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다) 교과와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라)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마)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와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바)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사)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過程)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 목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는 등급을 매기고 서열을 정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인식보다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습의 결과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보다, 목표에 이르기까지 사교의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교과서 내용의 암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과정 중심의 이해 습득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방향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알맞게 구체적인 평가 지침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는 민간업체가 제작한 평가지의 활용을 지양하고,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에서 서술형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선다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필 평가의 역기능 현상을 줄이고, 평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살리기 위하여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실험·실습의 평가는 사전에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학생에게 공개함으로써 학습 활동의 목표점을 명확히 밝혀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태도, 표현, 기능 평가를 위한 실기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안을 작성·구성하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 즉 수행 평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술형 또는 주관식 검사, 논술형 검사, 구술시험, 찬·반토론법, 실기 시험, 실험·실습법, 면접법, 관찰법, 자기 평가 보고서, 연구 보고서, 포트폴리오(portfolio) 등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 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각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및 그 이외의 활동 실적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정 척도를 작성, 활용한다. 학생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정도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학교가 제공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을 상세히 기록하여 학생상담, 진로지도,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1)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국가는 시·도 교육청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의 단위 학교에 대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연수 지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

팅지원단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분석·환류 등 단위학교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빠른 시간내에 정착시키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기집중 이수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육청 단위의 순회교사 배치, 소규모 학교간 공동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등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은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상시 평가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간의 유기적인 지원체제가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 (2)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 (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 (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지침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 시행해야 하는 평가의 종류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의 본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 또한 당초 의도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실시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수행해야 하는 평가로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학교 및 교육청 평가, 평가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한다. 이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를 절대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기초학력 미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부진 학생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복지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의 학력을 학부모에게 알려 주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와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교육과정 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 지원을 촉진시킨다.

학교 평가는 단위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일정한 주기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유인가(incentive)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계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평가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실태와 지원 체계에 대한 적절성 및 실효성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함으로써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부터 다양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학년, 학생에게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의 편제, 단위 배당, 편성·지침의 적절성과 그 적용 효과에 중점을 둔다.

- (3)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 (가)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국가는 단위 학교 수준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밀도 있게 실행되도록 그 질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평가 활동을 시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해 주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시도 교육청에 보급하고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각 단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에서 교과별로 다양한 종류의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활동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평가 도구의 개발, 보급이 필수적이다. 물론 현재도 다양한 도구들이 제공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변화되었을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 도구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 나.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이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청 수준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각급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학교에 제시해야 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지도, 조언을 해 주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자료를 작성, 제시하고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학 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학교 현장의 중간 위치에 있는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적절한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의도하는 초·중등 교육의 기본 방향과 목표·내용·방법·평가 등의 제반 기준을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곧 의도된 교육과 전개된 교육, 실현된 교육의 공통 영역을 최대한으로 넓히고자 하는 국가 수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 학교’의 상호 유기성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교육공동체의 요구와 필요 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 검토 및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국가가 의도하는 교육이 단위학교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교육과정위원회, 예를 들면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명칭은 시·도 교육청에 따라 자유롭게 명명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을 위한 조사 연구, 심의, 자문 등을 위해 하부 조직으로 교과별, 학년별 및 학교 급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또 하부 교육과정 조직을 상호 연결, 교류하여 시·도 교육청이 의도하는 교육의 일관성과 계열성을 유지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교육 중점 등에 관한 연구가 학교 급별로 중복, 실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위원회의 최상위 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은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특색 있게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관련 조직인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또는 별도로 구성되는 연구 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균형 있는 연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특히 학교 급별로 유·초·중·고·특수학교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학교 급별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 (가) 기초·조사 연구 및 교육 중점 설정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먼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세밀한 분석·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자연, 산업, 역사, 문화, 의식 등은 물론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필요, 학생의 학력 실태, 교원의 전문성 정도, 시설·환경 및 재정 등 기초적인 조사를 충실히 하고, 이를 분석하여 교육에 반영할 시사점을 추출한 후 이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교육 중점이나 강조점을 설정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단기·중기·장기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지침에 반영함으로써 학교급별로 교육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기초 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지역의 교육 현황 조사

- 학교 현황(학교 수, 학교 규모, 학급 규모, 지역별 학교 등)
- 교원 현황(남녀 교원, 전담 교사, 연령별, 자격별 등)

- 학생 현황(남녀 학생 수, 학급별 학생 수, 지역별 학생 수 등)
- 지역의 특수성 조사
  - 자연 환경(위치, 지형, 기후, 면적, 도시 개발 계획 등)
  - 인문 환경(교통, 통신, 문화, 보건, 생활 모습, 전통 문화 등)
  - 사회 환경(인구, 취락, 인구 이동, 행정, 재정, 산업 발달 등)
- 지역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조사
  -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 및 요구
  - 지역 사회의 요구 및 필요
  - 학부모의 교육관 및 기대 수준
- 시·도 교육청의 강조 사항
  - 교육 중점 과제의 선정·운영 실태
  - 교육 방향 설정(단기·중기·장기 계획 등)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실태
  - 교육 중점 실태(학교장의 교육적인 신념 및 교훈 등)
  - 편제와 시간 배당 실태
  -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
  -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실태
  -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실태
- 교육 시설·설비 및 자료 활용 현황
  - 교과서 이외의 학습 자료 활용
  - 실험·실습의 시설 및 설비
  - 교육 기자재 보유·활용 현황
  - 교과 교실 보유 현황 및 운영 실태
- 교원 연수 및 연구 활동
  - 교사 연구 모임 실태(종류, 활동 실태 조사 등)
  - 교원 연수 현황(학교별 연수, 지역별 연수 등)
- 지역 사회의 시설·환경
  -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 현황
  - 지역 사회의 시설 활용 현황
- 교육과정 평가
  - 학생의 학업 성취도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 학교와 교육 기관과의 협조 체제

(나) 편성·운영 지침 시안 작성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시안은 교육과정 고시에 열거된 내용들을 총망라하여 지침의 목차를 먼저 정한 다음, 기초 조사 결과 설정된 교육 중점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시안 작성 시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교과별 위원회, 고등학교 소위원회 내 일반계, 전문계, 기타계의 계열별 소위원회 등 전문적인 영역별 하위 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도록 한다.

(다) 편성·운영 지침 시안 검토·개선 및 확정

시·도 교육청은 작성된 시안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여 개선점을 추출하고, 이를 지침에 반영하여 현실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침의 확정에 앞서 세미나, 설문조사,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이와 같은 검토·개선 과정을 거쳐 지침을 확정·고시하는 시기는 실제 적용되기 1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용에 필요한 교원 수급, 연수, 필요한 교육 자료 개발, 교육 시설 개선 등의 후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각 학교도 이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Ⅳ-1>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예시)

I.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저
1. 지침의 성격
2. 구성 방침
3. 지침의 기본 방향
4. ○○시(도) 고등학교 교육의 강조점
II.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2. 단위 배당 기준
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점
1. 공통 지침
2. 일반계 고등학교
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4. 학교급별 공통 사항
가. 편성·운영
나. 평가 활동
5.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나.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 6.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IV.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중점
  - 1. 교과 교육의 중점
  - 2.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중점
- V.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타 사항
  - 1. 교육자료 및 인정도서의 개발 보급
  - 2. 특수아, 귀국자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 3.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4. 독서·토론·논술교육
  - 5. 전문계고 실험·실습 및 현장 실습 지침
  - 6.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 지침
  - 7. 진로 교육에 관한 사항
  - 8. 교육감 보고 및 승인사항
  - 9.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절차 및 체제
- <부록>
  - 1. 심의 없는 교과용 도서 목록
  - 2. ○○시(도) 신설과목
  - 3. 각종 서식

(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교과별 수업 연구 교사와 교과 연구회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교원들이 교과별, 학년별, 주제별, 학교별로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연구를 하도록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교과 관련 관심 분야,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문제,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수업 운영, 수업 방법, 평가 방법 등을 계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4)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 편성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편성·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컨설팅단을 조직·운영 등, 지원 기구의 구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제상에 학년군·교과군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별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년군·교과군의 도입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사에 있어서 새롭게 도입된 획기적인 변화로서 편성·운영에 따른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청은 학년군·교과군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 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종의 교육과정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학교별 교원 연수, 학교 교육과정 모의 편성, 교원 수급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새롭게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을 위해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학교급별 혹은 학년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방안 혹은 모형 등 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컨설팅 기구는 학교 급별, 교과 별로 안배하여 교육과정에 전문성을 가진 현장 교사와 교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명칭은 ‘○○시(도)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시·도 교육청에서 자유롭게 명명할 수 있다. 컨설팅 지원단의 역할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단위학교별 연수 지원, 단위학교별 컨설팅,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연구, 자료 개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5)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향상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고시된 국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새 교육과정의 총론 및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교과별 증감 운영에 따라 교사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 연구원, 교육 연수원 등에 소속되어 수업 개선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조언과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 전문직에 대한 교육과정 연수도 실시해야 하며, 나아가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 행정 공무원, 학부모, 지역 인사 등에 대한 연수도 병행하여 교육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및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6)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시·도 교육청은 각 학교가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예시 자료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교과별 교수·학습 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매 학년도 시작 전에 새로운 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교원 수급 계획을 면밀히 세워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실시한다. 학기당 개설 과목이 8개로 제한됨에 따라 많은 교과들이 학기 집중이수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에 따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교원 정원 배치 등을 조사하여 순회(겸임) 교사제 운영, 강사 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한다.

(7)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국가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적용·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실천 중심의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기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전 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준별 교과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학교에 대해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8) 학교가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시·도(지역)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 사회의 문화, 역사, 예술, 체육, 복지 등 다양한 시설과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들 시설과 기관, 단

체 등에 대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책자 및 CD, 인터넷 자료실을 활용하여 안내한다. 그리고 연계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시도하여 워크숍, 세미나, 발표회, 연수 등의 기회를 통해 현장에 보급한다.

특히 학교 간 공동(연합) 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여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9)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수준별 수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수준별 이동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학급 확대 운영과 강사비 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수준별 평가 문항 개발, 교과 전용 교실 및 설비 지원, 수준별 보조 교재 개발 보급 및 활용 연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필요한 강사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개별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내 학교간 개설할 집중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이의 편성·운영을 위한 시설, 설비, 자료, 교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집중과정이 개설된 학교에서 학생이 관련 교과를 이수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수 인정, 평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소수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능력 있는 학생에게 능력에 따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각 학교가 별도의 과정을 설치하여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과에 따라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교과용 도서, 학습자료 등을 개발하여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한다.

(12)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시·도(지역) 교육청은 귀국자 자녀 및 다문화 가정 자녀를 배려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생들의 언어 및 문화 장벽 해소와 사회적 귀속감을 증대하기 위하여 각각의 능력에 맞도록 개별화 지도 방안을 강구하고, 학생의 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지원한다.

(15)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기르는 방향으로 제시되었으나 산업의 발달, 학문적 추세,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 판단하에 새로운 과목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해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신청과 승인 절차를 상세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신청 시기, 신청 양식, 심사 요령 및 결과 통보 시기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특히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가급적 단순화하여 제시한다.

학교가 교과목 신설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체제에 준하는 교육과정 편성안, 신설의 필요성, 운영 방안, 지도 교사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설 과목을 개발할 경우에는 보통 교과의 경우 5단위, 전문교과의 경우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단위수를 정하고 적절한 분량으로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17)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시·도 교육청은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모든 학교가 필요한 시설을 개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교육청은 인근 학교 간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원활한 교류,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으로 개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18)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기타 활동 등을 통해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문교과의 경우 대부분의 국정도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되었으므로 이를 위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하며, 일부 보통교과 역시 인정도서로 전환되어 학교가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어려움이 없도록 시·도 교육청에서는 인정도서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19)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는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연계·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도 교

육청은 산학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현장 실습이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1사-1교 멘토링’을 통해 기업이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자매 학교에서 특강과 실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실습 과목 편성·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육청 수준에서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의 특성화 교육 강화를 위해 산학 협력이 활성화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산업체와 긴밀한 상호협력 등을 통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실행 프로그램이면서 상세한 교육 운영 계획으로서 그 학교만의 교육 설계도라고 볼 수 있다. 그 속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학교만의 교육 내용, 방법, 운영 방안 등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세하게 담겨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살리면서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및 지도, 조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 및 시·도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도(지역)교육청은 단위학교에 대한 장학 활동을 통해 학교 급별 교육목표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며,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수업의 개선과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학교는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따라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범주를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각 학교는 이 지침에 따라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준용하도록 한다.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의 경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편성·운영 자율권과 시·도 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승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는 승인에 따른 절차 및 서식, 일정, 유의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총 이수 단위 수,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이수 단위 수, 필수 과목의 운영, 실험·실습 시간의 확보,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야간에 수업을 편성·운영하는 학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수한 학교로 분류되지 않

지만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을 모두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시간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단위 수업 시간을 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도 교육청은 야간에 수업을 하는 학교의 경우 특별활동 및 야외 학습 등의 실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침삭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 (3)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방송 통신 고등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하기 위해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및 교육방식, 학교 출석 수업 일수 등을 조정·제시하였다. 즉 ①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② 교육 방식에서 침삭 지도를 허용하였으며, ③ 학교 출석 수업 일수를 연간 20일 이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방송 통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어야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방송 통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융통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특정 목적 하에 학교 운영의 특례 등이 부여되고 있는 특성화 학교 및 자율 학교 등으로 지정된 고등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설립 이념 및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하도록 하지만 그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하여 그 학교의 목적 및 특성에 맞는 교육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자율 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받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과정 연구 학교가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침의 취지는 현행 교육과정 틀을 초월하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것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매학년 22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220일의 수업 일수에 적합한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행령 동조 동항에 “다만,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 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육과정 연구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부록1>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 - 41 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 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 와 같습니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5】 와 같습니다.
6. 도덕과 교육과정은 【별책 6】 과 같습니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 7】 과 같습니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8】 과 같습니다.
9. 과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9】 와 같습니다.
10.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은 【별책 10】 과 같습니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 【별책 11】 과 같습니다.
12. 음악과 교육과정은 【별책 12】 와 같습니다.
13. 미술과 교육과정은 【별책 13】 과 같습니다.
14. 외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4】 와 같습니다.
15. 중학교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16】 과 같습니다.
16. 한문,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17】 과 같습니다.
17.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별책 18】 과 같습니다.
18.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7】 과 같습니다.
19.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8】 과 같습니다.

###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가.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나. 2012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다. 2013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 라. 단,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 화법과 작문 I·II, 독서와 문법 I·II, 문학 I·II,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물리 I·

Ⅱ, 화학 I·Ⅱ, 생명과학 I·Ⅱ, 지구과학 I·Ⅱ,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독일어 I·Ⅱ, 프랑스어 I·Ⅱ, 스페인어 I·Ⅱ, 중국어 I·Ⅱ, 일본어 I·Ⅱ, 러시아어 I·Ⅱ, 아랍어 I·Ⅱ, 한문 I·Ⅱ는 2012년부터 적용하며,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 ‘\*’표가 된 과목의 경우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적용합니다.

###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다.
-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 Ⅱ.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1. 초등학교

#### 가.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 나. 편제와 시간 배당

##### (1) 편제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 (2) 시간 배당 기준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 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 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즐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즐거운 생활 384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3~4학년의 국어과 기준수업시수는 주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는 442시간을 기준수업시수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 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 (1)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3) 각 교과와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기초적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

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5)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6)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7)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8)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9) 학교는 학생이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을 편성하여 안내 한다.
- (10)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 2. 중학교

### 가.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4)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 (1) 편제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1~3학년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총 수업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 (1) 학교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안내한다.
-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3)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 (5)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 (6)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8)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9)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교육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 ①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 ②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단위 배당 기준**

**【표 1】**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율과정
			교과(군)	교과 영역	
교 과 (군)	기초	국어	15 (10)	45 (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 (10)		
		영어	15 (10)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15 (10)	35 (20)	
		과학	15 (10)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율과정
			교과(군)	교과 영역	
	체육·예술	체육	10 (5)	20 (10)	
		예술 (음악/미술)	10 (5)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16 (12)	16 (12)	
		소 계	116(72)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필수이수단위의 교과(군) 및 교과 영역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 및 교과 영역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 ④ 필수이수단위의 ( ) 안의 숫자는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 예체능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인정받은 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⑤ 총 이수 단위 수는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수 단위를 합한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 (3) 보통 교과

【표 2】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I, 화법과 작문 II, 독서와 문법 I, 독서와 문법 II, 문학 I, 문학 II
	수학	수학*, 수학의 활용, 수학 I,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영어*, 영어 I, 영어 II,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사회*, 한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학	과학*, 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예술 (음악/미술)	음악*,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미술*,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기술·가정*,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독일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 스페인어 II, 중국어 I, 중국어 II, 일본어 I, 일본어 II, 러시아어 I, 러시아어 II, 아랍어 I, 아랍어 II  한문 I, 한문 II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안전과 건강,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 ①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 ② \*표 한 과목은 교과(군)별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목은 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이외에 전문교과의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전문 교과

【표 3】

교과	과 목				기준 학과
농생명 산업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농업 경영	식물 자원과
	생물 공학 기초	재배	작물 생산 기술	숲과 인간	동물 자원과
	산림 자원 기술	원예	생활 원예	생산 자재	농업 토목과
	원예 기술 I	원예 기술 II	동물 자원	사육 기술 I	식품 가공과
	사육 기술 II	누에와 비단	조경	조경 기술 I	농업 기계과
	조경 기술 II	농업과 물	농촌과 농지 개발	농업 토목 기술 I	조경과
	농업 토목 기술 II	농업 기계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기술 I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 기계 기술 II	식품 과학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I	환경·관광 농업과
	식품 가공 기술 II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관리 I	농산물 유통 관리 II	생물 공학과
	환경 보전	환경 관리 I	환경 관리 II	농업과 관광	
공업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전문 제도	기계과
	기계 일반	전기 일반	공업 영어	기계 설계	전자 기계과
	기계 공작법	원동기	유체 기기	공기 조화 설비	금속 재료과
	기계 기초 공작	공작 기계 I	공작 기계 II	산업 설비	전기과
	금형 제작	전자 기계 이론	전자 기계 회로	전자 기계 공작	전자과
	전자 기계 제어	로봇 기초	로봇 제작	재료 일반	통신과
	금속 제조	재료 가공	주조	금속 처리	컴퓨터 응용과
	전기 응용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전력 설비 I	토목과
	전력 설비 II	전기·전자 측정	자동화 설비	전자 기기	건축과
	전자·전산 응용	전자 회로	계측 제어	통신 일반	디자인과
	정보 통신	통신 시스템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화학 공업과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	측량	역학	환경 공업과
	토목 설계	토목 일반	토목 재료·시공	수리·토질	세라믹과
	지적 전산	지적 실무	건축 구조	건축 계획 일반	식품 공업과
	건축 목공	건축 시공 I	건축 시공 II	디자인 일반	섬유과
	색채 관리	조형	공업 디자인	공예	인쇄과
	시각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공업 화학	단위 조작·공정 제어	자동차과
	제조 화학	분석 화학	기능성 세라믹	세라믹 원리·공정	조선과
	구조 세라믹	세라믹 디자인	발효 공업	식품 제조 기계	항공과
	식품 분석	식품 공업 기술	섬유 재료	방직·방사	컴퓨터 게임과
	제포·봉제	염색·가공	인쇄 일반	인쇄·사진 재료	만화·애니메이션과
	평판 인쇄	특수 인쇄	사진·전자 제판	사진	영상 제작과
	자동차·건설 기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새시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건설 기계 구조·정비	자동차 차체 수리	선박 이론	선박구조	
	선박 건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기체	항공기 기관	
	항공기 장비	항공기 전자 장치	환경 공업 일반	수질 관리	
	대기·소음 방지	폐기물 처리	컴퓨터 게임 기획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그래픽	만화·애니메이션 기초	애니메이션 제작	만화 창작	
	영화·방송 제작	촬영·조명	방송 시스템		
	상업 정보	상업 경제	컴퓨터 일반	회계 원리	기업과 경영
경영과 법		마케팅과 광고	경영 정보 시스템	기업 자원 관리	회계 정보과
커뮤니케이션 실무		원가 회계	기업 회계	전산 회계	무역 정보과
세무 회계		금융과 생활	국제화와 기업 경영	무역 영어	유통 경영과
전자무역과 국제 상무		유통 정보 관리	물류 관리	자료 처리	정보 처리과
프로그래밍 실무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 관리 실무	멀티미디어 일반	멀티미디어과
멀티미디어 기획		멀티미디어 실무	웹 프로그래밍	전자 상거래 일반	전자 상거래과
인터넷 쇼핑몰 관리		전자 상거래 실무	인터넷 마케팅	창업 일반	응용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교과	과목				기준학과
수산·해양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양식 생물 질병 해양 오염 열기관 잠수 기술 해사 영어 전자 통신 운용 해양 정보 관리	해사 일반 수산 경영 일반 수산 가공 냉동 일반 선박 보조 기계 항해 선화 운송 생선회 실무	해양 일반 해양 생산 기술 수산물 유통 냉동 기계 선박 전기·전자 선박 운용 전자 통신 공학 해양 레저·관광	수산·해양 정보처리 수산 양식 해양 환경 냉동 공조 실무 기계 설계·공작 해사 법규 전자 통신 기기 항만 물류 일반	해양 생산과 수산 양식과 자양 수산과 수산 식품과 해양 환경과 냉동 공조과 동력 기계과 항해과 전자 통신과 해양 레저과 항만 물류과 해양 정보과
가사·실업	인간 발달 동양 조리 패션 디자인 주거 영·유아 교육 원리 관광 일반 관광 영어 보건 간호 헤어 미용	식품과 영양 서양 조리 한국 의복 구성 실내 디자인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관광 경영 실무 관광 일본어 기초 간호 임상 실무 피부 관리	급식 관리 제과 제빵 서양 의복 구성 가구 디자인 영·유아 놀이 교육 관광 서비스 실무 관광 중국어 기초 복지 서비스 메이크업	한국 조리 의복 재료·관리 자수와 편물 디스플레이 영·유아 생활 지도 관광 외식·조리 간호의 기초 노인 생활 지원 공중 보건	조리과 의상과 실내 디자인과 유아교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 서비스과 미용과
과학	물리 실험 과학사 고급 수학 고급 지구 과학 현대 과학과 기술	화학 실험 전자 과학 고급 물리 과제 연구 I 원서 강독	생명 과학 실험 정보 과학 I 고급 화학 과제 연구 II 워크숍	지구 과학 실험 정보 과학 II 고급 생명 과학 환경 과학 과학 철학	
체육	스포츠 개론 체조 운동 투기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 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경영·행정	스포츠 경기 과학 수상 운동 빙상·설상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 스포츠 교육 전공 실기	체육과 진로 탐구 개인·대인 운동 표현·창작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 코칭론 전공 실습	육상 운동 단체 운동 체력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 건강 관리	스포츠경기과 체육지도과
예술	음악 이론 합창 교양 실기 미술 이론 기초 조소 미술 감상과 비평 무용의 이해 무용 전공 실기 문학의 이해 시 창작 연극의 이해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 제작 실습 사진의 이해 사진 편집	음악사·감상 합주 미술사 기초 디자인·공예 기초 한국 무용 무용 음악 문장론 소설 창작 무대 기술 영화의 이해 영화 감상과 비평 기초 촬영 디지털 사진 촬영	시창·청음 연주 소묘 미술 전공 실기 기초 발레 안무 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 희곡 창작 연기 영화 기술 중급 촬영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음악 전공 실기 컴퓨터와 음악 기초 회화 영상 매체와 미술 기초 현대 무용 무용 감상과 비평 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 매체와 문학 연극 제작 실습 영화 창작과 표현 암실 실기 사진 감상과 비평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문예창작과 연극영화과 사진과

교 과	과 목				기준 학과
외국어	심화 영어	영어 청해	영어 회화 I	영어 회화 II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영어 독해	영어 작문	영어권 문화 I	영어권 문화 II	
	영어 문법				
	기초 독일어	독일어 청해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 독해	독일어 작문	독일어권 문화 I	독일어권 문화 II	
	독일어 문법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청해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 회화 II	
	프랑스어 독해	프랑스어 작문	프랑스어권 문화 I	프랑스어권 문화 II	
	프랑스어 문법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청해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 회화 II	
	스페인어 독해	스페인어 작문	스페인어권 문화 I	스페인어권 문화 II	
	스페인어 문법				
	기초 중국어	중국어 청해	중국어 회화 I	중국어 회화 II	
	중국어 독해	중국어 작문	중국 문화 I	중국 문화 II	
	중국어 문법				
	기초 일본어	일본어 청해	일본어 회화 I	일본어 회화 II	
	일본어 독해	일본어 작문	일본 문화 I	일본 문화 II	
	일본어 문법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청해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회화 II		
러시아어 독해	러시아어 작문	러시아 문화 I	러시아 문화 II		
러시아어 문법					
기초 아랍어	아랍어 청해	아랍어 회화 I	아랍어 회화 II		
아랍어 독해	아랍어 작문	아랍 문화 I	아랍 문화 II		
아랍어 문법					
국제	영어 강독	독일어 강독	프랑스어 강독	스페인어 강독	
	중국어 강독	일본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 정치 I	국제 정치 II	국제 경제 I	국제 경제 II	
	세계 문제	비교 문화 I	비교 문화 II	정보 과학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현대 사회	한국어	과제 연구 I	과제 연구 II	
	예능 실습				

-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표 3】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80단위 이상 이수한다.
- 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 농생명 산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 ㉡ 공업 계열 :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 ㉢ 상업 정보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 ㉣ 수산·해운 계열 :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 (수산 계열), 해사 일반 (해운 계열)
  - ㉤ 가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 ㉥ 체육, 외국어, 국제계열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따르되, 과학, 예술 계열은 필수 이수과목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 (1) 공통 지침

-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
- (나) 교과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 (라)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마)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야 한다.
-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 (아)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 (카)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과목을 편성하여 안내해야 한다.

## (2) 일반계 고등학교

-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116단위 이상으로 한다.
- (나) 학생의 진로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 수로 편성할 수 있으나, 교과 영역별로 제시된 단위 수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거나 자율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라)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

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 (㉠)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자율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 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
- (㉣)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 (㉠)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편성 하며, 전문 교과의 과목은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 (㉡)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5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다.
- (㉢)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보통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과목과 전문 교과의 과목은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의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 할 수 있다.
  - ①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 ③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전공 관련 교과군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의 과목에서 80단위 이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교과군에서 50% 이상 편성한다.
- (㉦)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
- (㉧)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4. 학교급별 공통 사항

### 가. 편성·운영

- (1)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2)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3)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
- (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 (5)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6)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8) 각 교과와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 (9)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10)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 (11)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12)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 (13)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 (14)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 (15)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16)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17)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8)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9)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20)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 (21)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22)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

- (23)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 (24)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25)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 한다.
- (26)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기구,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27)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나. 평가 활동

- (1)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 (2)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나)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다) 교과목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라)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마)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목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바)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사)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지원한다.

- (1)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2)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 (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 (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계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3)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 (가)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나.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2)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 (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4)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 편성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다.
- (5)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향상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6)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 (7)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8) 학교가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9)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10) 개별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내 학교간 개설할 집중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11)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12)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13)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14)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 (15)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16)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 받을 기회의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17)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 (18)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19)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는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20)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 (2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침삭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 (3)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바.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부록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신·구 비교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p style="text-align: center;"><b>교육과정의 성격</b></p>	<p>&lt;좌동&gt;</p>
<p>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p> <p>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p>	<p>&lt;좌동&gt;</p>
<p>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p> <p>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p> <p>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p> <p>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p> <p>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p>	<p>&lt;좌동&gt;</p>
<p><b>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b></p>	<p>&lt;좌동&gt;</p>
<p><b>1. 추구하는 인간상</b></p> <p>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 <p>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p>	<p>&lt;좌동&gt;</p>
<p>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p>	<p>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p>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삭제>
<b>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b>	<b>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b>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 방침은 다음과 같다.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나. <u>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u> 과 <u>선택 중심 교육과정</u> 체제를 도입한다.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u>공통 교육과정</u> 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u>선택 교육과정</u> 으로 편성한다.
다.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 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신설>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신설한다.
<신설>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b>II. 학교급별 교육 목표</b>	<b>II. 학교급별 <u>교육과정 편성과 운영</u></b>
	<b>1. 초등학교</b>
<b>1. 초등학교 교육 목표</b>	가.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좌동>
가.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다.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p>마.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p>	
<p><b>Ⅲ.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b></p>	<p>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p>
<p><b>1. 편 제</b></p>	<p>(1) 편제</p>
<p>가.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p>	<p>&lt;삭제&gt;</p>
<p>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p>	<p>(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p>
<p>(1)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한다.</p>	<p>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p>
<p>(2)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한다. (3)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p>	<p>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p>
	<p>(2) 시간 배당 기준(별표 1 참고)</p>
<p>&lt;신설&gt;</p>	<p>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p>
<p>&lt;신설&gt;</p>	<p>(1)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p>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⑤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다.	(2)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① 각 교과목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3) 각 교과목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기초적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4)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5)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6)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신설>	(7)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8) <u>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u>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9) 학교는 학생이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을 편성하여 안내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신설>	(10)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b>2. 중학교</b>
<b>1. 중학교 교육 목표</b>	가.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u>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u>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u>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u>
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진다.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진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에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4)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마.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	
<b>Ⅲ.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b>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b>1. 편 제</b>	(1) 편제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1)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2)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한다. (3)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별표 2 참고)
<신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신설>	(1) 학교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안내한다.
<신설>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3)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4)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신설>	(5)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㉔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유의한다.	(6)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바) 이 교육 과정에 예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태)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나,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8)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신설>	(9)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b>3. 고등학교</b>
<신설>	가. 고등학교 교육목표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가.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 의식을 가진다.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 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나.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 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마.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신설>	
<b>Ⅲ.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b>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b>1. 편 제</b>	(1) 편제
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와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1)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가) 보통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교양 선택 과목으로 한다.	①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나)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②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2)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등으로 한다.
<신설>	(2) 단위 배당 기준(별표 3 참고)
<신설>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신설>	(1) 공통 지침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1)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144 단위로, 선택 과목에 136 단위, 특별 활동 에 8 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 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 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
<신설>	(나) 교과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 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⑦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범위 이내로 편성하되, 가능한 10 과목 이내로 하도록 한다.	(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 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 다.
(라) 선택 과목 중 과목명에 II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I을 먼저 이수해야 하나,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이수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타)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 우 계열적 학습이 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 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 구를 반영해서 편성한다. 특히, 시·도 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 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 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	(마)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 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학교는 필요에 따 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 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 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 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야 한다.
⑩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 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 교에서의 이수도 인정하도록 한다. 특 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 있는 지역 사 회의 학습장에서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 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 교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 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가 정한 지 침에 따른다.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 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아)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 교 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신설>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야)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단위를 10 %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전문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2004. 11. 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채)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신설>	(카)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과목을 편성하여 안내해야 한다.
	(2)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	(개)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116단위 이상으로 한다.
<신설>	(나) 학생의 진로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 수로 편성할 수 있으나, 교과 영역별로 제시된 단위 수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거나 자율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테)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신설>	(마)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자율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타)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나,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 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
<신설>	(아)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3)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60단위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하여 보통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편성 하며, 전문 교과의 과목은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③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u>8단위 이하로 배당한다.</u>	(나)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u>5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다.</u>
(나) <u>선택 과목 중에서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u>	(다)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u>보통 교과의</u> 이수 로 간주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㉞)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u>보통 교과</u> 의 <u>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u> 는 교체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㉞)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u>보통 교과</u> 의 <u>과목과 전문 교과</u> 의 <u>과목</u> 은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㉞)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의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 할 수 있다.
(㉞)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①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㉞)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② <u>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u> ,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⑫ <u>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u>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신설>	(㉞)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전공 관련 교과군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 과목에서 80단위 이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교과군에서 50% 이상 편성한다.
⑬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u>50% 이상의 전공 외국어와 전공 외국어 이외의 2개 외국어를 포함하여</u>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2004. 11. 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㉞)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u>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 외국어로</u>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p>⑭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아)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b>4. 학교급별 공통 사항</b></p>
	<p>가. 편성·운영</p>
<p>(가) 학교는 <u>이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u>,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u>편성, 운영한다.</u></p>	<p>(1) 학교는 <u>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u>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u>편성·운영한다.</u></p>
<p>(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p>	<p>(2)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p>
<p>(가)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 운영한다.</p>	<p>(3)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p>
<p>(나)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p>	<p>(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p>
<p>(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p>	<p>(5)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p>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따)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⑧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8)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②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9)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u>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u>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10) <u>공통 교육과정에서는</u>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②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11)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수준별 수업을 적용할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11)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p>③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p>	<p>(12)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p>
<p>④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p>	<p>(13)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p>
<p>⑤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p>	<p>(14)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p>
<p>&lt;신설&gt;</p>	<p>(15)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p>
<p>⑦ 교과와 <u>재량 활동</u>, <u>특별 활동</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p>	<p>(16) 교과와 <u>창의적 체험활동</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p>
<p>③ 지역 및 학교 실정과 활동 내용의 특성에 따라 집중 연속적인 이수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p>	<p>(17)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⑥ 교과와 <u>특별 활동</u>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18) 교과와 <u>창의적 체험활동</u>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캐)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 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9)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타) <u>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한다.</u>	(20)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⑨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21)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아)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u>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u>	(22)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 <u>한국 정체성 교육</u>, ...,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u>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u> 등</div>
(자)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23)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① 교과용 도서 이외의 <u>수준별 교수·학습 자료</u> 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4) 교과용 도서 이외의 <u>교수·학습 자료</u> 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5)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⑧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시 안전에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26)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기구,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타)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27)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나. 평가 활동
(해)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1)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1)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2)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나)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3) 교과목의 평가는 <u>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u> 를 지양하고, <u>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u> 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교과목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4)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태)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5)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에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㉞)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에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6)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유의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㉞)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초등학교의 교과 활동 평가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8) <u>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u>	(㉞)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b>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b>
	<b>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b>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신설>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지원한다.
<신설>	(1)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가. 이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2)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1)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u>교과별, 학년별 학생 평가</u> 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u>교과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u> 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u>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부터 다양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학년, 학생에게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의 편제, 시간(단위) 배당, 편성·운영 지침의 적절성과 그 적용 효과에 중점을 둔다.</u>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나.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1) 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가 수준의 평가 문항 은행을 구축하여 에듀넷 등 통신망을 통해 학교가 평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삭제>
(3)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나)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나.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신설>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p>(나)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u>교육과정 전문가</u>, <u>교과 교육 전문가</u>,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p>	<p>(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u>교육 행정가</u>, <u>교육학 전문가</u>, <u>교과 교육 전문가</u>,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p>
<p>(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시·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p>	<p>(2)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p>
<p>(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p>	<p>(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p>
<p>&lt;신설&gt;</p>	<p>(4)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 편성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다.</p>
<p>(나) 교원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p>	<p>(5)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향상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p>
<p>(마)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p>	<p>(6)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p>
<p>(마)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p>	<p>(7)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p>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신설>	(8)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바) 각 학교가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9)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신설>	(10) 개별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학교간 개설할 집중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자)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11)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차) 귀국자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고,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12)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타)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나,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13)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설>	(14)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가) 중등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위한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15)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사)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16)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마)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원활한 교류,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17)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신설>	(18)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19)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는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가) 시·도 교육청은 관내의 지역 교육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지도, 조언을 한다.	(20)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4.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u>편성한다</u>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u>편성·운영한다</u> .
나. <u>교육과학기술부 직할</u>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나. <u>국가가 설립 운영하는</u>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 기술학교(3년제 과정),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다.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좌동>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u>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u> 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u>고등학교 교육과정</u> 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u>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u> 에 준하되, <u>170단위 이상</u> 이수하도록 한다.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u>고등학교 교육 과정</u> 에 준하되, <u>162단위 이상</u> 이수하도록 한다.
(2) 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침삭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좌동>
(3)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좌동>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p>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다.</p>	<p>바.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p>
<p>(1)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총 이수 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 시간수를 증감하여 학교 재량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교과별 수업 시간 수를 연간 68시간미만으로는 감축 운영할 수 없다.</p>	<p>&lt;삭제&gt;</p>
<p>(2)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외의 선택 과목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p>	<p>&lt;삭제&gt;</p>
<p>(3) 특성화 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의 총 이수 단위 수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p>	<p>&lt;삭제&gt;</p>
<p>(4)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p>	<p>&lt;삭제&gt;</p>
<p>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p>	<p>&lt;좌동&gt;</p>

### <부록3>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국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 ① 대한민국헌법 [1987. 10. 29. 헌법 10호]
- ② 교육기본법 [2008. 3. 21. 법률 제8915호]
- ③ 초·중등교육법 [2008. 3. 21. 법률 제8917호]
-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09. 11. 5. 대통령령 제21809호]
- 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08. 2. 29. 법률 8852호]
- ⑥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2009. 1. 30. 대통령령 제21282호]
- ⑦ 교육과정심의회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 ⑧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2010. 1. 6. 대통령령 제21978호]
- ⑨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1999. 7. 23. 대통령령 제16479호]
- ⑩ 학교보건법 [2007. 8. 3. 대통령령 제8578호]
- ⑪ 학교보건법시행령 [2008. 8. 4. 대통령령 제20949호]
- ⑫ 과학교육진흥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⑬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 ⑭ 영재교육진흥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⑮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2008. 10. 14. 대통령령 제21081호]
- ⑯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2호]
- 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2008. 6. 1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호]
- ⑲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2009. 1. 30. 법률 제9401호]
- ⑳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09. 2. 3. 대통령령 제21291호]
- ㉑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2009. 5. 8. 법률 제9643호]

이 밖에도 교육과정 관련 법규에는 교육 조직, 시설·설비, 학사, 장학·학술 연구, 과학·기술·직업 교육, 사회·유아·특수·청소년·체육 교육 및 국경일·휴일·기념일,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등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예규 등이 있다.

## 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 ■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 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기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 31 조 제 1 항에 명시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교육의 이상이며,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거가 된다.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교육, 즉 개인차가 고려되는 교육은 시대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나 강조점이 다소 달랐을 뿐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교육의 이상이다. 또, 교육이란 개인을 보다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되게 하는 동시에, 개인의 교육적 경험과 교육의 질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개인 간에 차이가 나게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한 것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필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의 장을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함을 뜻한다.

최소의 필수 교육이 평등(equality)의 이념을 강조한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은 공평(equity)의 이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기계적인 평등 논리보다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공평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차를 반영하는 교육은 교육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 즉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학습

자의 능력 수준 및 요구, 개인적 특성 등에 맞추어 가장 합당한 교육적 처치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 제 31 조 제 4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국가 관리 체제로 하는 공교육 제도에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 법에 따라 학교 교육을 운영한다. 따라서 국가는 부모와 교사의 지배나 간섭, 또는 포기로부터 침해받을 수도 있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대 복지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자로서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다.

특히, 보통 교육 단계의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은 아직 가치 판단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적 선동이나 왜곡된 진리에 대해서는 비판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제 가치의 수용에 대한 가소성이 있다. 그러므로 초·중등의 보통 교육은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학생에게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기준을 국가가 설정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은 학생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배울 권리의 보장, 교육 내용의 전문적 수준 확보, 공교육에 대한 기준 설정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리, 교육 내용의 중립성 보장의 준거가 된다.

또한, 교육 기본법 제 3 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학습권이 제시되어 있고, 제 4 조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 5 조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존중에 관한 사항이, 제 6 조에는 교육의 중립성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지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동시에 법적인 기준이 된다.

## 나. 교육 이념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 ■ 교육기본법

제 2 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을 걸쳐 홍익인간(弘益人間), 전인(全人)의 육성 등이 교육의 이상으로 자리잡아 왔으며,<sup>17)</sup> 광복 이후 우리 교육에서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교육 이념으로 제시

된 것 또한 바로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이다.

교육 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교육 이념은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 시민의 자질’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이념과, ‘민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가 차원의 이념, 그리고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이라는 세계적 차원의 이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 이념은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재음미되어 왔다. 즉,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그 적절성과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면서 1949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포괄적인 교육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교육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 이념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설정하는 바탕이 되었다.

교육 기본법에 제시된 교육 이념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 설정의 기저가 된다.

## 다.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

### ■ 초·중등교육법

제 45 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45 조에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 중점과 교육 목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을 규정한 조항은 각각 해당 학교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별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으나, 교육과정이 학교급별 단위로 운영되는 현실과 초·중등교육법에 학교급별 교육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학교급별로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교육과정 및 교과

17)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홍익인간’의 이념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근원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단군 신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인 교육’의 방향은 고종이 1895년에 작성한 교육입국 조서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광복 직후 결성된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제안하여 교육법에 명기하게 되었으며, 홍익인간의 정신은 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상통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3조(교과)

3. 고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 제 1 항은 각 학교는 소정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는 단위 학교 수준에서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동법 제 23조 제 2항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라는 규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가 된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①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 보장, ② 교육내용의 일관성과 체계성 유지, ③ 공교육의 일정 수준 확보, ④ 교육의 중립성 확보, ⑤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수준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는 국가의 관여를 통한 전문적 지도 조언과 융통성 있는 운영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이기 때문에 각 시·도의 특수성이나 실정, 필요,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등과 지역의 교육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각 시·도의 교육 중점을 특색 있게 설정하고,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그 지역의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감이 이러한 지역 수준의 지침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 제 2 항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동법 제 23 조 제 2 항에 따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

동법 제 23조 제 3항은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3조에는 고등학교의 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 마. 수업, 학기, 수업일수 등

### ■ 초·중등교육법

제 24조(수업 등) :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 수업, 계절 수업, 시간 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학기, 수업 일수, 학급 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4 조(학기) :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 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 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 학기는 제 1 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45 조(수업 일수) : 학교의 수업 일수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 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 : 매 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학급 편성) : 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 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 47 조(휴업일 등) : ① 법 제 2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8 조(수업 운영 방법 등)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 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49 조(수업 시각) :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학사 일정이 운영된다.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제1항),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항).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시행령 제 44 조에 제시되어 있다. 매 학년도의 법정 수업 일수는 2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10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시행령 제 45

조).

시행령 제46조에는 학급 편성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이나 도서 벽지 등에는 소규모의 소인수 학교 또는 학급인 경우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에 수용하는 복식 학급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경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무학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운영에서도 활동 주제의 특성, 동아리 활동 부서의 선택과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학년이나 학급의 벽을 탈피하여 무학년제에 의한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주제 탐구 활동, 소집단 공동 연구,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협력 수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학교의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여름·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개교기념일 등이며(시행령 제47조), 비상 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sup>18)</sup>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수업에서는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서나 지도서 등과 같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4항).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서는 모든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의 교환, 교류 학습이나 학부모의 책임 아래 여행, 현장 견학, 답사 등과 같은 체험 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업 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외 체험 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시행령 제48조 제5항).

또한, 하루의 수업을 시작하고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49조).

## 바. 학년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수업 연한

18) 학교의 수업 일수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7771호, 2005. 12. 29)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호, 2006. 9. 6.)에 의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삭제), ⑥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 ⑦ 5월 5일(어린이날), ⑧ 6월 6일(현충일), ⑨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⑩ 12월 25일(기독교 탄신일), ⑩의 2. 공직 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 초·중등교육법

제 26조(학년제) :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23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6조(수업 연한) : 고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0 조(수료 및 졸업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 의하면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원칙적으로 학년제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다른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 제46조에는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27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자의 학력 인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 50 조에서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에 따라 수료 또는 졸업을 학교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각 학년의 수료는 수업 일수의 2/3 이상 출석으로 하고 있으며, 졸업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의미한다.

## 사. 교과용 도서의 사용

### ■ 초·중등교육법

- 제 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 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29조는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의미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는 ‘국정 도서’, 민간에서 저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는 ‘검정 도서’, 국정·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나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는 ‘인정 도서’로 구분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본 방향은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있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고등학교 교육 목표,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그리고 해당 교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려면 국정, 검정, 인정 도서를 막론하고 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중시하고 교수·학습 현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 학습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기본적인 신념과 구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다양한 편집, 새로운 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가독성을 보다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모습은 서책 위주의 ‘교과용 도서’로서의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함께 활용되는 ‘교육과정 자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 아. 학교 운영 위원회의 기능

## ■ 초·중등교육법

- 제 32 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31조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 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단위 학교 수준의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교육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권한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있지만, 학교의 교과·창의적 체험 활동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은 지역 사회와 학교, 교원, 학부모 모두가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여, 학교장의 학교 경영을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모, 명예 교사, 지역 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자원과 학교 밖의 시설 자원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는 교과의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특별 보충 과정’의 운영과 지원 방안
- ②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 ③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방안
- ④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서관(실)을 확충하는 방안
- ⑤ 체육 대회, 합창 대회, 축제 등의 교육적인 학교 행사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 ⑥ 도시와 농·어촌 및 다른 나라 학교와의 교류 체험 학습, 현장 학습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⑦ 귀국자 자녀 특별 학급이나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모색하고자 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원의 전문적이고도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대해 심의를 할 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항도 국가 수준의 기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자. 장학 지도, 학교 규칙, 학생 자치 활동

### ■ 초·중등교육법

제 7 조(장학 지도)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학교 규칙) : 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 및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 조(학생 자치 활동) : 학생의 자치 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7 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장학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장학은, ‘교육 활동의 개선을 위한 모든 지도·조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학의 궁극적 목적은 ‘수업 개선(improvement of instruction)’에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 지도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장학 지도 실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8 조에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17 조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자치활동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교육적 활동을 조직하고, 학생들이 담당할 역할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학생 자치 활동뿐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 8 조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 조에 명시되어 있다.<sup>19)</sup>

19)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은 ①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②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③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④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⑤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⑥ 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⑦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⑧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⑨ 학칙 개정 절차, ⑩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다.

## 차. 평가 및 학교생활 기록

### ■ 초·중등교육법

제 9 조 (평가) :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5 조 (학교생활 기록) :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에 대한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문서 수준의 수사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 의도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하기 위해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교육과정 평가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9 조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2 조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핵심적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다.<sup>20)</sup> 특히, 학교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시책이나 사무 중심의 문서에 의한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수업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질 관리 중심의 평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25 조는 평가 결과 기록 방법의 개선과 평가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적용할 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 조 ~ 제 13 조에는 학생의 평가, 평가 대상,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 <부록4>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보기 위해 본 해설서에서는 8·15 광복을 기점으로 하여 광복이후 정부가 법령 공포 또는 고시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과정기를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전면 개정 여부에 따라 1차, 2차 등의 차수에 따른 구분 방식을 택하였고, 교육과정기의 시작 시점은 법령 공포 또는 고시 일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수 요목기, 그리고 1차부터 7차 교육과정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각 시기별로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을 총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1945~1946)

8·15 광복으로 일제의 강점하에서 벗어났으나 미군이 우리 나라의 국정을 잠정적으로 통치하게 되었다.

미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1945년 9월 17일 자문 기관인 한국 교육 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의 건의로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을 일반 명령 제 4 호로 발표하였다.

1945년 9월 29일 학무국은 일반 명령 제 4 호를 개정하여 법령 제6 호로 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교훈 용어는 조선어로 하되, 조선어로 상당한 교훈 교재를 활용할 때까지 외국어를 사용함도 무방함,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과목은 교수하거나 실습하지 아니할 것 등의 지시였다(미 군정청 관보, 1945. 9. 29.).

중등 학교 이상의 학교에 대하여는 각 도에 별도의 통첩을 보내 중등학교 교과 과정은 별항과 같은 내용으로 하되, 실업학교는 중등학교 교과 과정 실업 과목을 넣어서 교수하도록 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1970, 함종규, 1984: 26에서 재인용). 이 통첩에 의한 중등학교 교과목 편제와 시간 배당은 <표 1>과 같다.

<표 1>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기의 중등 학교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

(1945. 9. 30.)

교과 학년	교과														
	공민	국어	지리 역사	수학	물리 화학	가사	재봉	영어	체육	음악	습자	도화	수예	실업	계
1 중학	2	7	3	4	4	-	-	5	3	1	1	1	-	1	32
고녀	2	7	3	3	3	2	2	4	2	2	1	1	1	-	33
2 중학	2	7	3	4	4	-	-	5	3	1	1	1	-	1	32
고녀	2	7	3	3	3	2	3	4	2	2	-	-	1	-	32
3 중학	2	6	4	4	5	-	-	5	3	2	-	1	-	2	34
고녀	2	6	3	2	4	4	3	4	2	2	-	1	1	1	35
4 중학	2	5	4	4	5	-	-	5	3	2	-	-	-	3	33
고녀	2	5	3	3	4	4	4	4	2	2	-	1	1	1	36

※ 중학 : 남자 중등 학교, 고녀 : 고등 여학교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I, 서울 : 탐구당, 1970, p.173을 인용한 유봉호, 한국 교육과정사 연구, 서울 : 교학 연구사, 1992. p.284에서 재인용함.

이러한 교과 편제나 시간 배당은 일제 강점 말기의 중등 학교 교과 및 시간 배당을 근간으로 하여 광복 직후 중학교를 개교하기에 앞서 갑자기 정한 것으로서 어떤 일관된 철학적 입장도 세우지 못한 채, 다만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우리 민족의 손으로 자주적 교육을 하려는 염원 아래 임시로 정한 것이라 하겠다. 교과목은 일본 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수신과(修身科)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공민과를 신설한 점, 일본어 중심의 국어를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인 국어로 바꾼 점, 일본 역사 대신 우리 국사로 대치시킨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21)</sup>.

당시의 중등학교는 현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한 학제로 4년제였으며, 실업학교도 포함하고 있었다. 실업학교는 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실업 과목만을 넣어서 교수하도록 하여, 인문계 중등학교와 실업학교 사이의 교과 편제상 차이는 실업 과목을 제외하고는 별 차이가 없었다.

수업 시수는 1 주일에 32~36 시간으로 1 일 평균 5~6 시간 정도이며, 교과목의 중점은 국어가 5~7 시간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 수학 교과목의 비중이 컸다.

## 2. 교수 요목기(1946~1954)

교수요목기의 교육과정은 1946년 9월 20일 제정된 국민 학교, 초급 중학교(중학교 전기 3년), 고급 중학교(중학교 후기 3년)의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을 말한다.

2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Ⅰ 총론 -, 서울 : 대한교과서(주), 2000. p. 34.

교수요목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급 중학교(중학교 4, 5, 6학년)의 교과 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 호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공포,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1946년 2월 13일에 학제가 6-6-4제로 개편이 되어 중등 학교의 경우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광복 직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수 요목이 없었다. 다행히 국어는 조선어 학회에서 지어 낸 ‘중등 국어 독본’이 있었고, 국사는 진단 학회에서 마련한 ‘국사’가 있었으나, 여타 교과는 학교 자율 또는 지역적 노력에 의하여 교수 요목을 만들고 교재를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1946년 2월 21일 ‘교수 요목 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 요목을 제정하였다.

조선 교육 심의회에서 결정된 새 학제가 적용되는 1946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군정청은 일부 교수 요목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1946년에 제정된 교수 요목을 분석해 보면, 국어와 영어 과목의 교수 요목은 교수 요지, 교수 방침, 교수 사항, 교수의 주의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학과 이과의 교수 요목은 제목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교수 목표나 지도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교수요목기의 고급 중학교의 교과 과정표는 <표 2>와 같다.

<표 2> 교수 요목기의 중학교 4, 5, 6 학년 교과 과정표

(1946. 9. 20.)

필수 과목	제4 학년	제5 학년	제6 학년
국 어	3	3	3
사 회 생 활	5	6	5
수 학	5	0	0
과 학	5	5	0
체 육 보 건	3~5	3~5	3~5
외 국 어	0~3	0~3	0~3
계	21~26	16~21	11~16
선택 과목			
국 어	2	2	2
사 회 생 활	(5)	(5)	(5)
수 학	0	5	5
과 학	0	0	5
외 국 어	5	5	5
음 악	1~3	1~3	1~3
미 술	1~3	1~3	1~3
심 리	0	0	5
실 업	5~18	5~20	5~25
합 계	39	39	39

- ※ 1. 필수 과목 중 외국어는 영어로 하며, 선택 과목 중 외국어는 중어, 불어, 노어, 독어로 함.
- 2. 선택 과목 중 사회 생활은 특수 경제 지리를 과하되, 매주 5 시간씩 1년간 4, 5, 6 어느 학년에서든지 교수할 수 있으며, 또 어느 생도나 이를 선택할 수 있음.

3. 실업은 농업, 상업, 공업, 가정, 경제, 기타 지방의 실정에 적응한 학과로 함.
4. 선택 과목은 문교부장의 허가를 요하며, 그에 대한 설비 및 교수 내용은 국정 표준에 의할 것.
5. 일주 15 시간 이상의 실업을 선택하는 자에 한하여는 체육보건을 3 시간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외국어를 필수로 아니 할 수 있음.

출처 : 함중규, 미 군정 시대의 교육과 교과 과정, 서울 : 한국 교육 개발원, 1984, p. 30.

교과 과정표를 중학교 1, 2, 3학년 교과 과정표와 중학교 4, 5, 6학년 교과 과정표로 구분해서 편제한 이유는 당시의 학제가 중등 교육을 6년제의 한 학교로 만들 수 있는 한편 초급 중학교 또는 고급 중학교를 단설할 수 있도록 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함중규, 1984: 30-31).

교과 편제에서 특이한 점은 ① 공민, 역사, 지리가 사회 생활과로 통합된 점, ② 체육과 보 건이 합해져서 체육·보건으로 된 점, ③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 점 등이다.

이 때의 교수 요목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에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다. 둘째, 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 등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교육 이념인 홍익 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 애족의 교육을 강화하였다(문교부, 편수자료 I, 1990: 3).

### 3. 제 1 차 교육과정기(1954~1963)

####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 1 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 호로 제정, 공포된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1955년 8월 1일 문교부령 제 44 호, 제 45 호, 제 46 호로 각각 공포된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사범 학교 교과 과정을 말하며, 법령상의 명칭이 교과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교과 교육과정 시기 또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 시기라고 한다.

제1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총론에 해당하는 문교부령 제35호의 별표 4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와 각론에 해당하는 문교부령 제46호 고등학교 및 사범 학교 교과 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21호로 개정, 공포된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표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제1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1954. 4. 20.)

교과목	학년		1년	2년	3년	내 용	
	시간 수						
필수교과	국어(I)		시간 140(4)	시간 140(4)	시간 105(3)	현대인의 국어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고전 일부를 넣음.	
	사회	일반 사회	105(3)	105(3)	35(1)	정치, 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지리와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민주 사회와 공민적 자질을 신장함.	
		도 덕	35(1)	35(1)	35(1)	윤리, 도덕을 중심으로 예의를 올바르게 지도함.	
		국 사	-	105(3)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역사를 연구함.	
	수 학		140(4)	-	-	1차 함수, 2차 함수, 대수, 함수, 3각 함수, 기타 일반 교양으로 필요한 일반 수학의 기초를 연구함.	
	과 학		140(4)	-	-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필수로 과한다.	
	체 육		35(1)	35(1)	35(1)	건강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와 도수, 욱상경기, 구기, 기계 체조, 수영, 율동, 체력 검사 등의 실기 지도.	
	음 악		140(4)			성악, 악기, 작곡, 감상에 대한 지도와 연구, 도화, 공작, 서도의 실기 및 그 감상에 대한 지도 연구함.	
	미 술						
	실업·가정		105(3)	105(3)	105(3)	실업·가정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습득시킨다.	
소 계		770(22)	490(14)	420(12)			
선택교과	국어(II)		105(3)	105(3)	105(3)	현대문, 고전, 문법, 문학, 어학사, 문학사, 한문 등에 관하여 연구.	
	사회	세계사	-	105(3)		현대 세계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세계 문화의 유형과 그 발전의 역사를 고찰함.	
		지 리	105(3)		-	인문 지리를 중심으로 함.	
	수학	해 석	-	105~210(3~6)		수학(I)의 기초 위에 해석을 연구함.	
		기 하	-	70~140(2~4)		수학(I)의 기초 위에 기하를 연구함.	
	과학	물 리	140(4)			물체의 성질, 원자 물리의 기초 지식에 관하여 연구함.	필수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화 학	140(4)			무기 화학, 유기 화학의 기초 지식에 관하여 연구함.	
		생 물	140(4)			동물, 식물, 생리, 위생을 중심으로 생물 전반에 관하여 연구함.	
		지 학	140(4)			지질, 광물을 중심으로 하고, 천문, 기상, 해양도 함께 연구함.	

선 택 교 과	보 통 과 정	교 련	140(4)	140(4)	140(4)	남자 학생에게는 필수로 과한다. 군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훈련하여 아울러 심신의 단련을 꾀함
		철학·교육	-	210(6)		논리, 철학 개론, 교육 원리, 교육사, 교육심리학, 교육 방법 등 중에서 그 기초를 연구함.
		체 육	0~210(0~6)			체육, 음악, 미술 중에서 선택함.
		음 악				
		미 술				
	외 국 어	영 어	0~175 (0~5)	0~175 (0~5)	0~175 (0~5)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중에서 하나 또는 둘을 선택하되 문장, 문법에 대한 기초 능력, 회화 능력 및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독 일 어				
		불 란서어				
		중 국 어				
	전문 과정	실업, 기타 전문 에 관한 교과	0~420 (0~12)	0~770 (0~22)	0~770 (0~22)	
특별 활동		70(2)	70(2)	70(2)		
총 계		1190~1365 시간 (34~39)	1190~1365 시간 (34~39)	1190~1365 시간 (34~39)		

※ 괄호 내의 숫자는 매주 평균 수업 시간량을 표시함.

출처 : 문교부령 제35호,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별표 4,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1954. 4. 20.

교수 요목은 짧은 기간에 요목을 제정하느라 다른 교과와의 일관성 결여 등 임시 방편적인 성격이 강하여 1948년 정부 수립과 1949년 교육법 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다. 교육법 제 155 조에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각 교과의 교수 요지, 요목 및 수업 시간 수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문교부는 이에 근거하여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교육과정 제정에 착수하였다.

6·25 전쟁을 겪게 되면서 그 계획은 일단 중단되었으나, 정부가 부산에 옮겨져 있던 1953년 교육계 및 기타 각계의 권위자를 망라하여 교육과정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계속하였다.

이 위원회는 전후 29회의 토의를 거쳐 교수 요목기의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제1차 교육과정 제정의 기본 원칙 수립을 통해 각급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을 작성하고,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 호로 공포하였다.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정해지자, 이의 후속 작업으로 교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전체 위원회가 세운 기본 원칙에 따라 각 과 과정을 성안하여 전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55년 8월 1일 각급 학교 교과 과정을 공포하였다.

이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 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제 1 차 교육과정이라 부른다.

제 1 차 교육과정기는 흔히 교육과정 개념상 교과 교육과정 강조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한

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제 2 조에 “본령에서 교육과정이라 함은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한 규정과 문교부령 제 46 호가 공포된 관보(공보실, 관보 제1374호, 1955. 8. 1)에 “고등학교 및 사범 학교 교과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로 되어 있는 등 법령상의 명칭에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과 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나.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이나 목표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교과 과정의 머리말에 제시된 ‘본 과정 제정의 기본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2)</sup>

첫째, 사회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계획안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수 있는 포부와 이념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둘째, 육성하여야 할 인간의 구체적 자태를 밝히고 그 구현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를 구현할 방도로서의 계획안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학생의 인격 발전의 과정과 그 주요한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내용을 학생의 심신 발달 과정과 생활 이상에 맞도록 배열하였다.

넷째, 내용은 적절 필수량의 최소량이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극히 필요 적절한 것에 그쳐, 그 수와 양을 최소한도로 제한하여야 한다. 따라서 엄선한 최소량의 것으로 하여 학습의 부담을 경감하며, 그 중복, 혼란, 과중을 막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육과정은 유기적 통일체로서 각 내용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구 교육은 단편적 지식인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서는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으로서 학생의 각 방면의 욕구를 고루 충족하며, 그 개성을 최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교육과정의 내용은 시대와 지역의 요구에 적응하여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 특히 요청되는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 등이 강조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도록 유의하였다.

일곱째, 교육과정은 융통성이 있고,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부령으로서 시행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풍부한 자료 단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과정 운용상의 주의’에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육 계획과 교과 경영의 기준이라 하고, 각 학교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사회의 특수성과 학생의 실정이 알맞은 독자적 연구와 창의를 기하여야 함을 강조하여 밝히고 있다(교육부, 1999: 194).

22)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 총론 -(1954~1997), 대한교과서(주), 1999. pp. 192-194.

##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1차 교육과정의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선형 6-3-3-4 학제의 기본 취지를 교육과정령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인문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단일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단일 교육과정을 제시한 이유는 단선형 학제에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는 교육 이념은 교육의 기회 균등으로 학생들에게 계열에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학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여 계열에 따라 서로 다른 교과목을 배우거나 교과목의 시간 배당을 달리한다면, 인문계 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실업계 학생은 인문계 계통의 상급 학교 진학의 기회를 제약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유봉호, 1992: 319). 이러한 이유로 인문 고등학교와 실업 고등학교의 교과 구성을 같은 표로 구성하여 최소한의 필수 과목을 공통으로 함으로써 정도의 차이나 질적인 저하를 없이 하는데 유의하였다.<sup>23)</sup>

둘째, 필수 교과 외에 선택 교과를 두어 학생들 각자의 적성 및 취미 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선택 교과는 학교장이 선택 결정 할 수도 있고 학생으로 하여금 선택케 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교과와 과목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교과에 대하여는 「과」라는 말을 붙이기로 하고, 과목에 대하여는 「과」라는 말을 붙이지 않기로 하였다(교육부, 1999: 195).

셋째, 교육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으로 특별 활동이 편성되어,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2개 영역으로 처음 편제되었다.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제6조에 의하면 특별 활동이라 함은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 이외의 기타 교육 활동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집회 기타 민주적 조직 하에 운영되는 학생 활동에 관한 것
- (2) 학생의 개인의 능력에 의한 개별 성장에 관한 것
- (3) 직업 준비 및 이용후생에 관한 것
- (4) 학생의 취미에 관한 것

넷째, 반공·도의 교육이 사회 생활 과목에서 단위 수준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회과에 도덕 과목을 신설하여 매 학년 연간 35시간(주 1 시간)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였다.

다섯째, 교과 시간 배당에 있어 사회(국사, 세계사, 지리),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음악, 미술 등의 교과목의 경우에 2년 또는 3년간 이수할 총 시간수로 제시되어 있어 어느 정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며, 선택 과목 중 수학(해석, 기하), 외국어 등 일부 교과목의 경우 교과별 기준 시간을 급간으로 표시하여 선택 과목 운영의

23) 김용만, “제1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도서 편찬”, 허강 외, 한국 편수사 연구(I), 한국 교과서 연구 재단, 2000. p. 172.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여섯째, 일반 고등학교에서 실업·가정과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농업, 공업, 수산업 및 가정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실업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업 기타 전문에 관한 교과 과정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업 고등학교 기타 전문 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 전문 과정 중 실업 기타 전문에 관한 교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제22조에 의해 따로 문교부령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은 1958년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다.

## 라. 부분 개정

1956년 4월 24일 문교부령 제53호로 야간제 고등학교(야간 수업을 하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를 제정하였다. 야간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교과목은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국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 이외의 일부 교과목에 대해 이수 시수를 감축하여 줄으로써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1958년 6월 5일 문교부령 제 76 호로 문교부령 제35호의 제22조를 개정하여 실업 고등학교의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를 공포하고, 실업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교과 시간 배당 기준, 각 학과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할 교과목을 예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실업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전문 과정 중 실업 기타 전문에 의한 교과의 선택과 그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였다. 계열은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계, 가정계, 예술계로 구분하였다. 둘째, 각 계열별 학과에서 반드시 선택하여야 할 필수 선택 교과목의 명세표를 제시하였다. <표 4>의 예시표에 의하면 각 학교의 장은 수업 시간 배당에 있어서 공통 필수, 전문 교과(필수, 선택)로 나누어 편성하되, 실업 기타 전문 교과에 대하여는 계열별 필수의 경우 제 1 학년에서는 연 315 시간, 제 2 학년과 제 3 학년에서는 각각 연 385 시간 이상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표 4> 제1차 교육과정기의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 예시표

(1958. 6. 5.)

교과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계	내용
공통 필수	전문 이외의 일반 교과	665(19)	385(11)	315(9)	1,365(39)	국어, 사생,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부령 제35호 별지 4에 의함)
	교련	140(4)	140(4)	140(4)	420(12)	
	특별활동	70(2)	70(2)	70(2)	210(6)	
	소계	875(25)	595(17)	525(15)	1,995(57)	
전문 교과	필수	계열별 필수	315(9)	385(11)	385(11)	1,085(31)
	선택	계열별 선택	0~175 (0~5)	210~285 (6~11)	280~455 (8~13)	490~1,015 (14~29)
합계		1,190~1,3 65 (34~39)	1,190~1,3 65 (34~39)	1,190~1,3 65 (34~39)	3,570~4,0 95 (102~117)	

※ 공통 필수는 실업 고등학교로서의 공통적인 필수 교과이며, 전문 교과 중 계열별 필수는 농업 필수 등과 같이 각 계열별로 지정한 필수 교과를 말한다. 예시표에는 전문 교과의 경우 각 계열별로 교과와 배당 시간이 제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전 계열의 공통 부분만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출처 : 문교부, 실업 고등학교 및 기타 전문 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문교부령 제 35호, 제22조), 1958. 6. 5.(유인물), pp. 3~10.

## 4. 제 2 차 교육과정기(1963~1974)

###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 2 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 119 호, 제 120 호, 제 121 호, 제 122 호로 제정, 공포된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를 경험 중심 교육과정 또는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21호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제122호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 350 호로 개정, 공포된 교육과정령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으로는 교육과정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교육부, 1999: 196).

첫째, 제1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상당한 시일도 경과되었다. 그 동안 문화는 발달되고 국내의 정세는 급격히 변동되어 사회생활의 양상은 크게 변하였으므로 전면적으로 개정하여야 하게 되었다.

둘째, 구 교육과정은 제정 당시의 비정상적인 사회 상태와 여러 가지 애로나 제약으로 충분한 내용 설정을 하지 못하였고,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한국 고유의 교육 목표도 설정하지 못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도 단편적인 지식의 주입에 편중된 나머지 인격의 도야에 소홀하였고, 학습 활동도 표방하는 경험주의와는 멀리 실생활과의 유리가 심하여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1958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며 자료 수집에 힘써 오던 중, 5·16 군사 정변을 계기로 하여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으로 공포하였다.

생활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비교적 서로 단절된 일군(一群)의 교수 요목이나 지적인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은 제 2 차 교육과정의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특히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에서 "교육과정은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험 여하에 따라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교육과정을 정의하고 그 성격을 밝히고 있다.

또,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의 내용, 교육과정의 조직, 교육과정의 운영면에서 각각 강조점을 두어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1) 자주성의 강조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형성하려는 인간상은 막연하고도 보편적인 민주적 공민이 아니라,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기르려고 하였다.

(2) 생산성의 강조에서는, 종전의 소비 생활에 편중되었던 학습 내용을 재검토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만들고, 먹고, 입고, 사는 데 필요한 적당한 방법을 습득시켜 우리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태도와 기능을 길러 나가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3) 유용성의 강조에서는, 교육 내용과 방법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도록 하고, 학습 지도는 지식(이해)의 습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기능)의 습득과 인격(태도)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국가 사회의 절실한 요구, 학생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교육함으로써 쓸모 있는 사회인이 되게 하고, 또 자활할 수 있는 실천인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의 조직에서는 합리성을 강조하였다.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각급 학교 간의 연결, 각 학년 간의 관련, 각 교과목의 계통적 발전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학교 교육은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 사회의 학교는 국가적 기준에 의거하여 각 지역 사회의 실정

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학교에서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 나.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시 사회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인간상의 특징과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을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 민주적 신념이 확고하고 반공 정신이 투철하며, 민주적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학습 경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독립 자존의 민족적 기풍과 아울러 국제 협조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 (3)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과 유용한 기능 및 과학적 생활 태도를 기르는 데 직결되는 학습 경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학습 활동을 충분히 포함하여야 한다.
- (5) 건전한 정신과 강건한 신체를 가진 국민을 양성하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 (6) 국민 생활을 순수하고 명랑하게 하는 심미적인 정서 생활을 위하여 풍부한 개성을 개발하여야 한다.
- (7) 형식적, 추상적 지식에 치우쳤던 반공·도덕 교육을 쇠퇴하여 일관성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교육에 주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의 요점’에서는 교육과정의 계열화와 학교급별 계열화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발전적 계통 학습을 강조하고 필요 불가결한 최소의 내용 요소를 엄선하여 기초 학력을 충실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학교급 간의 연계성(articulation)과 아울러 교과 간의 통합성(integration)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의 계열화와 학교급별 계열화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발전적 계통 학습이 되도록 하였고, 필요 불가결한 최소의 내용 요소를 엄선하여 기초 학력을 충실히 하도록 하였으며, 관리 교육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과에서 필요한 단원을 설정하도록 하였다(문교부, 1989: 26-27).

####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2차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별도로 공포했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 과정’을 합쳐 일련의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공포함으로써 교육과정령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명칭도 ‘교과 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 변경함으로써 교육과정이 교과 활동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에 대한 계획이란 뜻으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교육과정의 전개 체제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고, 총론에서는 각급 학교에 공통되는 개정의 취지, 일반 목표, 개정의 요점을 제시한 다음, 학교급별로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고, 교과 활동, 특별 활동별로 운영 계획이나 지도상의 유의점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각론에서는 각 교과별로 개정의 요점,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나누어 진술하여 체제면에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전개 체제를 갖추었으므로 제2차 교육과정은 적어도 체제면에서는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었다.

제2차 교육과정의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지도 계획은 원칙적으로 단위제에 의하도록 하였다. 단 학교의 실정이 단위제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학년제, 또는 단위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는 고등학교 3 년간에 이수해야 할 총 단위 수를 과목별로 표시한 것이며, 여기서 1 단위는 50분을 단위 시간으로 하여 한 학기(18 주 기준) 동안 18 단위 시간을 이수함을 말한다.

배당 기준표에 제시된 이수 교과목 및 이수 단위 수는 각 과목별로 3 년간 이수하여야 할 총 단위 수를 표시하고 있어 학년별 이수 단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였다.

<표 5> 제2차 교육과정기의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 과목 단위 시간 배당 기준표  
(1963. 2. 15.)

교과	과목	단위수	교과	과목	단위수	
국어	국어 I	24	음악	음악 I	6	
	국어 II	18		음악 II	42	
미술			미술 I	6		
				미술 II	42	
사회	일반 사회	4	실업	농업 일반	14	
	국민윤리	4		농업 일반 관리	4	
	정치·경제	4		농업 기타 과목	38	
	국사	6		공업	공업 일반	14
	세계사	6			공업 일반 관리	4
	지리 I	6		공업 기타 과목	38	
	지리 II	6		수산	수산 일반	14
		수산 일반 관리	4			
수학	공통 수학	8	상업	수산 기타 과목	38	
	수학 I	12		상업 일반	14	
	수학 II	26		상업 일반 관리	4	
과학	물리 I	6	가정	가정 일반	14	
	물리 II	12		가정 일반 관리	4	
	화학 I	6		가정 기타 과목	38	
	화학 II	12	외국어	영어 I	1 과목 또는 2 과목	
	생물 I	6		영어 II		
	생물 II	6		독어		
	지리학	4		불어		
체육	체육	24		중국어		

출처 : 문교부령 제121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63. 2. 15.

<표 6>에 제시된 교과목별 단위 수를 보면, 계열의 구별 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하여야 할 공통 과목의 단위 수는 104 단위이다. 그리고 인문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은 100 단위를, 자연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은 110 단위를, 직업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은 104 단위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능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을 위한 교과와 단위 수는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인문 과정에 준하여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직업 과정에 제시된 실업과 교과목의 과정은 실업 고등학교의 실업계 교과목 교육과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표 6> 제2차 교육과정기의 과정별 교과 과목 단위 시간 배당 기준

공통 과목		인문 과정	
국 어 I	24 단위	국 어 II	18 단위
일 반 사 회	4 "	정 치 · 경 제	4 "
국 민 윤 리	4 "	지 리 II	6 "
국 사	6 "	수 학 I	12 "
세 계 사	6 "	물 리 I	6 "
지 리 I	6 "	화 학 I	6 "
공 통 수 학	8 "	지 학	4 "
생 물 I	6 "	농 업 일 반	
체 육	24 "	공 업 일 반	14 "
음 악 I	6 "	수 산 일 반	(남) 1 과목
미 술 I	6 "	상 업 일 반	
일 반 관 리	4 "	가 정 일 반(여)	14 "
		외 국 어	30 "
		(영어 II, 독어, 불어, 중국어 중에서 1 또는 2 과목)	
계	104 단위	계	100 단위

자연 과정		직업 과정	
지 리 II	6 단위	한 문	6 단위
수 학 II	26 "	작 문	4 "
물 리 II	12 "	정 치 · 경 제	4 "
화 학 II	12 "	지 리 II	6 "
생 물 II	6 "	수 학 I	12 "
지 학	4 "	물 리 I	6 "
농 업 일 반		화 학 I	6 "
공 업 일 반	14 "	지 학	4 "
수 산 일 반	(남) 1 과목	농 · 공 · 상 · 수 산	
상 업 일 반		각 과목 중(남)	38 "
가 정 일 반(여)	14 "	가 정(여)	38 "
외 국 어	30 "	(또는 가정 일반 14 단위와 농 · 공 · 상 · 수 산 과목 중 24 단위)	
(영어 II, 독어, 불어, 중국어 중에서 1 또는 2 과목)		영 어 I	18 "
계	110 단위	계	104 단위

출처 : 문교

부령 제121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63. 2. 15.

둘째, 학생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따라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 처음으로 과정이 국가 수준에서 하나의 공식적인 제도로 도입되어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따라 인문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 예능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과정은 1학년 수료 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1학년에서는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고 2학년 이상에서는 장래의 희망에 따라 계열별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셋째, 특별 활동은 제1차 교육과정기와 같이 시간 배당 기준 표에 명시하지 않고, 총 단위 시간 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을 배당 시간 안에서 충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인문 과정의 경우 204 단위의 10%인 20 단위 이상을 특별 활동 시간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공통 과목과 인문 과정에 주어진 각 교과목의 배당 시수를 조절하여 특별 활동 시간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한 과목에서 배당된 시간의 5분의 1 이상을 특별 활동 시간으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넷째,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음악·미술 교과는 한 과목만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수도 증대시킴과 동시에 두 과목 모두를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 교육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학교에 교육과정 재구성권을 부여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서 지역성을 강조하며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교육과정 재구성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일반적 기준임을 밝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각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하여 충분한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 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기인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22호로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처음 제정되어 실업계 고등학교는 1963년 3월 1일부터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목의 종류에 따라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고등학교로 분류되는데, 이 모든 학교의 교과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하나의 표로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제2차 교육과정기의 실업 고등학교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표

(1963. 2. 15.)

보통 교과목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계	가정계
필수 교과목	선택 교과목	단위 수	단위 수	단위 수	단위 수	단위 수
국어 18	수학	8~16	8~16	8~16	6~16	6~12
일반사회 및 6	생물	4~6		6~16	8~16	4~6
국민윤리	화학	4~6	4~8	3 과목 중	2 과목 중	2~4
국사 4	물리	2~6	4~8	1 혹은 2	1 혹은 2	2~4
공통수학 8	지리	2~6	2~6		2~6	2~6
일반관리 4	정치·경제	2~4	2~4		0~4	2~4
체육 12	세계사			4~6		
	음악 또는 미술	2~6	2~6	2~6	2~6	4~6
	외국어	14~24	14~24	18~30	12~24	12~24
이수단위 52	이수단위	38~50	36~48	38~50	30~37	38~50
보통 교과목 소계		90~102	88~100	90~102	82~89	90~102
전문 교과목(필수, 선택) 소계		102~120	112~122	102~120	115~133	102~120
총계		204~222 (주당 34~37시간)	204~222 (주당 34~37시간)	204~222	204~222	204~222

출처 : 문교부령 제122호,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 1963. 2. 15.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이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교부령 제175호(1966. 10. 4)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으로 바뀌었다.<sup>24)</sup>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살펴보면 그 동안 각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교부령 제35호 제22조에 의한 “실업 고등학교 및 기타 전문 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에 의해 작성되고, 또 교육법 제156조에 의하여 30% 이상의 실업 과목을 과하여 왔다. 그러나,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에는 각 학교별 과목 총 시간수와 과목 내용이 간단히 설명되어 있을 뿐이고, 교과의 지도 목표나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제시가 없었다. 따라서 각 실업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작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됨이 없이 각 학교별로 관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각 학교에서 실천해 온 경험 등을 종합하여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작성하게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의 제정 방침을 살펴보면,

첫째, 실과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국가와 민족의 현실을 이해하게 하고, 장차 실업에 종사할 유능한 생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업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업량의 50% 이상을 실험 실습을 중심으로 한 실업 교과 학습 활동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둘째, 초·중·고등학교간의 일관성이다. 교육과정 계열을 합리화하여 초·중·고등학교 사이에 일

24) 1967년 4월 15일에는 문교부령 제181호로 교육과정령을 제정하여 각각 별도로 제정, 공포되었던 각급 학교 교육과정령을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은 교육과정령에 포함되어 별책 4로 되었다.

관성을 지니도록 하였다. 한편, 각 교과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같은 학교의 학년별 및 각급 학교 사이의 지도 내용을 중복이나 비약 없이 확립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발전적 계통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용성의 중시이다. 이론적 지식의 나열을 피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실용성 있는 학습경험을 선정하게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과목은 가급적 폐합 조정하여 지도하기 용이하게 하고, 보통 교과목은 민주적이고 건전한 국민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교과목만을 선정하였다.

넷째, 지역성의 강조이다. 지역 사회의 절실한 필요와 요구, 학생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과제를 중심으로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이 짜이도록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교과목의 내용과 단위 수에 많은 폭을 두고,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창의적 교육 활동을 존중하였다.

다섯째, 단위제 채택과 시간 계획의 융통성이다. 단위제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실업 고등학교 교육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학생의 진로에 맞는 융통성을 주어 더욱 국가적으로 유용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과목 선택의 융통성을 주었다.

한편, 특별 활동, 기타 교내 활동은 학교의 자율적 계획 밑에 융통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다만, 특별 활동은 교육과정 편성상의 유의점에서 총 이수 단위수의 5% 이상을 배당하되, 총 이수 단위수 안에서 배당하여야 하며, 보통 교과목과 전문 교과목의 어느 한쪽에서만 충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73년 2월 14일 문교부령 제310호로 개정되었다. 1973년에 개정된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은 <표 8>과 같다.

<표 8> 1973년 개정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 및 단위 수

(1973. 2. 14)

보통 과목(필수)	단위 수	보통 과목(선택)	단위 수
국민 윤리	6	한 문	2~4
국 어	14	실업 수학(I) 또는 실업 수학(II)	4~16
일반 사회	2	과 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중 필수 과목에서 이수하지 않은 과목)	4~12
국 사	4	지 리	2~6
공통 수학	8	세 계 사	2~6
과 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중에서 1 과목)	6	정치·경제	2~4
체 육	6	음 약	2~4
교 련	12	미 술	2~4
		산업 일반	2~4
		기술(남·여)	2~4
		기초 공학(남)	2~4
		가정(여)	4~10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에스파 니아어, 일본어 중에서 1 또는 2 과목)	6~24
이 수 단 위	58	이수 단위 공업계 10~32, 수산 해양계 10~24	10~44
소 계	68~102	공업계 68~90, 수산 해양계 68~82	
전 문 과 목	102~154	공업계 114~154, 수산 해양계 122~154	
총 계		204~222	

출처 : 유봉호, 한국 교육과정사 연구, 서울 : 교학 연구사, 1992. p. 363.

## 마. 부분 개정

1969년 2월 19일 문교부령 제207호에 의해 교련 교과가 신설되었다. 교련은 제1차 교육과정기에 주당 4시간씩 남학생에게 필수로 이수시켰으나, 1963년 제2차 교육과정 공포시에는 편제에서 빠졌었다. 그러나,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사건과 울진·삼척 무장 간첩 침입사건, 프예블로호 납치사건 등을 계기로 국가 안보와 반공 교육 강화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sup>25)</sup> 이를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는 공통 과목 이수 단위를 조정하여 체육을 24단위에서 18단위로 줄이고, 교련을 12단위 신설하여 총 이수 단위는 104단위에서 110단위로 늘어나게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목 중 필수 교과목에서 체육을 12단위에서 8단위로 줄이고 교련 12단위를 신설하여 필수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52단위에서 60단위로 8단위가 늘어나게 되었다.

1969년 9월 4일 문교부령 제 251 호로 개정이 있었는데, 1968년 국민 교육 헌장의 선포,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대입 예비 고사제 실시에 따라 문교부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우선 가장 긴급을 요하는 것을 부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국민 교육 헌장의 이념 구현과 한글 전용 계획 등 정부 시책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25) 다만,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시행일은 따로 문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개정령에 의하면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은 교과 활동, 생활 지도, 반공 도덕 및 학교 행사를 통하여 구현하도록 하였다. 편제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국어 I에서 한자 교육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국어 II에 있는 한문 과목을 6단위에서 8단위로 증대하여 국어 II의 이수단위가 18단위에서 20단위로 2단위 늘어났다. 이는 1970년부터 한글을 전용하는 계획에 따라 한문 교육은 더 강력히 추진하되 국어 시간만은 한글 전용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

둘째, 사회 교과내의 국민 윤리 4 단위를 반공 및 국민 윤리 6 단위(실업계 고등학교는 5단위)로 하고 그 중 반공을 위한 교육 활동 2 단위, 국민 윤리 4 단위(실업계 고등학교는 3단위)로 재배정하여 지도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업·가정 교과와 단위 수를 조정하여 실업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남·여 공히 필수인 기술 과목을 신설하고, 일반 관리 과목을 산업 일반 과목으로 변경하여 모든 학생에게 필수로 부과하는 외에, 공업에 관한 내용 중 기초적인 것을 선정한 기초 공학 과목을 신설하여 남학생은 과정별 선택에서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제 2 외국어 과목에 에스파니아어를 신설하였다.

다섯째, 특별 활동의 시간 배당이 전체 교과 활동의 비율로 제시(10% 이상, 실업계의 경우 5% 이상)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특별 활동 시간 배당을 단위로 제시(18 단위 상당 이상, 실업계의 경우 10단위 상당 이상)하고, 그 내용도 학급 활동,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집단 활동으로 구체적인 영역을 신설하였다.

그 결과 각 과정별 총 이수 단위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의 단위 배당을 비교해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1963년과 1969년의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 단위 배당 비교

과 정 별	연 도	1963년	1969년
인 문 과 정		204 단위	214 단위
자 연 과 정		214 단위	222 단위
직 업 과 정		208 단위	216 단위
예 능 과 정		204 단위	214 단위

출처 :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89. p. 31.

1971년 2월 19일 문교부령 제274호로 사회 교과 내에 있던 반공 및 국민윤리 과목을 삭제하고 국민윤리 교과로 독립시켰다. 교과와 제시 순서도 국어과 앞에 국민윤리를 배치하여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73년 2월 14일 문교부령 제310호로 개정이 있었는데, 제2외국어 과목에 일본어를 신설하여 제2외국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국어(Ⅱ)(한문)을 한문으로 과목명을 변경하였다.

1973년 8월 31일 문교부령 제 325 호로 민족 고유의 문화를 찾고 기르며, 국적 있는 교육의 터전을 넓히기 위하여 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를 강구하였다.

## 5. 제 3 차 교육과정기(1973~1981)

###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 3 차 교육과정은 1973년, 1974년에 걸쳐 제정, 공포된 문교부령 제 310 호, 제 325 호, 제 350 호, 제379호인 국민 학교,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부른다.

제3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350호로 교육과정령의 별책 3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1976년 2월 23일 문교부령 제379호로 교육과정령의 별책 4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각각 개정, 공포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422 호로 개정, 공포된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이 시행되기 까지 유효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1968년에 국민 교육 헌장이 선포되고, 1969년 이래 국적 있는 교육이 제창되면서 민족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는 한편,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되었다.

문교부는 1969년에 보고된 '장기 종합 교육 계획 심의회 교육과정 연구반'의 1980년대의 교육 계획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한 건의를 반영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조사, 여론 조사를 거쳐 1970년 초 다음과 같은 개편 방침을 마련하였다(문교부, 1989: 33).

- (1) 국민 교육 헌장 이념을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시킨다.
- (2) 팽창하는 지식의 양에 대응하여 기본 개념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 (3) 교과와 편제를 재조정하여 「반공·도덕 생활」을 「도덕」으로 하고 교과화 한다.
- (4) 학년별 주당 시간을 증배한다.

이러한 개편 방침에 따라 1971년 6월부터 교육과정 전문 학자 및 편수관이 중심이 되어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준비로 제 2 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분석 작업을 하는 한편, 1972년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종합 고등학교, 교육 연구 기관 등 230 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문교부는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연구 및 여론 조사를 토대로 1973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수차례 걸친

심의회와 교육과정 전문가 및 편수관들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를 거치는 등 종합 조정 절차를 거쳐 1974년 10월에 시안을 확정하였다. 이어 한국 교육 학회, 대한 교육 연합회 등의 주최로 개최된 2 차례의 공청회, 여론 청취 등을 바탕으로 재검토, 수정의 과정을 거쳐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 350 호로 교육과정령을 공포하게 되었다.

제 3 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각 학문 간에 내재해 있는 지식 탐구 과정의 체계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며 제2차 교육과정에서의 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방향은 ‘기본 방침’의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이라는 항목 속에 표현되어 있다(문교부, 1989: 33-34).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제 3 차 교육과정의 주요 이념이 된 것은 국민 교육 헌장 이념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창조의 정신을 기르자는 주체성이 강조되었으며, 제 3 차 교육과정은 국민 교육 헌장에 나타난 교육의 지표인 (1)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개인 윤리면), (2) 협동 정신(사회, 도덕, 윤리면), (3) 국민 정신(국민 윤리면)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 나.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 3 차 교육과정은 국민 교육 헌장 이념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1)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 (2)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3)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둘째, 인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1) 가치관 교육의 강화, (2) 비인간화 경향의 극복, (3) 근면성과 협동성의 양양을 강조하였다.

셋째, 지식·기술 교육을 쇄신하기 위해서, (1) 기본 능력의 배양, (2) 기본 개념의 파악, (3) 판단력과 창의력의 함양, (4) 산학 협동 교육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에 제시된 정신을 고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성 방침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되, 중견 국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고등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으로서 특징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한다.

둘째, 고등학교 학생은 가치관이 확립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므로, 지적인 학습과 정의적인 학습을 조화시켜 지성, 덕성 및 풍부한 정서를 균형 있게 갖춘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

셋째, 고등학교 학생은 개성이 뚜렷해지는 시기에 있으므로,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

아 실현을 이룩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학습 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게 한다.

넷째, 지식과 기능 교육은 기본 능력을 배양하고 기본 개념을 파악하며, 판단력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것이 되도록 한다.

위와 같은 기본 방침, 일반 목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유봉호, 1992: 353-354).

첫째,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을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반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의 교육이 지향할 좌표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1949년에 공포된 교육법의 교육 방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방침 또는 지표가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

둘째, 다가올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깊이 통찰하고, 이에 대비하는 교육의 목표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세 문제들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긴박한 문제였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국적 있는 교육과 기대되는 한국인상 정립에의 요청에 부응하여 민족 주체 의식을 지니고,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를 창조할 수 있으며,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을 기본 방침으로 내세웠다. 또,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인간성의 소외, 도시화에 따른 지식·정보량 및 그 수요의 폭증에 대응한 지적 탐구 방법을 강조하였으며, 과학적 지식과 유용한 기술을 생산에 적용시키려는 산학 협동을 강화하였다.

셋째,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정선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교과목의 내용 조직에서 지식 구조의 체계화에 의한 학교급별, 학년별 계열성을 더욱 뚜렷이 할 것과, 내용의 선택에서 기본 개념과 학문의 원리 및 기초 이론을 일관된 지식 구조의 체계 하에서 전개하는, 이른바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으로 할 것, 그리고 학습의 방법 면에서 기억 위주나 단순한 경험의 방법이 아니라 발견, 탐구의 과정과 기본 개념 이해 과정을 강조하였다.

넷째, 제 2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한국적 현실과 국가 정책적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의 교육 이념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리 풍토에 알맞은 민주적 인간을 육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올바른 국가관, 국민 연대 의식, 국토 및 자원의 보존과 개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각 등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의지를 반영하였다.

####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 3차 교육과정은 제2차 교육과정에 비해 교육과정의 전개 체제가 더욱 체계화되었다. 총론은 구성의 일반 목표와 학교급별 교육과정으로 나누고, 구성의 일반 목표에는 기본 방침,

일반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학교급별 교육과정에는 구성 방침,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을 제시하였다.

각론은 각 교과별로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목표는 교과 전반에 해당하는 일반 목표와 각 학년별 목표로 나누어 진술함으로써 그 위계와 체계가 분명하도록 하였다.

편제는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나누고, 교과 활동은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과 과정별 선택 교과목으로 나누었다.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제3차 교육과정기의 인문계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표

(1974. 12. 31.)

교과	과목	단위 수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 단위 수	과정별 선택 교과목 단위 수		
				인문	자연	직업
국민윤리	국민윤리	6	6			
국어	국어 I	20~24	20~24			
	국어 II	8~10		8~10		
국사	국사	6	6			
사회	정치·경제	4~6	택 2 8~12	공통에서 제외된 3과목 12~18		
	사회·문화	4~6				
	세계사	4~6				
	국토지리	4~6				
	인문지리	4~6				
수학	수학 I	14~18	14~18			
	수학 II	8~14			8~14	
과학	물리	8~10	택 2 16~20		공통에서 제외된 2과목 16~20	
	화학	8~10				
	생물	8~10				
	지구과학	8~10				
체육	체육	14~18	14~18			
교련	교련	12	12			
음악	음악	4~6	4~6			
미술	미술	4~6	4~6			
한문	한문 I	4~6	4~6			
	한문 II	4~6		4~6		
외국어	영어 I	10~12	10~12			
	영어 II	10~12		10~12	10~12	

		독 일 어	10~12		택1	택1	
		프랑스 어	10~12		10~12	10~12	
		중 국 어	10~12				
		에스파니아 어	10~12				
		일 본 어	10~12				
실업·가정에 관한 교과	실업	기 술 (남)	8~10	택 1 8~10	18		
		농 업	8~10				
		공 업	8~10				
		상 업	8~10				
		수 산 업	8~10				
	가정	가 정 (여)	8~10	18			
		가 사 (여)	8~10				
직업에 관한 교과목		44~64				44~64	
자유 선택 교과목		0~6		0~6	0~6		
소 계			140~160	44~64	44~64	44~64	
교과목 총 이수 단위 수				192~210	192~210	192~210	
특별 활동		12		12	12	12	

※ 1. 체육, 음악, 미술의 3 과목의 이수 단위 합계는 26 단위가 되어야 한다.

2. 여학생 중, 필요에 따라서는 가사 대신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중에서 택할 수도 있다.

출처 : 문교부령 제350호, 교육과정령, 별책 3.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1974. 12. 3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중심으로 제3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정 개설권을 확대하였다. 학생의 진로 선택에 따라 2학년부터 인문, 자연, 직업 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직업 과정에 준하여 체육, 예능, 외국어 및 기타 과정을 들 수 있게 하였다.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은 과정의 구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이수시키고, 과정별 선택 교과목은 해당 과정 학생에게 이수시키도록 하였다. 1학년에서는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을, 2, 3학년에서는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과 과정별 선택 교과목을 이수시키되, 2학년에서는 과정별 선택 교과목에 배당된 단위 수를 가급적 적게 이수시키도록 하였다.

둘째, 과목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제 2 차 교육과정에서 인문 과정 214 단위, 자연 과정 222 단위, 직업 과정 216 단위 등 과정별로 이수 단위를 고정시켰던 것을 제 3 차 교육과정에서는 과정별 구별 없이 3년간 이수하여야 할 총 단위 수는 특별 활동을 포함하여 204~222 단위로 이수 단위에 폭을 두어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교과목별 이수 단위에도 폭을 둬으로써 교과 운영 면에서도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셋째, 과목별로는 외국어와 한문 교육을 강화하였다. 외국어(영어 I, II, 제2 외국어)의 경우 제 2 차 교육과정에서는 3년간 30 단위였던 것을 최저 30 단위에서 최고 36단위로 조정하였다. 한문은 제 2 차 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계 학생에게만 국어 II에서 8 단위를 교육해 오던 것

을 교과로 독립시켜 한문 I·II 과목을 개설하고, 인문·자연·직업 과정 모두 필수로 한문 I 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인문 과정은 한문 II 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술교육을 강화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제 2 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산업 일반, 기초 공학 및 기술 등 3 개 과목을 기술로 묶어서 필수 과목으로 하고,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중에서 1 개 과목을 선택하게 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산업 일반, 기술(여)을 가정으로 묶어 가사 과목과 함께 필수 과목으로 하였다. 다만, 여학생의 경우 가사 대신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게 하였다.

다섯째, 자유 선택 교과목을 교육과정상 처음으로 설정하였다. 이수 단위는 0~6 단위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였다. 자유 선택 교과목은 2과목 이내로 하고, 1과목의 이수 단위는 최저 2단위가 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특별활동은 일반 교과 시간과는 별도로 독립시켜 3년간 12 단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교과목의 이수 단위를 일부 조정하였다. 체육, 음악, 미술의 3 개 과목의 이수 단위 합계는 제 2 차 교육과정 시기의 36 단위를 26 단위로 감축하였다. 교과목에 붙은 I, II의 구별에 혼동이 많았던 것을 필수 과목에는 I, 과정별 선택 과목에는 II를 붙임으로써 교과목의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과목에 대한 통합도 이루어졌는데, 국어 교과목의 경우 작문·문법을 국어II에, 수학 교과목의 경우 수학I·II 및 공통 수학을 수학I·II로, 과학 교과목의 경우 물리 I·II, 화학 I·II, 생물 I·II를 각각 물리, 화학, 생물로, 음악, 미술 교과목의 경우 음악 I·II, 미술 I·II를 각각 음악, 미술로 통합하였다. 실업 교과목의 경우에는 기초 공학, 산업 일반을 기술로 통합하였다.

## 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3차 교육과정기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76년 2월 23일에 문교부령 제 379 호로 개정되어 총론은 1977학년도부터, 각론은 1977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제3차 교육과정기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

(1976. 2. 23.)

보통 과목(필수)	단위 수	보통 과목(선택)	단위 수
국민 윤리	6	사회·문화	2~4
국어	14	세계사	2~6
국사	4	지리	2~6
정치·경제	2	수학 II	4~16
수학 I	8	과학	4~12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중 1 과목)	6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중 필수 에서 이수하지 않은 과목)	
체육	6	음악	2~4
교련	12	미술	2~4
		한문	2~4
		외국어	6~2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에스파니아 어, 일본어 중 1 또는 2 과목)	
		기술(남)	4~6
		가정(여)	6~10
이수 단위	58	이수 단위	8~44 공업계 8~32 수산·해운계 8~24
소계	66~102	공업계 66~90 수산·해운계 66~82	
전문 과목	102~156	공업계 114~156 수산·해운계 122~156	
총계		204~222	

출처 : 문교부령 제379호, 교육과정령 별책 4,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1976. 2. 23.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의 기본 방침과 이러한 개편 방침에 따라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봉호, 1992: 363-365).

첫번째,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의 구현과 두번째, 기본 개념의 중시는 다른 각급 학교의 기본 방침과 같다. 그 외 다음의 7개 항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징적인 개편 기본 방침이다. 즉, 셋째, 계열 학과 및 교과목을 조정한다.

이것은 동일계 실업 고교 안의 유사 학과를 묶어 기초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동시에 각 학과 안에서의 선택 교과목의 폭을 넓혀 더욱 세분된 전문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화된 산업 사회의 현실적 요청에 대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예를 들면, 화학과, 화학 공업과, 화학 기계과를 화학 공업과로, 기계 공작과, 목형 주물과, 주물과, 판금 용접과를 기계과로 하였다. 그리고 가사·실업계를 신설하고 계열별로 필요한 학과를 설치하였다. 그 예로 농촌 지도과, 농업 기계과, 통신과, 식품 공업과, 조선편, 식품 조리과, 보육과 등이 있다.

넷째, 전문 교과목을 조정한다. 유사 학과를 종합하거나 산업 분화 및 학과 신설에 따라 교과목을 신설하였다. 농업계 6 과목, 공업계 18 과목, 상업계 2 과목, 가사·실업계 2 과목이 통

합되고, 농업계 32 과목, 공업계 50 과목, 상업계 9 과목, 수산계 21 과목, 가사·실업계 20 과목이 신설되었다.

다섯째, 전문 교육을 강화한다.

여섯째, 실험 실습을 강화한다.

일곱째, 산학 협동 교육을 강화한다.

여덟째, 각 과목의 지도 내용을 산업 발전에 적용하도록 한다.

아홉째, 각 교과목의 편제는 계열별, 학과별로 필수 및 선택을 표시하고 그 체계를 통일하는 것이다.

### 마. 부분 개정

1977년 2월 28일에 문교부령 제 404 호로 개정이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 교과를 <표 12>와 같이 개정하여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의 경우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5개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던 것을 정치·경제 과목은 필수로 과하고 나머지 4 과목 중 1과목을 필수 선택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표 12> 제3차 교육과정기의 인문계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표(사회)

(1977. 2. 28)

교과	과목	단위 수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 단위 수	과정별 선택 교과목 단위 수		
				인문	자연	직업
사회	정치·경제	4~6	택 1 4~6	공통에서 제외된 3 과목 12~18		
	사회·문화	4~6				
	세계사	4~6				
	국토 지리	4~6				
	인문 지리	4~6				

출처 : 문교부령 제404호, 교육과정령 별책 3.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1977. 2. 28.

둘째, 교육법 제10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과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특별 활동의 내용을 대폭 개선하고, 특히, 특별 활동의 활동 영역 가운데 학생회 활동을 학도 호국단 활동으로 바꾸고 학생회 대신 학도 호국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1979년 3월 1일에는 교육과정 전체의 체제 통일, 자구 수정, 맞춤법 통일 등 체제 정비를 하여 문교부 고시 제 424 호로 고시하였으나, 교육과정의 법적 성격이 문교부령에서 문교부 고시로 바뀐 것 외에는 교육과정의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sup>26)</sup>

## 6. 제 4 차 교육과정기(1981~1987)

###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 4 차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에 문교부 고시 제 422 호로 제정, 고시된 유치원,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22호의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88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88-7 호로 개정,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5 공화국 출범을 맞이한 1980년대 초의 정치적, 사회적 특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와 함께 이에 대처할 적절한 새 교육과정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러한 필요에서 정부는 1980년에 7·30 교육 개혁 조치를 단행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문교부는 각급 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개발에 관한 연구를 1980년 9월 12일에 한국 교육 개발원에 위탁하였다. 따라서, 제 4 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연구·개발(R & D)형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문교부, 1989: 39).

한국 교육 개발원은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와 총론 및 각론 개정시안을 문교부에 보고하였고, 문교부에서는 공청회와 교육과정 심의회를 거쳐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442 호로 확정, 고시하였다.

제 4 차 교육과정은 제 3 차 교육과정이 지닌, 수업 시간과 학습 내용의 과다, 학습자의 수준에 비추어 어려운 교육 내용, 교과목 위주의 분과적인 편제, 기초 교육과 일반 교육의 소홀, 인간 교육의 미흡 등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지식의 학문성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적 유용성 면에서 적합하도록 정선하고 그 수준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었다.<sup>26)</sup>

또, 7·30 교육 개혁 조치에 따른 교육 방향 전환에 대한 대책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현실과 이에 파생되는 제 요구의 반영 필요 등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 목적은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보완(기초 교육·일반 교육 강화, 전인 교육·인간 교육의 강화),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의 추진(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과열 과외의 잠재 요인 제거), 국민 정신 교육의 강화(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 반영) 등이다(문

26) 교육과정이 문교부령에서 문교부 고시로 바뀌어 고시됨에 따라, 문교부령 제442호(1979. 3. 10.)에 의해 교육과정령은 폐지되었다.

27) 한국 중등교육협의회, 중·고등학교 신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 1984. p. 2.

교부, 1989: 40).

제 4 차 교육과정의 이념이나 교육과정 사조 또는 이론상의 특징은 어느 한 사조나 이념만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이 아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종래의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의 입장이나 접근 위에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의 정신이 반영되었고, 지금까지 소홀히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도 반영되어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교육과정이 되게 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1981: 15-22).

#### 나. 기본 방향 및 목표상의 특징

제 4 차 교육과정은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으로 (1) 건강한 사람, (2) 심미적인 사람, (3) 능력 있는 사람, (4) 도덕적인 사람, (5) 자주적인 사람을 제시하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인간을 길러 내는 데 부합되는 방향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국민 정신 교육의 체계화, 전인 교육의 강화, 과학 기술 교육의 심화,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에 두고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강조하였다(문교부, 1989: 40).

교육 목표에 있어서 제3차 교육과정에는 명문화된 목표가 없었으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목적을 두고 9개항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총괄 목적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며, 자신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를 다음과 같이 9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sup>28)</sup>

- (1) 강인한 체력, 풍부한 정서, 굳센 의지를 길러 건전한 심신을 가지게 한다.
- (2) 취미를 살려 여가를 선용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 (3) 정확한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신장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한다.
- (4) 자연 및 사회 현상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여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 (5)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평생 교육에 필요한 자질을 가지게 한다.
- (6) 양심과 도덕적 원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자율적 태도를 가지게 한다.

28) 문교부, 연수자료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한국원호복지공단, 1982. pp.32-34.

- (7) 인간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이해하며,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8)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정의 사회 구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며, 봉사와 협동 정신으로 공동 생활에 참여하고,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 (9) 우리의 민족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국가 수호와 평화 통일 의지를 가지게 한다.

####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인문계, 실업계, 기타계로 각각 별도로 제시되어 있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단일화시켰다. 제4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은 <표 13>과 같다.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중심으로 제4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문교부, 1982: 34-35).

첫째,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공통 필수인 보통 교과를 전 과정의 40~60%의 비중으로 강화하여 전인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하였다.

둘째, 미래의 고도 산업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초 과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각 과목을 I 과 II로 구분하고 I 은 필수로 정하였다.

<표 13> 제4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1981. 12. 31)

교 과	과 목	보 통 교 과				전 문 교 과
		공통 필수	일반계 고교 선택		일반계 고교 직업 과정,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 선택	
			인문·사회 과 정	자 연 과 정		
국민 윤리	국민 윤리	6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기타 계열에 관한 교과
국 어	국어(I, II)	14~16	14~18	8~10	3~8	
국 사	국 사	6(4)				
사 회	사회(I, II)	4~6(2~6)	4		택 1 2~6	
	지리(I, II)	4~6 (2~6) *	4			
	세 계 사	2(2) 택 1	2			
수 학	수학(I, II)	8~14	6~8	10~18	4~18	
과 학	물리(I, II)	4~6		4	택 1~2 4~12	
	화학(I, II)	4~6		4		
	생물(I, II)	4~6		4		
	지구 과학 (I, II)	4~6		4		

체 육	체 육	6~8	8~10	8~10	4~8	
교 련	교 련	12				
음 악	음 악	택 1	택 1	택 1	택 1	
미 술	미 술	4~6	4~6	4~6	2~6	
한 문	한문(I, II)		8~14	4~6	4~6	
외 국 어	영어(I, II)	6~8	14~16	14~16	6~16	
	독 일 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택 1 10~12	택 1 10~12	택 1 6~10	
	중 국 어					
	일 본 어					
실 업 · 가 정	산업 기술		택 1 8~10	택 1 8~10	택 1 4~8	
	가 정					
	농 업					
	공 업					
	상 업		택 1 8~10	택 1 8~10		
	수 산 업					
	가 사					
자유 선택			0~8	0~8	0~8	
이수 단위 소 계		88~102 * (72~84)	90~116	90~116	10~38	일반계 고교 직업 과정: 52~106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 82~122
이수 단위 합계		192~204				
특별 활동		12~				
총 계		204~216				

- ※ ① 각 과목의 단위 수는 3년간에 이수해야 할 단위를 표시한 것이며, 공통 필수( ) 안 숫자와 \* 표시는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등학교의 이수 단위를 밝힌 것이다.
- ② I 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기준)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 ③ 과목( I, II)에서 I은 공통 필수 과목이며, II는 과정별 선택 과목이다.
- ④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 과정,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학교 실정에 따라 10~38 단위를 선택한다.
- ⑤ 과정 및 계열별 선택 과목은 공통 필수에서 이수하지 않은 과목의 선택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의 3교과 이수 단위 합계는 26 단위가 되어야 한다.

출처 : 문교부 고시 제442호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1981. 12. 31.

셋째, 개방적인 국제 사회에서의 기본 교양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과의 세 과목(사회, 지리, 세계사)을 필수로 하였으며, 이 세 과목은 인문·사회 과정과 자연 과정 학생들의 적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내용 수준별로 I, II를 두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한 교과목 또

는 관련 교과목을 통·폐합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통합 조정하여 사회 I 과 II로 재조정하였으며, 국토 지리와 인문 지리를 통합 조정하여 지리 I 과 II로 나누었다.

넷째, 교육 내용의 분량을 조정하여 전체 이수 단위를 축소하였다. 즉, 인문계 204~222 단위, 실업계 216~234 단위에서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가 동일하게 204~216 단위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1 단위는 1 시간씩 18 주 이수하던 것을 17 주 이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다섯째, 제3차 교육과정에서 ‘자유 선택 과목’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0~6 단위였으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유 선택 과목의 이수 단위를 0~8단위로 늘리고 선택의 범위도 논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 등으로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자유 선택 과목을 설정할 때에는 반드시 2 개 이상의 과목을 제공하여 학생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그 외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특별 활동에 관한 변화이다. 특별 활동은 학급 활동, 학도 호국단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4 개영역이었으나 학급 활동과 학도 호국단 활동을 통합하여 학도 호국단 활동으로 하여 클럽 활동, 학교 행사와 함께 3 개영역으로 편성하고, 학도 호국단 활동과 클럽 활동에 각각 1 시간씩 배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목의 이수 단위를 줄여줌으로써 수준이 조절되도록 하였고,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상의 각 과목별 기준 단위 수를 없애고 제시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이수 단위 합계 범위 안에서 과목의 선택과 과목당 단위 수의 결정을 학교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계열별 학과 편제는 제3차 교육과정기의 구분을 유지하였으나 전문 분야별로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고, 관련 학과에서는 세분화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였다. 또한 각 계열별로 목표를 두었으며, 계열별 학과의 목표도 설정하였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 교과목의 필수 과목은 학과별로 고정하여 제시하고 선택 과목은 학과 구분 없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표 14> 제4차 교육과정기의 실업 및 기타 계열의 전문 과목 편제(상업계)

(1981. 12. 31)

구분	학과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상업계	상업과	상업 개요, 경영 개요, 상업 부기, 전자 계산 일반, 상업 계산, 상업 실천, 타자	상업 법규, 상업 계산, 마케팅, 상업 실천, 상품, 부기 회계, 공업 부기, 세무 회계, 무역 업무, 상업 영어, 경제 지리, 문서 사무, 타자, 경영 통계, 프로그래밍, 자료 처리, 전자 계산기 실무, 상업 미술, 상업 서예, 기타 과목
	회계과	상업 개요, 경영 개요, 상업 부기, 전자 계산 일반, 상업 계산, 부기 회계, 공업 부기	
	무역과	상업 개요, 경영 개요, 상업 부기, 전자 계산 일반, 무역 업무, 상업 영어, 타자	
	정보처리과	상업 개요, 경영 개요, 상업 부기, 전자 계산 일반, 프로그래밍, 자료 처리, 타자	

출처 : 문교부 고시 제442호,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1981. 12. 31.에서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이경환 외,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 2002: 112-114).

## 라. 부분 개정

1985년 12월 17일 문교부 고시 제 85-10 호로 교련과와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교련과는 군사 기능에 치중된 제4차 교육과정에 국민 정신 교육 영역을 대폭 보완, 조정하였다. 국민 정신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군사 기능 내용을 통합, 축소 조정하였다. 그리고 여자 고교 지도 내용에 '독도법'을, 남자 고교 지도 내용에는 '체력 단련'을 추가하였다.

특별 활동은 학도호국단 설치령이 폐지됨에 따라 학도 호국단 활동을 학생회 활동으로, 학도 호국단 규정을 학생회 규정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내용과 운영 지침을 수정, 보완하여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 7. 제 5 차 교육과정기(1987~1992)

###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 5 차 교육과정은 1987년, 1988년에 걸쳐 개정, 고시된 문교부 고시 제 87-7 호, 제 87-9 호, 제 88-7호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88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88-7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92년 10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 1992-19 호로 개

정,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 4 차 교육과정 개정까지는 나름대로의 사회적 제 상황의 변화에 부응한다거나 학문적 경향의 변화에 따른다는 비교적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제 5 차 개정은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의 사용 기간이 5~7 년을 넘을 수 없다는 행정상의 이유가 교육과정의 개정을 서두르게 하였다.

문교부는 제 5 차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으로 (1) 교육 철학, 학문 내용, 교육 방법의 변화, (2) 경제적 발전과 사회의 변화, (3) 현행 교육과정 고시 이후 7 년 경과, (4)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5)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제시하였다.

문교부는 1985년 6월 17일 제 5 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 추진 계획을 한국 교육 개발원에 통보하고, 1986년 2월 19일 유치원, 국민 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연구를 한국 교육 개발원에 위탁하였다.

이어서 1987년 1월 12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연구, 개발을 한국 교육 개발원에 위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교육 개발원은 제 4 차 교육과정과 제 5 차 유치원·초·중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였다.

문교부는 한국 교육 개발원이 1987년 11월에 제출한 답신 보고서를 가지고 심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1988년 3월 31일에 문교부 고시 제 88-7 호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제 5 차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교부는 제 4 차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꼭 개선해야 할 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문교부, 1989: 46-47). 그러나, 제 4 차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을 보완하려 했던 문교부의 당초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 개발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전면 개정 형식의 교육과정이 되었다.

교육과정 사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교과 중심, 생활 중심, 학문 중심 등과 같이 어떤 색깔을 띠는 것이 아닌 종합적 성격을 띠는 것은 제 4 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유봉호, 1992: 407).

제5차 교육과정이 '지역화'와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제 4 차 교육과정 때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의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체제를 서서히 지방화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하나의 기준으로서 열개가 되는 준거만 제시하고 차차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점으로서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효율화는 한 마디로 쓸모 있는 교육과정이 되게 한다는 의미로서 국가 기준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의도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 나.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 5 차 교육과정은 자율화,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되는 고도 산업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21 세기를 주도할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을 기르고, 다가올 복지 국가 건설과 반드시 이룩해야 할 조국 통일에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인간상을 표방하면서 제시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문교부, 1989: 46-49).

첫째, 기초 교육의 강화이다. 학교 교육에서 꼭 정착시켜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정선하여 기초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기초적, 기본적인 것으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고력, 기초 체력, 도덕성 등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특성들이 교과 편제, 시간 배당, 목표 및 내용 선정 등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운영면에 있어서도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이다.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내용을 정선, 추가, 보완하였다. 정보 산업 과목을 신설하고, 모든 교과목에 걸쳐 주체성과 창조력, 사고력 등을 강조한 것과 사회과에 있어서 경제 교육 내용을 크게 강화한 것을 비롯하여 환경 교육, 진로 교육 등을 강조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효율성의 제고이다.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교육과정이 의도한 것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쓸모 있는 교육과정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 및 내용과 교과서 및 생활 기록부 양식 등과의 불일치, 시간(단위) 배당 기준의 지나친 경직성, 교육 내용 및 방법의 획일성,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의 제한 등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주성과 융통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전 학년에 걸친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 교육 내용의 지역화 운영, 단위 배당에 있어서 기준 단위제의 최초 도입, 교과서 편찬시의 학습량의 기준 제시 등은 이와 같은 교육과정 효율성 제고의 측면을 중시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특별 활동을 강조한 점(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의 훈련, 다양하고 풍부한 인격 형성을 위해 필요한 특별 활동 본연의 영역 외에 학교 활동에서의 생활 지도 영역을 특별 활동 내용에 삽입시키고 학급 활동 영역의 내용을 강화한 것), 특수 학급 운영 지침을 명시한 점(교육 가능한 정신 박약아, 약시, 난청 등 특수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국민 정신, 환경, 성, 경제, 컴퓨터, 해양 교육 등)의 체계적 반영 등에 개정의 중점을 두었다(유봉호, 1992: 418).

###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각 교과별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제5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각 교과별 단위 배당 기준

(1988. 3. 31.)

교과	과목	보통 교과				전문 교과	
		공통 필수	과정별 선택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실업계, 기타계 및 일반계 직업 과정		
국민윤리	국민윤리	6	(6)				
국어	국어 어학 작문 문법	10	(10)	8	8	4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과학에 관한 교과 체육에 관한 교과 예술에 관한 교과
			(4)	6	4		
국사	국사	6	(4)				
사회	정치·경제	6	(4)				
	한국 지리	4	(4)				
	세계사 사회·문화 세계 지리			4	4	4	
수학	일반수학	8	(8)	10		6	
	수학 I 수학 II				18		
과학	과학 I	10	(8)	8	8	4	
	과학 II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8)	택 1				
체육	체육	6	(6)	8	8	4	
교련	교련	12	(12)				
음악	음악	4	(4)			2	
미술	미술	4	(4)				

한 문	한 문		8	4	4
외국어	영 어 I	8	(8)	12	8
	영 어 II			12	8
	독 일 어			택 1	택 1
	프랑스 어 에스파냐 어 중 국 어 일 본 어			10	10
실업 · 가정	기 술			택 1	택 1
	가 정			8	8
	농 업 공 업 상 업 수산업 가 사 정보 산업			택 1	택 1
				8	8
교양 선택			2	2	2
이수 단위	실업계기타계: 82~122 직업 과정: 50~100				
특별 활동	12	(12)			
이수 단위 총계	204~216				

※ ① 1 단위

는 매주 50 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 학기(17 주 기준)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 한다.

② 공통 필수( )안 숫자는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기준 단위 수를 표시한 것이다.

③ 과학 I은 생물, 지구 과학 영역, 과학 II는 물리, 화학 영역이다.

출처 : 문교부 고시 제88-7호, 별책 1. 고등학교 교육과정, 1988. 3. 31.

편제는 제 4 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나누고,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다.

다만, 특별 활동 영역이 제 4 차에서는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3개영역 이었던 것이 학급 활동, 클럽 활동, 학생회 활동, 학교 행사의 4개영역으로 바뀐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치 활동, 자율 활동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당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수단위의 표시를 급간제에서 기준 단위제로 변경하였다. 즉, 종래의 급간 또는 범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던 수치 중에서 최소 단위를 기준 단위로 정하고, 2 단위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물론 이 때의 총 이수 단위는 204~216 내에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증감 운영은 기준 단위가 2~4 단위인 교과목은 해당되지 않으며, 6 단위 이상인 교과목에 있어서도 교과목별로 2단위까지만 감축 운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회적, 학문적 발전과 요구에 따라 일부 교과목을 통·폐합 또는 세분화하였다.

국어과에서는 국어 I 과 국어 II로 분류한 것을 공통 필수인 국어와 과정 선택인 문학, 작문, 문법으로 세분하여 인문·사회 과정은 3 과목, 자연 과정은 2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사회과에서는 사회 I·II, 지리 I·II, 세계사로 분류하여 영역 분류상 모호했던 것을 정치·경제, 한국 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세계 지리 등으로 과목명을 분명히 하였다. 과학과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과목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물리 I·II, 화학 I·II, 생물 I·II, 지구 과학 I·II의 8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과학 I·II,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의 6과목으로 통합하고, 인문·사회 과정은 2 과목(과학 I, 과학 II)을, 자연 과정은 4 과목(과학 I, 물리, 화학, 생물과 지구 과학 중 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 및 컴퓨터 활용 능력, 과학 기술 발달의 필요, 성 역할 개념 변천에 의한 남녀 공통 이수가 가능한 교과목의 설정 필요 등을 고려하여 실업·가정 교과에 정보 산업이라는 과목을 신설하고 선택 과목으로 부과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셋째, 교과목의 이수 단위를 일부 조정하였다. 사회 I(정치·경제)과 지리 I(한국 지리)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4~6 단위인 것을 6 단위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2~6 단위를 4 단위로, 세계사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의 자연 과정에서 2 단위를 4 단위로 조정하였다. 수학은 인문·사회 과정은 14~22 단위에서 18 단위로, 자연 과정은 18~32 단위를 26단위로 각각 조정하였다.

또, 자유 선택을 교양 선택으로 개정하고, 교육학, 논리학, 심리학, 철학, 생활 경제, 종교 중에서 학생의 필요,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종래의 0~8 단위에서 2 단위 이상을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하였다. 교양 선택을 최소 2 단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 것은 교양 교육을 통하여 전인적 교육을 도모하겠다는 뜻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선택과목으로 종교를 부과할 때에는 학교장은 앞에서 제시한 과목을 포함, 복수 과목을 설정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넷째, 특별 활동에서 학급 활동을 강조하였다. 제 4 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급 활동이 학생회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학급 단위로 학생들의 자율성과 교사의 활동 지도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학급 활동을 학생회 활동에서 분리시켰다. 또한 특별활동에 배당된 단위는 학급 활동 및 클럽 활동에 한한 것이므로, 학생회 활동과 학교 행사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기타계의 경우 체육 계열 외에 과학 계열, 예술 계열 등의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과학계열, 예술계열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편제는 <표 16>과 같다.

<표 16> 제5차 교육과정기의 과학 및 예술 계열의 전문 과목 편제

(1988. 3. 31.)

구분	학과	필수 과목	선택 과목
과학계		일반수학, 수학Ⅱ, 과학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물리실험, 화학실험, 생물실험, 지구과학실험, 컴퓨터과학Ⅰ, 과학사	수학Ⅲ,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물, 고급지구과학, 컴퓨터과학Ⅱ, 과학철학, 원서강독, 전자과학, 워크숍, 개인연구Ⅰ, 개인연구Ⅱ
예술계	음악과	시창·청음, 음악이론, 음악사	성악, 기악, 작곡, 합창, 합주, 실내악, 연주, 교양성악, 교양기악, 반주법, 기타 과목
	미술과	소묘, 미술이론, 미술사	회화, 조소, 디자인, 서예, 미술이론, 기타과목
	무용과	동작법, 무용이론, 무용사, 창작실습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통무용, 무용음악, 기타 과목

출처 : 문교부 고시 제88-7호,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1988. 3. 31.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여섯째, 실업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중 기타 과목의 경우 타 계열의 전문 교과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각 학과에서 기타 과목으로 택할 수 있는 교과목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다만, 어느 계열에도 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는 경우, 학교장은 그 과목명, 단위 수, 목표 및 지도 내용을 정하여 사전에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도 하도록 하였다. 기타 과목의 단위 수는 14단위를 넘을 수 없게 하였다.

## 라. 부분 개정

1990년 1월 22일 문교부 고시 제 90-1 호로 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 과정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직업 기술 교육의 실효를 기하고자 하였다.

- (1) 일반계 고등학교는 2학년부터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및 직업 과정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나, 인문, 사회, 자연 과정에서 직업 과정으로의 변경은 3학년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2) 직업 과정에서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을 이수할 경우 증감 운영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 실정에 따라 적절히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단, 보통 교과의 이수단위 소계가 104~154단위가 되도록 하였다.
- (3) 직업 과정의 전문 교과는 실업계 해당 계열 교육과정에 준하여 50~100단위를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실업계 해당 계열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 (4) 직업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문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지역 및 학교 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는 경우 학교장은 그 과목명, 단위 수, 목표 및 지도 내용을 정하여 사전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2) 교육과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계열 또는 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8. 제 6 차 교육과정기(1992 ~ 1997)

###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 6 차 교육과정은 교육부 고시 제 1992-11 호, 제 1992-16 호, 제 1992-19 호로 개정, 고시된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6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92년 10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2-19호 별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7-15 호로 개정,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제6차 교육과정기에 처음으로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체제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 권한을 확대하였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중앙·지방·학교가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확립하였다.

제 6 차 교육과정은 20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점에서, 기초, 보통 교육의 교육 내용면에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와 교육 개혁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3월부터 교육부는 21 세기를 대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준비 단계에서 우선 교육과정 실험·연구 교 및 협력 학교를 지정하고,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한국 교육 개발원에 위탁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 6월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연구 책임자: 동국대 한명희)를 구성하여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총론 개정안 연구를 위탁하였다.

기초 연구 및 총론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전국 초·중등 교원 대표 세미나, 전국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 TV 공개 토론회, 신문지상 토론 및 보도, 총론 시안에 대한 검토 의견 조사(시·도 교육청, 교원 양성 대학, 연구 기관, 연구 학교 관

런 학회 등 60 개 기관)가 실시되어 전문가와 교육 관계자가 광범위하게 개정 연구에 참여하였고,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시안 및 개발 과정이 자세히 공개됨으로써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게 되었다.

총론 개정 시안은 교육과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1년 12월 28일에 총론이 먼저 확정되었다.

각 교과별 교육과정(각론) 개정 연구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의 전통적 기본 교과에 대한 개정 연구는 1991년 5월에 한국 교원 대학교와 한국 교육 개발원에, 기타 교과에 대해서는 1991년 10월에 한국 교육 개발원, 서울 대학교, 충남 대학교, 부산 수산 대학교, 인하 대학교 등 각 교과 교육 전문 연구 기관에 각각 위탁하여 1992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되었다.

개정 시안은 전국의 고등학교 및 정부 각 부처,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검토를 거쳐 교육부에 제출되었으며, 교육부에 제출된 개정안은 교육과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2년 10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2-19 호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고시되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교육법에 의거하여 고시한 교육과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의거하여 결정,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말하며, 이 기준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이 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성, 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이 핵심으로 구성되며, 이들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 구조적 요인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한다.

제 6 차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은 ①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②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③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등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sup>29)</sup>

첫째,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전담하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를 조정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하게 다양한 이수 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고 필수 과목을 축소하는 한편, 선택 과목을 확대하여 교육 내용의 획일성을 해소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학습량과 수준을 조정하고, 교과목 체계의 개선으로 교육 내용의 적합성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줄였다.

29)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총론 -, 대한교과서(주), 1995. pp. 99-105.

넷째,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를 고려하고 학습과 생활의 기초 능력을 신장하며,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다.

## 나.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 6 차 교육과정은 추구해야 할 인간상으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제시하였다. 이 인간상은 다음 몇 가지 원칙 위에서 도출되었다(교육부, 1995: 91). 첫째는 한국 교육 이념과 목적, 그리고 교육 방침을 기초로 하였고, 둘째는 21 세기 한국의 사회상과 교육적 필요에 비추어 요구되는 인간 특성을 고려했으며, 셋째는 제 5 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간 특성과의 연계성 유지를 고려하였다.

제 6 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교육 목표(이념), 내용(행동), 운영(방법), 제도(체제) 등의 네 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다(교육부, 1995: 105).

지금까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기본 방침은 주로 교육 목표와 내용에 국한시켜 설정해 왔다. 그러나, 제 6 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구조와 체제를 결정하는 것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 구성의 기본 방침을 목표, 내용면에 제한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과정 제도면까지 고려하여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즉,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목표, 내용, 운영, 제도의 네 측면의 핵심적인 강조점이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게 하고, 그 결과가 학교 교육의 실제에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은 4개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5: 106-112).

첫째,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을 육성한다. 이 방침은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와 특별 활동 모든 영역에 공통 교육 목표로서 작용하고, 이념적으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보편적, 공통적 방침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과 각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시에 이 첫째 번 기본 방침은 가장 중시되는 가운데 모든 교육 목표와 지도 중점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육 활동(교과 및 특별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 평가함에 있어서,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이 육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체험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부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한다. 이 방침은 주로 교육 내용 선정과 방법의 구안에 영향을 끼치는 기본 방침으로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인간 특성 중 교육을 통해 가장 중시해야 할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모든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 소재, 상황을 선정, 계획하고, 교육 방법, 자료 활용, 평가 등

에서도 창의성에 중점을 둔 교육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의도되어야 한다. 특히, 제 6 차 교육과정은 도덕성과 창의성을 강조하여 모든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와 특별 활동에 특히 중점을 두어 반영하는 가운데 편성, 운영되어야 할 기본 목표로 제시하였다.

셋째, 학생의 개성, 능력, 진로 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이 방침은 교육의 방법, 운영면을 고려한 기본 방침으로서,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며 경직된 교육 체제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며, 교육과정의 구성과 편성에 이 방침이 반영되도록 하여 교육의 다양성, 융통성, 탄력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에 의거해서, 공통 필수 과목만을 국가 수준에서 지정하고, 그 밖의 과목 선택 결정권을 시·도와 학교에 위임하고, 과정 설치권, 전문 과목 편성권, 이수 단위 증감권, 전문 과목 신설권, 보통 과목과 전문 과목의 교체 이수권 등의 재량권을 교육 현장에 부여하였다.

넷째,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제 6 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기본 지침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반영시킨 점이 획기적인 변화이다. 우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성격” 항을 신설하여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의 성격, 기능,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학교에서 구체적인 실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구성, 제정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각 시·도 교육청은 관내의 각 학교에서 구체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바르게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편성·운영 지침을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정해서 제공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 6 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과 ‘교과와 특별 활동’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1) 교육과정의 성격, (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3) 편제, (4) 단위 배당 기준, (5)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교과와 특별 활동에는 보통 교과와 특별 활동 및 전문 교과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다.

1992년 교육부 고시 제 1992-19 호로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제6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1992. 10. 30.)

가. 보통 교과

【표 1】

교과	공통 필수 과목	과정별 필수 과목	과정별 선택 과목
1. 윤리	윤리(6)		과정별 필수 과목에서 제외된 교과목 중에서 선택(8)
2. 국어	국어(10)	화법(4), 독서(4), 작문(6), 문법(4), 문학(8)	
3. 한문		한문 I (6), 한문 II (4)	
4. 수학	공통 수학(8)	수학 I (10), 수학II(10), 실용 수학(8)	
5. 사회	공통 사회(8) 국사(6)	정치(4), 경제(4), 사회·문화(4), 세계사(6), 세계지리(6)	
6. 과학	공통 과학(8)	물리 I (4), 물리II(8), 화학 I (4), 화학II(8), 생물 I (4), 생물II(8), 지구 과학 I (4), 지구 과학II(8)	
7. 체육	체육 I (8)	체육II(6)	
8. 교련		교련(6)	
9. 음악	음악 I (4)	음악II(4)	
10. 미술	미술 I (4)	미술II(4)	
11. 실업·가정		기술(8), 가정(8), 농업(6), 공업(6), 상업(6), 수산업(6), 가사(6), 정보 산업(6), 진로·직업(6)	
12. 외국어	공통 영어(8)	영어 I (8), 영어II(8), 영어 독해(6), 영어 회화(6), 실무 영어(6), 독일어 I (6), 독일어II(6), 프랑스어 I (6), 프랑스어II(6), 에스파냐어 I (6), 에스파냐어II(6), 중국어 I (6), 중국어II(6), 일본어 I (6), 일본어II(6), 러시아어 I (6), 러시아어II(6)	
13. 교양 선택			
이수 단위	70	106	12
특별 활동	학급 활동 (12) 클럽 활동 단체 활동 (4)		

※ ① 보통

교육을 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2 학년부터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 및 기타 필요한 과정을 들 수 있다. 다만 직업 과정으로의 변경은 3 학년에서도 가능하다.

② ( ) 안의 숫자는 단위 수이며, 1 단위는 매주 50 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 학기(17 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③ 체육 II, 음악 II, 미술 II는 <표 26>의 체육, 예술에 관한 전문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나. 전문 교과

【표 2】

교 과	과 목			학 과		
1. 농업에 관한 교과	농업 발전	농업 실습	농업 생산 환경	농업과 임업과 축산과 원예과 잠업과 자연농과 농업 토목과 식품 가공과 농업 기계과 생활 과학과 조경과 농산물 유통과 기타 학과		
	농업 경영	농업 기계	생물 공학			
	환경 보전	농업 공작	작물			
	임업	산림 토목	임업 경영			
	임산 가공	축산	영양·사료			
	채소	과수	화훼			
	시설 원예	양잠	건설표			
	농업 토목 설계	농업 토목 재료·시공	농업 수리			
	농지 개발	식품 가공	식품 과학			
	식품 위생	식품 미생물	식품 가공 기기			
	농업 동력	농작업기	농업 기계 요소·제도			
	농업 기계 공작	생활 과학	농가 경영			
	생활 원예	농촌 보건 위생	원예·조경			
	조경 계획	조경 시공·관리	농산물 유통			
	농산물 판매 관리					
	2. 공업에 관한 교과	공업 입문	제도		공업 실습	기계과
		기계 일반	전기 일반		공업 영어	전자 기계과
기계 설계		기계 공작	판금·용접	금속과		
기계 재료		기계 설계	공업 역학	자원과		
유체 기기		원동기	공기 조화 설비	전기과		
전자 기계		전자 기계 회로	금속 재료	전자과		
금속 제련		주조	금속 열처리	통신과		
금속 표면 처리		소성 가공	제선·제강	전자 계산기과		
자원 개발		자원 탐사	자원 처리	토목과		
화약·발파		자원 개발 기계	석재 가공	건축과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력	디자인과		
전기 설비		산업 전자	전기·전자 재료	화학 공업과		
전기·전자 측정		전기 응용	전자 이론	세라믹과		
자동 제어		전자 기기	공업 계측	식품 공업과		
전자 응용		계장	통신 이론	섬유과		
데이터 통신		통신 관계 법규	전자 계산기 구조	인쇄과		
시스템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I	측량	자동차과		
역학		토목 재료·시공	토목 설계	조선과		
수리·토질		토목 계획	건축 구조·시공	항공과		
건축 계획		건축 재료	건축 법규	기타 학과		
디자인 일반		디자인 재료	색채 관리			
광고·사진		공업 화학	화학 공학			
제조 화학		화공 계측 제어	환경 기술			

2. 공업에 관한 교과	세라믹 이론 세라믹 공업 식품 제조 공정 제직 인쇄 일반 특수 인쇄 자동차 전기 중장비 구조 정비 선박 건조 비행 원리 항공기 장비	세라믹 재료 도자기 섬유 재료 편성·봉제 인쇄 재료 인쇄 사진 자동차 정비 선박 이론 선박 의장 항공기 기체 항공 전자 장치	세라믹 공정 발효 공업 방직·방사 염색·가공 평판 인쇄 자동차 구조 차량 법규 선박 구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기관	
3. 상업에 관한 교과	상업 경제 상업 부기 상업 계산 상품 기업 회계 무역 업무 프로그래밍 II 경영 통계 그래픽 디자인 비서 실무	상업 실습 전자 계산 일반 상업 실무 문서 실무 원가 회계 상업 영어 자료 처리 상업 디자인 일반 컴퓨터 그래픽 속기	경영 개요 상업 법규 마케팅 유통 관리 일반 세무 회계 국제 경제 전자 계산 실무 상업 미술 비서 일반 사무 자동화 일반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 처리과 상업 디자인과 관광 경영과 비서과 기타 학과
4. 수산·해운 에 관한 교과	수산 일반 어업 해사 법규 선화 운송 수산 양식 수산 가공 열기관 기계 설계·공작 통신 운용 해양기상	해운 일반 항해 해사 영어 수산 경영 양식 생물 질병 냉동 기계 선박 보조 기계 통신 공학 통신 실험	수산·해운 실습 선박 운용 선박 일반 수산 생물 양식 시설 냉동 설비·설계 선박 전기·전자 전자 통신 기기 자동화 선박	어업과 양식과 자영 수산과 수산 식품과 동력 기계과 전자 통신과 냉동 기계과 항해과 선박 운항과 기타 학과
5. 가사·실업 에 관한 교과	자영 사업 일반 유아 교육 원리 노인 생활 지원 의복 구성 급식 관리 관광 일반 관광 영어 실내 디자인 기타	가사·실업 실습 유아 생활 교육 복식 디자인 영양과 식품 자수 호텔 업무 관광 일본어	인간 발달 노인 복지 의복 재료·관리 조리 한국 문양 여행 관리 주거	유아 교육과 의상과 조리과 자수과 관광과 실내 디자인과 기타 학과
6. 과학에 관한 교과	물리 실험 지구 과학 실험 컴퓨터 과학 I 고급 화학 과제 연구 I 과제 연구 II 기타	화학 실험 과학사 수학 III 고급 생물 컴퓨터 과학 II 워크숍	생물 실험 전자 과학 고급 물리 고급 지구 과학 과학 철학 원서 강독	

7. 체육에 관한 교과	체육 개론 체조 무용 수영 경기 사격 빙상 요트 스키 카누	스포츠 과학 수영 육상 경기 구기 경기 양궁 사이클 조정 펜싱 기타	육상 구기 체조 경기 투기 역도 골프 볼링 배드민턴	
8. 예술에 관한 교과	시창·청음 성악 합창·합주 음악 일반 미술사 디자인 동작법 무용 창작 현대 무용 기타	음악 이론 기악 실내악 소묘 회화 서예 무용 이론 한국 무용 전통 무용	음악사 작곡 연주 미술 이론 조소 미술 일반 무용사 발레 무용 음악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9. 외국어에 관한 교과	영어 독해 I 영어 회화 II 영어 문법 I 영미 문화 II 독일어 독해 I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 문법 I 독일 문화 II 프랑스어 독해 I 프랑스어 회화 II 프랑스어 문법 I 프랑스 문화 II 에스파냐어 독해 I 에스파냐어 회화 II 에스파냐어 문법 I 에스파냐어권 문화 II 중국어 독해 I 중국어 회화 II 중국어 문법 I 중국 문화 II 일본어 독해 I 일본어 회화 II 일본어 문법 I 일본 문화 II 러시아어 독해 I 러시아어 회화 II 러시아어 문법 I 러시아어 문화 II 기타	영어 독해 II 영어 작문 I 영어 문법 II 영어 청해 독일어 독해 II 독일어 작문 I 독일어 문법 II 독일어 청해 프랑스어 독해 II 프랑스어 작문 I 프랑스어 문법 II 프랑스어 청해 에스파냐어 독해 II 에스파냐어 작문 I 에스파냐어 문법 II 에스파냐어 청해 중국어 독해 II 중국어 작문 I 중국어 문법 II 중국어 청해 일본어 독해 II 일본어 작문 I 일본어 문법 II 일본어 청해 러시아어 독해 II 러시아어 작문 I 러시아어 문법 II 러시아어 청해	영어 회화 I 영어 작문 II 영미 문화 I 고급 실무 영어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작문 II 독일 문화 I 실무 독일어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 작문 II 프랑스 문화 I 실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회화 I 에스파냐어 작문 II 에스파냐어권 문화 I 실무 에스파냐어 중국어 회화 I 중국어 작문 II 중국 문화 I 실무 중국어 일본어 회화 I 일본어 작문 II 일본 문화 I 실무 일본어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작문 II 러시아 문화 I 실무 러시아어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에스파냐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이수 단위	82 ~			

※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는 【표 2】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82 단위 이상 이수한다.

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한다.

- ㉠ 농업 계열 : 농업 발전, 농업 실습, 전자 계산 일반
- ㉡ 공업 계열 : 공업 입문, 제도, 전자 계산 일반
- ㉢ 상업 계열 : 상업 경제, 상업 부기, 전자 계산 일반
- ㉣ 수산·해운 계열 : 수산 일반(수산), 해운 일반(해운), 수산·해운 실습, 전자 계산 일반

- ㉔ 가사·실업 계열 : 가사·실업 실습, 전자 계산 일반
- ㉕ 과학 계열 : 물리 실험, 화학 실험, 생물 실험, 지구 과학 실험
- ㉖ 체육 계열 : 체육 개론, 육상, 체조, 수영
- ㉗ 예술 계열 : 시창·청음, 음악 이론(음악과), 소묘, 미술 이론(미술과), 동작법, 무용 이론(무용과)
- ㉘ 외국어 계열 : 각 학과 해당 외국어 각 과목 I 및 청해

③ 전문 교과외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다음에 제시된 단위 이하로 배당한다.

- ㉑ 농업에 관한 교과 : 18 단위
- ㉒ 공업에 관한 교과 : 8 단위
- ㉓ 상업에 관한 교과 : 12 단위
- ㉔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 20 단위
- ㉕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 12 단위
- ㉖ 외국어에 관한 교과 : 8 단위

㉘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외의 실습 과목과 과학, 체육, 예술에 관한 교과외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가 정한다.

출처 :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별책,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2. 10. 30.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중심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편제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계, 실업계(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계, 체육계, 예술계 고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제시된 폐쇄형 체제였으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일반 교양 교육)와 전문 교과(직업 전문 교육)로 구분하여 모든 고등학교가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선택, 운영할 수 있는 개방형 체제로 개선하여, 고등학교의 성격과 교육 목적에 따라 필요한 교과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보통 교과는 계열과 과정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공통 필수 과목」만 교육부가 지정하고, 「과정별 필수 과목」은 시·도 교육청에서, 「과정별 선택 과목」은 각 고등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교육부가 고등학교의 이수 과목 전체를 결정하던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제에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요소를 도입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지역과 학교의 창의적 자율 재량을 확대하였다.

셋째, 전문 교과는 모든 학생이 이수할 「계열별 필수 교과」만 교육부가 2~4 과목으로 지정하고, 「학과별 필수 교과」는 시·도 교육청이, 「학과별 선택 교과」는 각 학교가 선택하도록 개선하여 전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국제화에 대비하여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외국어에 관한 전문 교과」를 신설하였다.

넷째, 실업계의 경우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에 관한 전문 교과(270 과목)를 산업 구조의 현실과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 준비 기초 기능의 강화 및 중복·유사 과목의 해소 등을 위하여 대폭 통·폐합하고, 미래 사회의 산업 구조와 정보화, 첨단 기술 등의 발전에 대비

한 새로운 전문 교과를 추가하였다.

다섯째,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총 이수 단위를 204 단위로 조정하고,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12 과목 내외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금까지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의 3개 과정만 설치, 운영하던 것을 3개 과정 외에 지역 특성, 학교 실정, 학생 요구 등을 고려하여 기타 필요한 과정을 시·도별로 설치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여섯째, 학생의 다양한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특성별 과목을 대폭 신설하고, 교육 내용의 위계성이 강하여 선수 학습 능력이 과목 이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학, 과학, 외국어, 한문 등의 교과는 여러 수준의 과목을 설정하여 우수아, 부진아, 진학 희망자, 비진학자 등이 제각기 능력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일곱째, 교육 내용의 시대적,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과학·환경 교육의 강화,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의 개선, 정보화·고도 산업화 사회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 강화, 윤리 교육 및 전통 문화 교육, 예술·정서 교육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 내용을 개선하였다.

여덟째, 특별활동은 학급 활동, 학교 활동, 클럽 활동, 단체 활동의 4개 영역으로 편성하였다. 지금까지의 특별활동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영역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초·중등학교의 활동 영역을 ‘학급 활동, 학교 활동, 클럽 활동’ 등 3개 영역으로 일원화하고, 고등학교에는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단체 활동’을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특별활동에 배당된 기준 단위는 학급 활동 및 클럽 활동(10단위)과 단체 활동(4단위)에 한한 것이므로, 학교 활동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 라. 부분 개정

1993년 6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3-6 호로 교련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 시대적 변화와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라 군사 교육 중심에서 질서 및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 생활 중심으로 개정하였다.

1997년 12월 12일 교육부 고시 제 1997-12 호로 공업계 고등학교 「2·1 체제」 교육과정 고시가 있었다. 공업계 고등학교 「2·1 체제」 교육과정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기술·기능 인력 양성 제도’ 개편 사업에 의하여 1994년부터 일부 공업 계열 고등학교가 2·1 체제로 시범 운영됨에 따라 동 체제에 적용될 학교와 산업체 현장 교육에서 사용될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공고 2·1 체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의 양성을 위해 산학 협동에 의해 공

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1, 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 및 기초 실습 위주로 교육을 받고, 3학년 학생들은 산업체 현장에서 응용 실습 교육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공고 2·1 체제라고 부른다.

공고 「2·1 체제」 교육과정 구성 방침은 (1) 제 6 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일관되게 구성하고, (2) 학생들이 공업계 고등학교 「2·1 체제」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보통 및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고, (4)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산업체 현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와 산업체로 이원화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통 교과는 제 6 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하고, 전문 교과는 산업체 현장의 직무 분석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교과로 개설하였다.

## 9. 제 7 차 교육과정기(1997~2009)

###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개정,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 개혁 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1995년 5월 31일 교육 개혁 위원회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교육 체제는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을 비전으로 삼았으며,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1) 필수 과목 축소 및 선택 과목 확대, (2)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3)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교육과정 개선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교육 개혁 위원회 내에 「교육과정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년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 위원회는 1996년 2월 9일 교육 개혁 과제의 하나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제시하였다. 그 세부 개정 지침은 다음과 같다.<sup>30)</sup>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설정 등 신교육과정 편제 도입

(2)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30)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Ⅱ)’, 1996. 2. 9. 제3차 대통령 보고서, pp. 38~52.

(3) 능력 중심의 목표 진술과 구체적 내용 제시의 최소화, 독서 교육 강화, 교과 교육에서의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강화, 평가 방법의 개선 등 교육과정 각론 개발의 주요 지침 제시

(4) 선택 과목 도입에 따른 수능 제도의 개선,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 확대 및 교과서의 질 제고, 다양한 교사 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교사 연수 강화, 학교 환경 및 시설의 개선, 교육과정 중심의 단위 학교 조직 개편 권장 등 지원 체제 확립

교육 개혁 위원회가 제시한 신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1996년 3월 19일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 계획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한국 교육 개발원에 교육과정 개선 기초 연구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위탁하고, 이 시안에 대해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현장 검토, 교육과정심의회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 1997년 2월 28일에 교육과정 총론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교육과정 총론 편제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교과 교육과정(각론) 개발 지침을 마련한 후 서울대학교 등 14개 기관에 교과별 각론 개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위탁하였다. 개발된 개정 시안에 대하여 각종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그리고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현장 검토, 교육과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을 두었다(교육부, 2000: 107-109).

첫째, 목표에 있어서는, 학생의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목표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충실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내용에 있어서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 신장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넷째, 제도에 있어서는,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결정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나.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7차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

람,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5)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을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방침은 6개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00: 109-114).

첫째,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언어 능력, 사고 능력, 기초 체력, 탐구력과 창의성, 판단력,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등과 같은 기초적, 기본적인 교육의 충실을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반드시 달성하여야 할 과제로 삼았다.

둘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학교급별 개념에 의한 교육과정 체제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각각 별도로 공포 또는 고시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단일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국어, 도덕 등 10개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간은 선택 중심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자신의 진로와 능력 수준에 알맞은 과목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선택 과목은 보통 교과의 경우 6차 교육과정기의 60과목에서 79과목(일반 선택 과목 26, 심화 선택 과목 53)으로, 전문 교과의 경우 378과목에서 445과목으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셋째,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최소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교과 학습 내용을 정선하고 범위와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을 제6차 교육과정의 12과목에서 10과목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생의 필요, 능력, 적성,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의 능력과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중에 교과 특성에 따라 단계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선택 중심 교육과정 기간에는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학과 영어 교과에 적용하되, 학년을 단계로 하고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다양한 유형의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 수준에서는 엄격한 과정 구분을 폐지하였다.

다만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의 경우 과목 선택권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만 있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즉 선택 과목 136단위 중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하되, 학생이 최대 50%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방법에 있어서는 실험, 실습, 관찰, 조사, 수집, 토론, 견학, 노작 등 학습자 중심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모든 학습 과정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 체제를 확립하였다. 국가는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공통적인 사항만을 직접 관리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위임하였다. 즉, 국가(교육부)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고시하고, 시·도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각 학교에 제시하며, 학교는 국가 기준과 시·도 지침을 기초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역할 분담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특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와 시·도 교육청에서 의도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과별 교육 목표의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1997년 12월 13일 교육법이 폐지되고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가 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목표를 교육과정에 제시하였다.

####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7차 교육과정은 제1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과 제2장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제3장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총론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1)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2) 학교급별 교육 목표, (3)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4)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을 제시하였다.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7-15 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은 <표 17>과 같다.



교 과	과 목				기준 학과	
농업에 관한 교과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농업 경영	식물 자원과	
	생물 공학 기초	재배	작물 생산 기술	숲과 인간	동물 자원과	
	산림 자원 기술	원예	생활 원예	생산 자재	농업 경영과	
	원예 기술 I	원예 기술 II	축산	사육 기술 I	농업 토목과	
	사육 기술 II	누에와 비단	잡사 기술	농업 기계	식품 가공과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기술 I	농업 기계 기술 II	농업과 물	농업 기계과	
	농촌과 농지 개발	농업 토목 기술 I	농업 토목 기술 II	식품 과학	조경과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I	식품 가공 기술 II	환경 보전	농산물 유통과	
	환경 관리 I	환경 관리 II	조경	조경 기술 I	환경 보전과	
	조경 기술 II	농산물 유통	유통 관리 I	유통 관리 II	기타 학과	
	기타					
	공업에 관한 교과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전문 제도	기계과
		기계 일반	전기 일반	공업 영어	기계 설계	전자 기계과
		기계 공작법	원동기	유체 기기	공기 조화 설비	금속과
기계 기초 공작		공작 기계 I	공작 기계 II	산업 설비	자원과	
금형 제작		전자 기계 이론	전자 기계 회로	전자 기계 공작	전기과	
전자 기계 제어		금속 재료	금속 제조	소성 가공	전자과	
주조		금속 처리	자원 개발	화약발과	통신과	
석재 가공		시추지하수	자원 개발 조성	자원 개발 기계	전자 계산기와	
전기 응용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전력 설비 I	토목과	
전력 설비 II		전가전자 측정	자동화 설비	전자 기기	건축과	
전자전산 응용		전자 회로	계측 제어	통신 일반	산업 디자인과	
정보 통신		통신 시스템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화학 공업과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	멀티미디어	역학	세라믹과	
토목 설계		토목 일반	측량	토목 재료시공	식품 공업과	
수라토질		지적 전산	지적 실무	건축 구조	섬유과	
건축 계획 일반		건축 시공 I	건축 시공 II	건축 시공 III	인쇄과	
디자인 일반		색채 관리	조형	제품 디자인	자동차과	
공예		공업 화학	단위 조작	제조 화학	조선과	
화공 계측 제어		뉴 세라믹	소결 세라믹	고온 세라믹	항공과	
응결경화 세라믹		용융 세라믹	발효 공업	식품 제조 기계	환경 공업과	
식품 공업 I		식품 공업 II	섬유 재료	방직방사	기타 학과	
제포봉제		염색가공	인쇄 일반	인쇄 재료		
평판 인쇄		특수 인쇄	사진전자 제판	사진 기술		
자동차건설 기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새시	자동차 전기		
건설 기계 구조정비		선박 이론	선박 구조	선박 의장		
선박 건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기체	항공기 기관		
항공기 장비		항공기 전자 장치	환경 공업 일반	대가소음 방지		
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기타			

상업에 관한 교과	상업 경제 상업 법규 원가 회계 무역 영어 프로그래밍 실무 그래픽 디자인 비서 실무 마케팅 기타	회계 원리 상업 계산 실무 세무 회계 국제 상무 시각 디자인 일반 컴퓨터 그래픽 사무 자동화 일반 광고 일반	컴퓨터 일반 경영 실무 회계 실무 자료 처리 사진 관광 경영 실무 사무 자동화 실무 유통 관리 일반	경영 개요 기업 회계 국제 경영 전자 계산 실무 시각 디자인 실무 비서 일반 문서 실무 유통 정보 실무	경영 정보과 회계 정보과 통상 정보과 정보 처리과 시각 디자인과 관광 경영과 비서과 사무 자동화와 유통 경영과 기타 학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양식 생물 질병 수산물 판매 관리 냉동 기계 선박 전자전자 잠수 기술 해사 영어 전자 통신 운용 기타	해사 일반 수산 경영 일반 수산 가공 해양 환경 냉동 설비설계 기계 설계공작 항해 선화 운송 기타	해양 일반 어업 수산 가공 기계 해양 오염 열기관 해양 토목 선박 운용 전자 통신 공학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양식 수산물 유통 냉동 일반 선박 보조 기계 해양 구조물 설계시공 해사 법규 전자 통신 기기	어업과 수산 양식과 자양 수산과 수산 식품과 수산물 유통과 해양 환경과 냉동 기계과 동력 기계과 해양 토목과 항해과 선박 운항과 전자 통신과 기타 학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인간 발달 외국 조리 한국 의복 구성 한국 무늬 가구 디자인 유아 놀이표현 지도 관광 조리 헤어 미용	식품과 영양 제과 제빵 서양 의복 구성 자수 디스플레이 관광 일반 관광 영어 피부 관리	급식 관리 의복 재료관리 홈 패션 주거 유아 교육 원리 여행 업무 관광 일본어 공중 보건	한국 조리 복식 디자인 편물 실내 디자인 유아 생활 교육 호텔 업무 노인 생활 지원 기타	조리과 의상과 자수과 실내 디자인과 유아 교육과 관광과 노인 복지간호과 미용과 기타 학과
과학에 관한 교과	물리 실험 과학사 고급 수학 고급 지구 과학 현대 과학과 기술 기타	화학 실험 전자 과학 고급 물리 과제 연구 I 원서 강독	생물 실험 컴퓨터 과학 I 고급 화학 과제 연구 II 워크숍	지구 과학 실험 컴퓨터 과학 II 고급 생물 환경 과학 과학 철학	
체육에 관한 교과	체육 개론 수영 체조 경기 사격 사이클 볼링 카누	스포츠 과학 구기 수영 경기 양궁 골프 스키 기타	육상 무용 구기 경기 역도 요트 펜싱	체조 육상 경기 투기 빙상 조정 배드민턴	

예술에 관한 교과	음악 이론 실내악 음악 감상 미술 이론 판화 서예 무용 이론 발레 무용 창작 문학 개론 현대 문학 연극 개론 화술 전공 실기 사진 개론 암실 실기 기타	음악사 합창합주  미술사 조소 영상 미술 무용사 현대 무용 무용 감상 문학사 시 창작 영화 개론 기초 연기  사진사 조명 실기	시창청음 연주  소묘 디자인  동작 분석 민속 무용  문장론 소설 창작 연극사 무대 기술  기초 촬영 실기 사진 편집	전공 실기 컴퓨터와 음악  회화 공예  한국 무용 무용 음악  고전 문학 희곡 창작 영화사 라디오텔레비전  중급 촬영 실기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문예 창작과 연극 영화과 사진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	영어 독해 I 영어 작문 I 영어권 문화 독일어 독해 I 독일어 작문 I 독일 문화 프랑스어 독해 I 프랑스어 작문 I 프랑스 문화 스페인어 독해 I 스페인어 작문 I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어 독해 I 중국어 작문 I 중국 문화 일본어 독해 I 일본어 작문 I 일본 문화 러시아어 독해 I 러시아어 작문 I 러시아 문화 아랍어 독해 I 아랍어 작문 I 아랍 문화 기타	영어 독해 II 영어 작문 II 실무 영어 독일어 독해 II 독일어 작문 II 실무 독일어 프랑스어 독해 II 프랑스어 작문 II 실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해 II 스페인어 작문 II 실무 스페인어 중국어 독해 II 중국어 작문 II 실무 중국어 일본어 독해 II 일본어 작문 II 실무 일본어 러시아어 독해 II 러시아어 작문 II 실무 러시아어 아랍어 독해 II 아랍어 작문 II 실무 아랍어	영어 회화 I 영어 청해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청해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 청해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 청해  중국어 회화 I 중국어 청해  일본어 회화 I 일본어 청해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청해  아랍어 회화 I 아랍어 청해	영어 회화 II 영어 문법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 문법  프랑스어 회화 II 프랑스어 문법  스페인어 회화 II 스페인어 문법  중국어 회화 II 중국어 문법  일본어 회화 II 일본어 문법  러시아어 회화 II 러시아어 문법  아랍어 회화 II 아랍어 문법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국제에 관한 교과	영어 강독	독일어 강독	프랑스어 강독	스페인어 강독
	중국어 강독	일본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 문제	비교 문화
	정보 과학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한국의 전통 문화 과제 연구	한국의 현대 사회 예능 실습	한국어 기타	
이수 단위	82~			

-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위의 표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82 단위 이상 이수한다.
- 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 농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 ㉡ 공업 계열 :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 ㉢ 상업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 ㉣ 수산·해운 계열 :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수산 계열), 해사 일반(해운 계열)
  - ㉤ 가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 ㉥ 외국어 계열 : 각 학과 해당 외국어 과목 I 및 청해
  - ㉦ 국제 계열 : 영어 강독, 지역 이해, 한국의 전통 문화
- ③ 전문 교과목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목의 각 과목 별 이수 단위는 8 단위 이하로 배당한다.
- ④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에 관한 교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 출처 :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7. 12. 30.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구성에 있어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중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명칭 통일을 위해 윤리를 도덕으로, 실업·가정을 기술·가정으로 교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술·가정은 선택에서 필수로 이수 구분을 변경하였다.

교과 편제의 제시 순서를 국어를 선두로 재조정하여,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교련·교양으로 하였다.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성과 정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술·가정 교과에 필수인 기술·가정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인 정보사회와 컴퓨터를 신설하고, 기술·가정 교과, 재량활동 그 외의 관련 교과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내용을 강화하였다. 또한,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교과 중 국제에 관한 교과를 신설하여 국제화에 대비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 과목에 아랍어를 신설하였다.

과목의 편제 구성은 보통 교과목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필수, 과정별 필수, 과정별 선택으로 구분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필수), 일반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일반 선택 과목은 교양 증진 및 실생활과 연관된 과목이며, 심화 선택 과목은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재량활동의 신설에 따라 각 교과에 배당되는 수업 시수는 전반적으로 감축·조정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중심 교육과정 기간 중에 이수하는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일반 선택 과목은 24단위 이상 이수하되, 학생들의 균형적 이수를 위하여 (1)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2)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3) 예·체능 과목군(체육, 음악, 미술), (4)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5) 교양 과목군(한문, 교련, 교양)의 5개 과목군으로 나누고, 모든 학생은 각 과목군에서 1과목(교양 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심화 선택 과목은 112단위 이하 이수하도록 하되, 별도의 이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교육과정의 편제는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교과와 특별활동의 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재량활동 영역을 신설하여 3개 활동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을 신설하여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재량권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재량활동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재량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다. 교과 재량활동은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sup>31)</sup>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재량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만 편성되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1학년에만 12단위가 배당되었다. 재량활동 12단위는 교과 재량활동에 10단위(주당 5시간)를 배정하고, 창의적 재량활동에 2단위(주당 1시간)를 배정하였다. 교과 재량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에 4~6단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에 4~6단위를 배정하였다. 다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재량활동은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셋째, 특별활동의 운영에 자율성을 도모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의 경우 집단 중심의 4개 영역(학급, 학교, 클럽 및 단체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중심의 5개 영역(자치, 적응, 계발, 봉사 및 행사 활동)으로 조정하였다. 단위 배당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급 활동 및 클럽 활동에 12단위, 단체 활동에 4단위를 각각 배정하고 학교 활동에는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영역별 이수 단위를 국가가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연간 이수할 총 단위 수만 제시하고, 영역별 이수 단위 결정권은 학교에 부여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도모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에는 5개 영역에 걸쳐 25개 활동을 예시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가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학년별

31) 범교과 학습이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 중 학교와 교사,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범교과 학습의 영역으로는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도할 영역의 선정은 학교 실정, 사회적 여건, 학생의 희망을 고려함으로써 학교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특별활동을 편성, 운영할 때 각 영역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시간 운영은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이수제 등을 예시하고, 시간 분할 또는 통합 운영 방안도 제시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넷째, 실업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의 경우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다음과 같은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 (1)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은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 (2) 선택 과목 중에서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3) 2학년에서도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일부를 편성할 수 있다.
- (4)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4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
- (5)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교체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6)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7)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단위를 10%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할 수 있다.

## 라. 부분 개정

2004년 11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4-85호로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이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국제고 등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해당 계열의 전문 교육 강화를 위하여 총 이수단위 증배 시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학과의 설치나 집중 이수 과정의 개설을 금지하여, 해당 계열의 영재 양성을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전공 외국어 이수 비율을 50%(42단위) 이상으로 설정하고 전공 외국어 이외의 2개 외국어를 포함하여 전문 교과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2005년 1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5-10호로 공고 2·1체제 교육과정과 국사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일부 산업체에서만 편성·운영하던 공고 2·1체제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흡수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1체제 교과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사 교육의 정상화 및 외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역량의 확보를 위하여 근·현대사 교육을 보완하고 필수화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국사과 교육과정에 근·현대사 내용 요소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학습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전근대사

내용 요소 일부를 삭제하였다.

2006년 8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6-75호로 수학·영어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및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을 권장함으로써 수준별 수업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또한, 수준별 교과서(보충 교재)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수준별 수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로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등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 및 내용 체계를 개편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계를 유지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연도를 밝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단위 배당 기준은 <표 18>과 같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별 단위 배당을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교과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여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보통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통합하여 선택 과목으로 일원화하고, 이수 단위를 6단위로(교양 등 일부 과목만 4단위) 통일하여 학교에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5개의 선택 과목군을 6개로 조정하여 예·체능 과목군을 체육 과목군과 예술 과목군으로 분리함으로써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주5일 수업제 월2회 실시에 따른 수업시수 감축은 1학년은 재량활동에서, 2·3학년은 교과에서 주당 1시간 분량(2단위, 34시간)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표 18>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2007. 2. 28.)

가. 보통 교과

구 분		선 택 과 목
교          과	국 어	문법(6), 화법(6), 독서(6), 작문(6), 문학(6), 매체 언어(6)
	도 덕	현대 생활과 윤리(6), 윤리와 사상(6), 전통 윤리(6)
	사 회	한국 지리(6), 세계 지리(6), 경제 지리(6), 한국 문화사(6), 세계 역사의 이해(6), 동아시아사(6), 법과 사회(6), 정치(6), 경제(6), 사회·문화(6)
	수 학	수학의 활용(6), 수학I(6), 미적분과 통계 기본(6), 수학II(6), 적분과 통계(6), 기하와 벡터(6)
	과 학	물리I(6), 물리II(6), 화학I(6), 화학II(6), 생명 과학I(6), 생명 과학II(6), 지구과학I(6), 지구과학II(6)
	기술·가정	농업 생명 과학(6), 공학 기술(6), 가정 과학(6), 창업과 경영(6), 해양 과학(6), 정보(6)
	체 육	운동과 건강 생활(4), 스포츠 문화(4), 스포츠 과학(6)
	음 악	음악 실기(4), 음악과 사회(4), 음악의 이해(6)
	미 술	미술과 삶(4), 미술 감상(4), 미술의 창작(6)
	외국어	영어I(6), 영어II(6), 실용 영어 회화(6), 심화 영어 회화(6), 영어 독해와 작문(6),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6) 독일어I(6), 독일어II(6), 프랑스어I(6), 프랑스어II(6), 스페인어I(6), 스페인어II(6), 중국어I(6), 중국어II(6), 일본어I(6), 일본어II(6), 러시아어I(6), 러시아어II(6), 아랍어I(6), 아랍어II(6)
한 문	한문I(6), 한문II(6)	
교 양	생활과 철학(4), 생활과 논리(4), 생활과 심리(4), 생활과 교육(4), 생활과 종교(4), 생활 경제(4), 안전과 건강(4), 환경(4), 진로와 직업(4)	
이수단위	132	
특별 활동	8	
총이수단위	140	

※ 전문 교과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여 생략함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7. 2. 28.

2008년 9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로 보건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교양 과목군에 보건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경과 조치로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7시간 이상의 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9년 3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로 경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과 교육 과정을 개정하였다. 총론의 개정은 없었고, 각론에서 경제 교육의 내용을 재조정하였다.

<표 II-19>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 (1945~1946)	법령 제6호	1945. 9. 29.	1945. 9.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 용어 국어 사용</li> <li>○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과목은 교수와 실습 금지</li> <li>○ 공민과 신설</li> <li>○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인 국어 교육</li> <li>○ 일본 역사 대신 우리 국사로 대치</li> </ul>
교수 요목의 시기 (1946~1954)	고급 중학교 교수 요목	1946. 9. 1.	1946.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 요목: 학생들이 학습해 나갈 코스,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li> <li>○ 편제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민, 역사, 지리 통합: 사회 생활</li> <li>- 체육, 보건 통합: 체육·보건</li> <li>-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li> </ul> </li> <li>○ 외국어 확대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영어</li> <li>- 선택: 중국어, 불어, 노어, 독어</li> </ul> </li> </ul>
제 1 차 교육 과정의 시기 (1954~1963)	문교부령 제 35 호 “국민 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사범 학교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1954. 4. 20.	1954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li> <li>○ 편제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 특별 활동의 2개 영역 구성</li> <li>- 교과와 과목 구분</li> </ul> </li> <li>○ 연간 시간으로 제시하면서 주당 시간 수는 괄호 안에 제시</li> <li>○ 사회교과 내에 도덕 과목 신설</li> <li>○ 특별 활동 시간 배당: 전인 교육 지향</li> </ul>
	문교부령 제 46 호 “고등학교 교과 과정”	1955. 8. 1.	1955. 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 중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li> </ul> </li> <li>○ 인문계, 실업계 구분 없이 단일 교육과정 제시</li> <li>○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 강조</li> </ul>
	문교부령 제 76 호	1958. 6. 5.	1958.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교부령 제35호의 제22조 개정</li> <li>○ 실업 고등학교의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 신설</li> </ul>
제 2 차 교육 과정의 시기 (1963~1974)	문교부령 제 121 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63. 2. 15.	1965.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경험) 중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li> <li>-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의 강조</li> </ul> </li> <li>○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제 채택</li> <li>- 인문계 고등학교에 과정 개설: 인문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 예능 과정</li> <li>- 인문 과정 204 단위, 자연 과정 214 단위</li> </ul> </li> <li>○ 학교에 교육과정 재구성권 부여</li> </ul>

	문교부령 제122호	1963. 2. 15	1963. 3. 1	○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 별도 제정
	문교부령 제207호	1969. 2. 19	1969. 3. 1	○ 교련 교과 신설
	문교부령 제 251 호	1969. 9. 4.	1970. 3. 1.	○ 한글 전용 계획에 따라 국어 I에서 한자 삭제 ○ 국어 II 한문 6단위 → 8단위 ○ 국민 교육 현장 이념 구현 ○ 남·여 공통 필수 기술 과목 신설 ○ 에스파니아어 신설
	문교부령 제274호	1971. 2. 19	1971. 3. 1	○ 국민윤리 교과 독립
	문교부령 제 310 호	1973. 2. 14.	1975. 3. 1.	○ 일본어 신설
	문교부령 제 325 호	1973. 8. 31.	1973. 8. 31.	○ 국사 교육 강화
제 3 차 교육 과정의 시기 (1974~1981)	문교부령 제 350 호 “교육과정령” 별책 3 별책 4	1974. 12. 31.	1977. 3. 1.	○ 학문 중심 교육과정 - 지식의 구조, 기본 개념과 원리 중시 ○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 구현 -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 자아 실현, 국가 발전, 민주적 가치 강조 ○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 총론, 각론으로 구분 -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3)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4) 별도 편제 - 교과 구분: 필수, 필수선택, 과정별 선택 - 자유선택 과목 신설 - 교과목별 이수 단위에 폭을 두어 교과 운영의 융통성, 신축성 부여 - 국사 교과로 독립 - 외국어, 한문, 기술 교육 강화
	문교부령 제 404 호	1977. 2. 28.	1977. 3. 1	○ 사회 교과 개정 - 정치·경제를 필수 과목으로 함. ○ 산업체의 근로 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 학급, 부설 고등학교 예외 조치 규정 ○ 특별 활동의 학생회 활동을 학도 호국단 활동으로 함.
	문교부 고시 제 424 호	1979. 3. 1.	1979. 3. 1.	○ 교육과정 문서 결정 체제의 개선 - 교육과정 체제 정비: 체제 통일, 자구 수정, 맞춤법 통일 등 - 문교부령(법규 문서)으로 공포되는 교육과정을 문교부 고시(공고 문서) 형태로 개선

제 4 차 교육과정의 시기 (1981~1988)	문교부 고시 제 442 호 별책 4 “고등학교 교육 과정”	1981. 12. 31.	1984.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 교육 사조와 이론의 지배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의 조화</li> <li>- 교과, 경험, 학문 중심 교육 사조의 균형, 조화</li> <li>-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반영</li> <li>- 교육과정: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li> </ul> </li> <li>○ 교육적 인간상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li> </ul> </li> <li>○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단일화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 총 이수 단위 204~216 단위로 동일하게 조정</li> <li>- 자유 선택 과목 : 선택의 범위 확대(논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 등)</li> </ul> </li> </ul>
	문교부 고시 제 85-10 호	1985. 12. 17.	1986.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련: 국민 정신 교육 강화, 군사 기능 관련 내용의 통합 축소</li> <li>○ 특별 활동: 학도 호국단 활동 → 학생회 활동</li> </ul>
제 5 차 교육과정의 시기 (1987~1992)	문교부 고시 제 88-7 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88. 3. 31.	1990.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익 인간의 이념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li> </ul> </li> <li>○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교육의 강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li> </ul> </li> <li>○ 체제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 교과 공통 필수 과목은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 공통 이수</li> <li>- 교육과정 단위 배당 제시는 기존의 급간제에서 기준 단위 제시로 변경</li> <li>- 정보 산업 과목 신설</li> <li>- 기타계 고등학교 : 과학 계열, 예술 계열 교육과정 제정</li> </ul> </li> </ul>
	문교부 고시 제 90-1 호	1990. 1. 22.	1990.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계 고교 비진학 학생의 직업 교육과정 선택에 대한 융통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학년에서 직업 과정으로 변경 가능</li> </ul> </li> <li>○ 문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계, 기타계 고교 과목, 계열, 학과 신설에 대한 승인</li> </ul> </li> </ul>

제 6 차 교육 과정의 시기 (1992~1997)	교육부 고시 제 1992-19 호 “고등 학교 교육과정”	1992. 10. 30.	1996.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 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li> <li>○ 교육과정 개정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li> </ul> </li> <li>○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국가 교육과정 기준</li> <li>-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li> <li>- 학교: 학교 교육과정</li> </ul> </li> <li>○ 교육과정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 학교의 교육 목적,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li> <li>- 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li> </ul> </li> <li>○ 체제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계, 실업계, 과학계, 체육계, 예술계 고등학교별 분리 제시에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한 개방형 체제로 전환</li> <li>- 보통 교과: 공통 필수, 과정별 필수, 과정별 선택으로 개설</li> <li>- 전문 교과: 계열별 필수, 학과별 필수, 학과별 선택으로 개설</li> <li>- 공통 필수 과목: 계열과 과정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이수</li> </ul> </li> <li>○ 외국어에 관한 전문 교과 신설</li> <li>○ 러시아 어, 진로 직업 신설</li> <li>○ 특별 활동에 단체 활동 신설</li> </ul>
	문교부 고시 제 1993-6 호	1993. 6. 30.	1993.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 교육 중심 교련 교육과정을 질서 및 사고와 재단에 대비하는 안전 생활 중심으로 개정</li> </ul>
	교육부 고시 제 1997-12 호 ‘공업계 고등학교 2·1 체제 교육과정’	1997.12. 12.	1999.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 학년: 학교에서 이론 및 기초 실습 교육</li> <li>- 3 학년: 산업체 현장에서 응용 실습 교육</li> </ul> </li> <li>○ 체제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체 현장의 직무 분석에 근거하여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li> </ul> </li> </ul>

제 7차 교육과정의 시기 (1997~ )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1997. 12. 30.	2002.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표방</li> <li>○ 21 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li> </ul> </li> <li>○ 고등학교 교육 목표 신설</li> <li>○ 교육과정 개정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li> <li>- 고등학교 2, 3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li> <li>-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li> <li>- 재량 활동의 신설</li> <li>-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li> <li>-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li> <li>-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 능력 배양</li> </ul> </li> <li>○ 국제에 관한 전문 교과 신설</li> <li>○ 아랍어 신설</li> <li>○ 특별 활동: 집단 중심 → 활동 목표, 내용 중심으로 영역 설정</li> <li>○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 중, 고 교육과정 단일 교육과정으로 통합</li> <li>-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도입</li> <li>-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3개 영역으로 구성</li> <li>- 선택 중심 교육과정 : 교과, 특별 활동</li> <li>- 재량 활동 : 교과 재량, 창의적 재량</li> </ul> </li> </ul>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2004. 11. 26	2005.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이수단위 증배는 전문교과에만 허용</li> <li>-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학과, 과정 개설 금지</li> <li>- 외교 전공 외국어 비율 50% 이상</li> </ul> </li> </ul>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5-10호	2005. 12. 28	2006.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 2·1체제 교육과정 폐지</li> <li>-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흡수 통합</li> <li>○ 국사 근·현대사 교육 보완</li> </ul>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2006. 8. 29	2009.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 영어 수준별 교육과정 폐지</li> <li>- 수준별 수업 권장</li> </ul>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2. 28	2011.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 과목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 통합</li> </ul> </li> <li>○ 선택과목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체능과목군을 체육과목군과 예술과목군으로 분리</li> </ul> </li> </ul>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	2008. 9. 11	2009.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 과목 보건 신설</li> <li>- 2009학년도 1학년 재량활동 시간 17시간 보건 교육</li> </ul> </li> </ul>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	2009. 3. 6	2011.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과 교육과정 중 경제교육 내용 재조정</li> </ul> </li> </ul>